

영재

AIR FORCE QUARTERLY

1993년 제223호



영재

공영의향의 자유권

— 공영의향의 자유권의 자유권 —

이 책

1

공영의향의 자유권의 자유권
비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2

공영의향의 자유권의 자유권
비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자유권의 자유권의 자유권





제21대 공군 참모총장 이임식 및 제22대 공군 참모총장 취임식이 지난 5월 27일 禮奉
海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 귀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계룡대 연병장에서 거
행되었다.

제22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조근해 대장은 공군기와 함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할
지휘권을 인수하고 조국영공수호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였다.

“조국영공수호 임무 성실히 수행하고...”

본인은 오늘 공군 참모총장의 소임을 마치고 지난 37년 동안 정들었던 공군을 떠나면서,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여러 분과 특별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와 ‘자주적 공군력 건설’에 묵묵히 정진해 온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지만 본인은 장병 여러분과 고택을 함께 하며 우리 공군에 부여된 시대적 요구를 깊이 인식한 가운데, 민족의 번영과 통일과업을 감격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국 영공수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과 통일조국의 작전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대 위주의 자주적 질수권력 확보에 역량을 두고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승의 요새는 잘 훈련된 우수한 전투요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고촌삼아 실천적 교육훈련을 내실화함으로써 평소 훈련현대로 바뀌 어갈 수 있는 정예 전투력 육성에 매진할 뿐 아니라 형식보다는 내실, 무리보다는 합리적 부대관리로 신뢰와 존경 속에 활기찬 부대를 이룩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

는 믿음직스러운 공군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범국민적 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새로운 공군상 정립에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결코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은 앞으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대열에 숭선 참여하여 더욱 발전하는 공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을 만들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군의 위상과 장병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후배들에게 물려 줄 자랑스러운 공군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은 신임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완벽한 영공방위와 공군발전을 위해 주권의 노력함으로써, 21세기의 다원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강한 공군, 더욱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공군을 유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언**



“건강한 공군, 깨끗한 공군, 신바람나는 공군 건설을...”

본인은 오늘 명예 의하어 제22대 공군 참모총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과 소임의 막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치열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평화공존 기류가 확산되어 전쟁발발의 가능성은 감소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여러 곳에서 국지적 분쟁과 혼란이 계속되는 일촉즉발의 불안관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현실에 냉엄한 속에서도 21세기 태평항시대를 주도할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하여 전 국민이 단결된 노력으로 신한국 창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세계 속에 신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지 완결된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는데 열과 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나 할상 전쟁에 대비하라”는 교훈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은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결승의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이 지향하는 전투상비태세의 육지는 바로 우리를 화롭게 했던 비생산적인 갈등을 일소하고 참군인으로서 정신자세를 되찾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무중심적 공군정신의 회복과 긍정적이고도 올바른 사고방식의 전환 속에 영공방위 임무 완수를 위한 희생과 숭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이것은 내실있는 교육과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래서 훈련한 방식대로만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 공군'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 공군이 더욱더 일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대를 합리적으로 지휘 관리해야 하였습니다.

또한 상병들의 사기와 국민들의 신뢰감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위의 전리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하적인 작전운용과 갑독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정

공적인 작전임무 수행은 물론, 전례보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발전된 공군의 모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흘려 힘에 온 전배들의 노고와 결승의 정신력으로 임무에 정진하다 순직하신 선배, 후배들의 고귀한 희생의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믿으며, 건강한 공군, 깨끗한 공군, 그리고 신바람 나는 공군을 건설함으로써 공군의 일원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또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공군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단결할 것을 다짐하면서 취임사에 가담하고자 합니다. **공공**

글 차례

• 화 보	1
• 권 두 언	10
• 여름의 시선	12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 / 조지훈	14
감각 / 맹보	15
• 보라매칼럼	16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 중령 정광희	16
복무규정을 성찰화 하자 / 중령 김종열	18
• 공군캠페인	20
지상사고 방지를 위해 / 상사 심상우	20
• 탐방취재	24
만동 도산서원 / 16비검훈관실	24
• 기 획 1 한국전쟁과 공군	
한국전쟁에서의 항공우세 / 중위 정두용	28
참전용사 고임택군 대위 / 대령 서홍교	34
• 기 획 2 심리전의 역할	
결포전에서의 심리전 / 소령 이삼현	38
한국전쟁과 심리전 / 중위 임채동	44
• 시사안테나	50
한국 안보 그 위기의 극복 / 이선호 박사	50
북한위 핵개발 문제 / 문정석 교수	56
• 특 집 새 시대를 맞이하는 軍	
신한국 건설의 의미와 달위성 / 박상철 교수	62
바람직한 군문화를 위해 / 홍두승 교수	63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군위상의 정립 / 중위 임기원	70
신한국를 맞는 우리의 자세 / 6급 최태준	75

글차례

• 토막이야기	세계명작 다이제스트/편집실	77
	명언선집—군에 관하여/편집실	80
• 화 보		81
• 군사지식	적·아식별 장비의 올바른 이해/대령 한태환	89
	수치지도의 작성과 활용/소령 김정기	94
• 만 화	행복은... /상병 고석환	98
• 알아들시다	공군 군사용어 해설/편집실	104
• 연구분석	HACKER와 컴퓨터 범죄/상사 손진원	106
	구타사고 군법에 관하여/중령 남재문	113
• 알아들시다	장병을 위한 법률 상담	121
• 병영이야기	못나기의 새아침/일병 이원천	123
	비행(무고)/일병 차재근	124
• 토막이야기	위민들의 일화	126
• 마음의 샘	T-BEAT여, 영령하라/대위 손종구	128
	천적의식/상사 김진석	130
	명산을 찾아서/5급 이동선	132
	세월유환/5급 이희호	136
• 공군문단	틀러오는 그 소리/편위 김상용	138
	삼화 황기/9급 조영혜	139
	김기자를 생각하며/소령 이형걸	141
• 알아들시다	시시용어—신세대에 관해/편집실	143
• 독자의 광장	현대 가정생활에서의 節/이강숙	144
	군사용어와 속어의 기원/소령 김성훈	148
• 글을 기다립니다		151

1993년
제 223호



▶ 30방공 관제단을 순시하고 지휘관 및 참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93. 6. 16)



◀ 공군 제3501부대 101비행대대로의 80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에 참석하여 시상하고 있다. (93. 6. 10)



▲ 국회의원이 실종 5년 만에 조현영씨를 발견하여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93. 6. 11)



◀ 금강원천 지휘관 참모들과 함께 일출면 소재는 전여농매(오대기)를 치유하고 농민을 지원하였다. (93. 6. 18)

“호국의 간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제 91기 공군사관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식이 지난 6월 17일 精根海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하단 좌측 사진)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들은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우수한 자원들로 1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통하여 공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력과 직무지식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연마하고 중·소위로 임관, 앞으로 전후방 각 분야에서 주국 영공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명예의 국방부 장관상은 경남 밀양 출신의 이준호 소위(25,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졸)가 수상했으며 (상단 사진), 특히 군복무를 병으로 마친 후 다시 장교로 임관한 2명의 신임장교가 있어 (하단 우측 사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윤화두 소위, 이진형 소위)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3년 제223호



參謀總長 指揮方針

完璧한 領空防衛 任務完遂

戰鬥常備態勢 維持

實戰的 戰鬥訓練

合理的 指揮管理

공 군 본 부

認識의 轉換

“存在한다는 것은 變化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부주의 대자연에 있어서 낡은 질서나 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것을 創造하는 일 만큼 즐거운 것은 改革 이외에는 없다.” 이는 Pax Romana 시대 5월帝 중 하나인 M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의 ‘自傳日記’에서 한 말이다. 여기에는 개혁이 결코 두려워 하거나 부담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지난 세월 추호라도 우리가 구태의연한 사고속에 안주하려 했다면 이제 그 인식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 한단계 도약을 성취해야 할 때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순간적인 열정만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빨리 서두르코자 하면 곧 이루지 못한다”는 孔子의 말에 한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의식이나 인식이 결코 하루 아침에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는 것과 먼저 인식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 함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의식이나 인식은 그들이 처라운 주위환경, 각종 교육, 전통 등 많은 요인에 영향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중첩되어 진전한 사회 문화가 발달되어 갈때 우리의 바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도약도 제도적인 개선이나 일시적인 변화로만 대면할 수는 없다. 명실공히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의식이나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 훈 감
대령 정 태 섭



이제 우리 공군도 각자에게 맡겨진 군인으로써의 직분을 다하는 것만이 조국에 충성하는 길로서 더욱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완벽한 영공방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잘못된 관행의 혁명이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전장병들이 자신의 사고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데서 가능함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祖國의 영공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나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재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새로운 空軍文化가 창달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공군을 더욱 성숙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도 우리 조국 가족은 깨끗하고 신바람 나는 강한 공군을 기다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忍耐와 苦勞 앞에는 먼저 認識의 轉換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장독은 작은 실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군이라는 큰 독을 다들고 있는 장병들을 보면서 우리 공군지도 더욱 발전하는 공군속에서 구태의연한 사고의 협질을 벗어 던지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變化는 苦痛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라는 T. 카알라일의 말을 되새기면서 공군지도 계속 공군을 대표하는 간행물로 사람 밝으며 장병들과 소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겠다는 인식의 전환속에 비장한 각오를 다져본다. **정훈**

민족의 빛으로 역사하신 남들이시여 /
이 봄이 태어난 첫 밤에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봄 하늘이라 살면서도 잘리고 꽃간
내 뜻을 내 형제 내 사람을
누가 이토록 잘라 놓았던 말인가?
눈물 빛 하늘 쳐다 보기 부끄러워
숨 죽어 있습니다.

이름도 깨어나는 세상
눈 뜨고는 서러워 죽어도 눈 못 감을
맛줄이 이어지는 만났어 어서 오게하고
민족의 영혼으로 돌아가 승리의
역사가 역사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 모두 화해와 자리가 빠르게 찾아서.

이 세상 다 하도록 불러보는 한들이다 /
내 독을보다 더 귀한 이 밤에 삼원의 생명들이
더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눈물이 없게 하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하며

이제는 나와 내가 아닌
우리만을 지각하는 믿음과 사랑의
푸른 눈 갖고
화해와 연대의 철학으로 민족 자존의 자각과
조국 건국의 위대한 꿈 이루어지게 하며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와 겨레 위해 살아주는
님들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쁨이
영광으로 일게하소서.

선열님들의 뜨거운 피와 눈물로 세워진 내 조국
일약씩 보고 싶은 심천인 무궁화 동산에
꽃줄이 이어지는 만민이 이세와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 위해 일꾼되게 하소서.

무릇 하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
욕심만으로는 모든 새싹을 어쩔 수가 없어서
새싹스런 마른된 은빛 영혼의 날개
그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사람들 리 없는 고향의 하늘에
인정과 뜻을 재빨리만
일과 주관을

새 마름대로 바치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린다.
열리는 하늘은 그대로 우리 영혼의 서울.
아아 푸른 하늘 빛,
웃을 입은 병장, 이 맑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이라고 믿어라.
하늘을 지키는 것이 사람 길을
깨닫다고 믿어라.
태양은 우리의 것
차 신변의 세계도 우리의 것.
펼치어 오늘 흐르고,
내일도 흐를
저 하늘의 장막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뜨거웠다.

* 지인, 본명은 송바(송근). 1948년 고려대 교수 취임 후 초대 민족문화연구소장직을 맡아 '韓國文化史大系'를 기획하던
오사 이종 환장하게 뜻외로 별세했다.

感 覺

렘보(A. Rimbaud, 1854~1891)*

아름 아침빛 서너, 브린거 쿵쿵 쉼겨대는
 오솔길 걸어가며 잔물을 내리붓으면,
 꿈꾸던 나도 발 위에 그 신선함 느껴라.
 비움은 내 맨다리를 씻겨 주려니
 아무 일도 없고, 생각도 없으려.
 그대로 한없는 시름 낯 속에 몰라오려니
 반쯤려치려, 내 멀리, 멀리 가려라.
 계절 데리고 자듯 새벽에 겨워, 자연 속으로.

* 프랑스 시인. 알라프레, 베를렌과 함께 상징파 3대 시인이란 사람으로 꼽히며, 현대의 사실·문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라고 할 만큼 크다.



정일정 鄭映亭

한어류으로 달려가는 요즘, 휴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고 열광을 아끼지 않는 종목중의 하나가 바로 프로야구 경기다. 나도 프로야구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가 있을 때면 TV를 시청하는데 그때마다 지금은 코치로 있는 어필은 선수기가 생각이 난다. 그가 글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을 때 나에게 십여줄 그의 천안장이 상기되기 때문이다.

79년도에 내가 교육자에 배속되어 신병 구대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신병훈련 기간은 4주이나 이 훈련병은 입대전 아시아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서 해외 파견된 후 2주 후에야 입소하여 훈련 분위기에 적응하지 않았던 때다. 한편은 내가

을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수요일 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같은 훈련병이 묻는 얼굴로 다가와 "구 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터 훈련병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해 주시고 그 당시의 일은 꼭 잊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중군 대표선수로도 사회에 나아가 계속 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당시 당배를 싸우지 않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는니다."라는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가볍게 내던진 말은 나를 멍하게 했고,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600여 명의 훈련병이 과로운 기합을 받고 있을 때 그 다섯 명은 얼마나 더 두렵고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다, 그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용기있게 행동함으로써 그 다섯 명에게 잊혀질 수 없는 가르침을 준 훌륭한 젊은이가 아닌가!'

항상 자기의 잘못을 알파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우리가 속한 조직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또 책임을 맡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흔들림없이 임성을 굳굳하게 감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 사고나 인화 사고 발생시, 기다 모든 일이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뒤따르며 바뀐다. 공군 제3726부대에서 근무할 때 자살하자면 나의 대대장님께 던져진 슬픈 사고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대대장님께서는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연탄 가스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말미에 들에게 세바이어 조식을 신문지로 싸서 나누어 주면서 집에 퇴근한 후 이것을 아궁이에 태워 훈들 새나 팔거나 밑에서 가스가 흘러나오는 지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러 하였다. 그리고 모든 열차자로부터 이상이 없다고 각자 사망한 훈들을 받고는 압심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슬픈 소식이 우리의 귀를 스치었다. 중사 한 명이 연탄 가스에 의해 숨졌다는 것이었다. 정신 없이 달려가 보았지만 일온 모두 끝나고 하루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때 방 구석 책상 위에 신문지로 한迭이어 조식을 보는 순간 갑자기 숨쉴게 지 모른다. 그것을 받아 와 그대로 팔치해 놓은 것이 증명이었다. 아궁이에 그것을 태우면서 방에 훈들을 끄고 팔치를 접어 올려 보니 세바이어 연탄 가스가 코를 찌르는 듯 하였다. 우두커니 서서 그 대대장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 이 중사, 제 내 말을 안하고 이렇게 먼저 가니, 5분 동안만 내 마음을 읽어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닌

가!"

상관이 부하를 위하여 절성스런 마음을 고언이 된 이 한구는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허로를 사랑 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전심된 마음으로 상관과 부하, 선배와 후배, 동료간에 굳게 두지진 한후에로서 생활한다면 우리의 조직은 강해지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군, 비행단, 작계는 대대 및 소단위 부서의 일원이 되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직적인 단체 생활을 하면서 상관에게 수고했다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잘못했다는 질책을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일련의 무대생활에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무당스럽게 허우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각자의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군 생활 행태는 다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복종형 근무태도, 둘째, 인이하고 소극적인 근무 태도, 셋째, 무슨 보상을 받거나 호의를 기대하는 근무 태도, 넷째, 신분과 직책에 맞는 전심되고 양심적인 근무 태도 등이다. 앞의 세 가지는 피동적이며 형식적이며 결국 열매자는 비논리적인 업무 행태와 심적 갈등으로 인해 하루 일과가 지루하고 일의에 빠져 좌절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지막 네번째 유형 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을 생동감있게 만들어 주고 상호간에 따뜻한 대화를 형성시켜 줄 수 있게 한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의 천우들이다.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 준 사람도 천우들이요,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 나의 일들을 지켜 줄 사람도 천우들이요,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어깨에 메고 뛰 어 갈 사람도 천우들이다. 부대 생활을 하면서 고학을 함께 할 우리들이기에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마음 자세로 진정한 사랑을 꽃피우자. **113**

복무규정을 생활화 하자

공군 제7293부대
중령 김종일

우리는 군 생활에서 복무규정을 소홀히 하여 자신의 위치와 환경을 망각하고 군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회에는 법이 있고 종교마다 지켜야 할 계율이 있듯이 군대에도 군인복무규정이 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 매사에 늘을 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아울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군인복무규정을 통해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군인의 상설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정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명확히 인식, 그 역할을

상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군인복무규정을 살펴보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무정한 충실심,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니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사녀야 한다.

자신의 본분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계급의 의미와 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교는 군대의 기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며, 건전한 인격 도야와 심신 수련에 힘쓰고 승진수범함으로써 무하도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통솔력과 권위를 갖춰야 한다. 하사관은 부대의 간부로써 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장교와 병간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과약 및 내무생활 지도, 장비 및 보급물 관리에 힘써야 한다. 병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법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부원은 증군 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어찌할까 자신의 재능과 의무를 확실히 알고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요소이고, 규정에 의거 언어태도, 동작, 자세 등을 바로 하는 것이 참된 군인이며, 우리 군은 이를 요소를 갖춘 강한 군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러한 군인을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힘에 의지하여 살려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서로가 심리적 갈등을 겪을 때도 있으며 अन이하게 살려는 마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로 보아야 하는데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

아아 한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자아발전과 자기개발에 어느정도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발전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나 자신의 그릇을 만들고 재회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얼마나 타인과 조화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군조직에서는 자기의 희생없이 하는 작은 목표 하나라도 달성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알아 보았으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과 조직에 충실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제 군 생활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참된 군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충성심을 가지는 것이다.

군인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제의한다면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이 굽변한다 해도 군인의 기본자세의 충성심은 군조직을 유지하고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충성심은 자기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있으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다. 충(忠)이라는 글자가 가운데 충(中)과 마음 심(心)을 합한 것으로 충은 확고한 인생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지조, 양심에 바탕을 둔 지식을 필수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둘째,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보람된 일을 살았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주로 우리의 대화는 형식적인 것이 많으며 계급에 의한 상의하달식이 많고 그나마도 부족한 형편이다. 내면적이고 진심된 대화없이 생활 자체로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지 못하여 어떠한 일도 완벽하게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간 진정 한 사랑, 믿음, 원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전요원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감담의식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이성을 갖고 사고를 하게 된다. 사고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 일단 습관이 되면 우리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삶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성격이 그 사람이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군대생활에서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참된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한 발전으로 지루하게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렵게 전쟁을 불리치고 기대하여 자신의 시간을 허무한 재미없이 헛되게 보낸다면 비나드 소주의 말처럼 "우물쭈물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 말할 수 없는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뚜렷한 군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후회없는 군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바탕 또한 마련될 것이다.

넷째,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겠다.

어느 누구라도 혼자서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없다. 웅장한 푸른 숲도 조그마한 벌레들에 의해 황폐해진다. 우리들도 단결이 되지 않는다면 즉, 나 하나뿐이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마음은 조그만 해충이 되어 크나 큰 우리를 전멸을 쓰러지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뢰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들간에 내세하고 있는 불신증조와 대립의식을 일제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하겠다.

자신을 아낌없이 가꾸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어진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된 군인의 길을 가며 힘차게 뻗을 수 있는 영원한 우리 부대를 가꾸는 데 공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정근



공군 제3975부대/상사 심상우

하나 모퉁이에 발레가 되지 않도록 차를 정차시켜 두어야 한다.

일족의 계절이니 만큼 운전자의 정신도 많이 명찰을 받는 것 같다. 눈무시게 푸른 거리를 주행할 때만 운전자도 성현보다는 다른 곳을 볼 때가 많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운전자는 할 수 없지 못하지만 주행중인 차량은 순간에 별 심 비타의 달린다. 지점을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운전자는 운전 외에 다른 데 생각을 끌어서는 안될 것이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 자신과 작은 실수로 인해 무고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운전자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특히 수면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 밤을 줄문하게 자지 못하면 어떤 사물을 오랫동안 정박하게 볼 수 없기때문에 운전자는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피로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도 운전을 강해야 할

에 직접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할복하는 비덕을 거치는 것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이것은 결국 자량 자코를 방지하는 데 크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차량이나 비행기에 주입되는 연료에도 많은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 각종 오일들은 오랫동안 취급하다보면 그 위험성을 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오일을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다음에 해야 한다. 엔진을 꺼놓은 상태에서 오일을 주입하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름탱크 주변 50피트 이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할 수가 없는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기름탱크에서의 사고는 그 주변 몇 십미터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비행기의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하

- 우리는 지치거나 실재하지 않은 일이다. 어찌한 생각을 지르더라도 우리는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 <W.작어빌/전 서크에서의 '원설'>
- 함부가 새장에 다시 쓰일때, 독을 다해 충절을 바칠 것이요, 잔말 쓰이지 않으면 물러가 발가는 농부가 된 대도 또한 속치리라. <이순신>
- 굳건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나 보군. 프랑스이며, 내외의 성공에 대해서, 망각하였다. 나의 영예를 잃고— <데이(프랑스의 장군)/종살을 당하기 직전 눈 가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한 말>



을물 가운데 배우고 깨우침, 존엄의, 투오즉시 등
은 각기 외계의 존재가 묻은 것들로서 귀중한 가
치를 지니고 있다.

도산서원을 창건하고 이곳에서 많은 후학의 관
표를 배출한 외계 이항의 업적은 실로 빼어나기
여러할 정도이다. 학문적으로 외계는 주자학을 깊
이 연구하여 주자 사신도 미처 알려지지 못한 부
분까지 체계화시켜 새로운 철학의 세계를 구축했
다. 이것이 이른바 외계학으로 도산서원은 외계학
한성의 터전이 된 셈인 것이다. 외계학은 한민족
5천년 역사상 세계적 학문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재거로서 이미 외계는 한국의 이항이 아니라 세계
의 이항으로 부상해 왔다.

도산서원 관리사들에 따르면 얼마전까지도 일본
의 유수한 학자들이 도산서원을 찾아와 며칠씩 묵
으면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현
재 인종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에서는 외계 연구
소가 설립되어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에서는 1972년에 '이외계 연구회'라는 학술단체



▲ 외계선생의 제자들이 공부하던 기숙사.
선생께서 공부를 감독하는 곳에서 '工'자형으로 지었다.



▲ 조선시대 예관헌에 설치하였던 향교. (재향은 훈주필과
8월 상정일에 받들고 있다)



渾天儀
Hanch'on (Celestial Sphere)



梅花凳
Maebwanong (chair)



星學十圖
Sunguk Jipju

가, 자유중국에서는 1979년에 퇴계학회가 탄생되어 연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퇴계에 대한 연구는 이제서 그치지 않고 미국·유럽 등지의 학자들도 갈수록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편 퇴계는 학문적 업적에 있지 그 생애와 사상 전반에서 성인의 정치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계는 열살군 7년 경복 안동군 도산별 토계봉에서 좌찬성 이식의 6년 1녀 중 막대로 태어나 7개월만에 무원을 먹이고 모친의 엄한 교육 속에 23세에 실관원에 유학하는 등 일생동안을 대부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정신을 쏟았다. 이것 살부터 글을 읽기 시작한 퇴계는 진리를 아른 속에서 찾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구했다.

한번은 병중 때 형씨성까지 지냈던 대학자 권철이 이철 집을 찾아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었다. 이철이 예의를 갖춰 권철을 영접했고 두 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학문과 사국을 논하였다. 때가 되어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보리밥에 반찬은 나물 중심의 소반이었다. 간소한 것이 임이라 권철은 도저히 그 밥을 먹을 수 없어 몇 술갈 드고는 살을 물었다. 권소 폐의와 인정을 설명같이 아는 이철은 모른 척하고 살을 다 비웠다. 떠나는 이철에 권철은 "이렇게 마니게 되니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것을 길이 기념하고자 하니 선생은 좋은 밥을 원하지만 주셨으면 합니다."고 했다. 이철은 이에 "대갈래의 수춘한 곳까지 찾아오셨는데 훌륭한 대접을 못해 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갈 전체 흥한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하면 상한입니다. 저들은 언제나 붓보리밥에 된장찌개가 고작인데도 불구하고 대갈에서는 그 음식이 집에 맞지 않아 제대로 참수되지 못함을 보니 이 나라의 강태가 은근히 엄厲스럽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여만동락에 있사온데 판과 민의 생활이 미치립 저리가 있으니 어느 백성이 관의 지시를 바로 따르겠습니까?" 하였다 한다.

퇴계의 교육목적은 실천윤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는 교육의 정제 비부가 그 어떤 고명한 이



▲ 황계대실. (공예 중심에 놓였던 방에서 태어났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

문이나 유물권 학습도구보다 교사의 참된 사랑과 열성에 달려 있다는 평범함 전면에 입각하여 이를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이 입지 위주의 교육 풍토가 만연하여 그 단점과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의리와 성실, 겸허, 공손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황의 교육이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이론에 밑고 학습방법론에 뛰어난 교육자만이 융성한 사상으로 대접받는 요즘, 스스로 구도자의 생활로 못

의리와 성실, 겸허
공손 등을 포괄
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황의 교육
이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게자와 만인의 모범이 된 이황은 참정 교육자의 사표라 아니할 수 없다.

희게 이황은 70세로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12월 8일 그의 생애가 와동함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울러 와 그를 보기를 원했다. 이를 안 그는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아담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일어나 여러 제자들에게 정당한 이별의 말을 나눴다. "내 평생에 그릇된 식견을 가지고 제 군과 더불어 오대도록 학문을 강론했으나 이 또한



▲ 서편에서는 강화를 열거 했다. (이 김희록은 1784~85년 정조대왕의 서문, 수간, 발문 등 서책하서에 대한 보답으로 도산·유림이 열은 김희 기록이다)



▲ 도산면 은북동에 있는 퇴계생가 전경

기획 1

韓國戰爭과 空軍

때이다. 여름이 오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
바쳤던 전해들의 넋이 하늘 곳곳에서 헤아려져 울려 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함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전쟁 당
시 공군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현대전에서 공군이 차지하
는 막대한 비중과 역할을 재탄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다.

〈편집실〉

한국전쟁에서의 항공우세



공군본부 정훈감실/총위 정두용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북위 38선을 넘어 침공했을 때 이 침공을 저지할 만한 충분한 군사력은 한국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6.25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시대에서도 대대전이 없으며,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적 관계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

특히 북한이 전쟁 초기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승기를 놓치게 된 주된 원인은 한반도에서의 패권권 상실과 목적으로 인한 후방 보급로의 차단 및 주요시설 파괴의 피해 때문이었다.

여기에서는 한국 및 연합군 특히 미 공군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6.25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통하여 공군력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쟁 초기에 한국군은 혼란스럽게 퇴각하였으며, 퇴각하는 한국군 및 미군과 무상 가점 사이에는 아무런 이렇다 할 전면 장애물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병참선이 길어지면서 이미 하늘을 장악하고 있던 제5공군 전투기와 폭격기는 적병력과 물자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보급선이 잘려진 중대형 이동 또는 퇴각 시에, 항공력은 적 지상군에게 가장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었다. 북한 지상군이 평탄한 도로, 예포가 되는 다리, 여동 및 짧은 골짜기에서 잠정 노숙장에 따라, 전투기들은 반복적인 폭격 및 기술소사를 통해 이들 중 상당부분을 격감시킬 수 있었다.

6.25 중 최초의 공중전은 주한 미국인 침수작전을 수행 중이던 6월 26일에 발생하였다. 이날 북의 YAK기 5대가 미군 수송기를 목표로 김포 비행장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5대의 F-82 Twin Mustang기가 공격을 가하여 이 중 3대를 격추시켰으며, 이 전투에서 38선전후 전투대대의 허드슨 중위가 6.25 최초로 적기를 격추한 것으로 공식 기록되었다. 또한 최초의 전함폭격기를 이용한 전술작전은 6월 28일 19폭격대대 B-29기 4대가 서울-가평, 서울-의정부간의 철도와 도로를 따라 지상목표물을 공격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6.25기간동안 제5 공군의 임무는 세공권을 획득,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차 차단, 그리고 제8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중우세의 획득이 2차대전에서 최대의 관성사항이었는데 한국전쟁에서도 최우선적인 임무가 되었다.

국동공군의 지시에 따라, 제5 공군은 일찍이 4 단계의 항공후방차단계획을 작성하였다. 제1 단계는 적의 전격수도를 습격하여 연합군의 퇴각을 지연하는 것으로서 서울목발에 있는 60개소의 철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들 공격은 장적 중인 적지상군이 사통한 모든 주요 도로에 대한 무장정찰과 병합하여 행해졌다. 그 후 제2 단계는 제8군이 북한으로 전격해 들어갈 북요지역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물은 평양과 환산을 잇는 선 이북에 있는 33개의 다리였다. 제8군이 신속하게 진격하였으므로 항공부대 지휘관들은 이 단계 계획을 상당히 수정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지 않고 끝나자, 항공후방차단작전은 좀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수행되게 되었다. 이 작전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항공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부산에 대한 대규모 근접항공지원, 모든 주요 병참선에 대한 항공후방차단, 그리

고 인천 주변지역의 적지상군으로부터의 격리 등은 모두 그 이전에 제5 공군이 확보해 놓은 완벽한 공중우세 하에서 가능하였다. 제3 단계 계획은 B-29가 동부 및 서부해안에 있는 34개의 다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1950년 12월로 예정된 제4 단계 계획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중공군은 1950년 11월 1일 약 20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북한 방으로 나아왔다. 맥아더는 즉각 국동공군의 임무 우선순위를 변경하였다. 그는 현재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하였다. 사실상 중공 지상군이 UN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에서의 공중우세는 더 중요시 되었는지도 모른다. 맥아더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량들의 파괴 뿐만 아니라, 임주지역에 있는 군사목표물과 비행장에 대한 공격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만일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한국전역을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허가는 나지 않았다.

개전 후 한 달 전후로 해서 UN군의 해·공군이 시행한 가장 중요한 작전은 전야 폭격이었다. 해군



▲ 1951년 2월, B-29가 공격을 받은 元山港 근처. 轟撃後, 轟撃点에서 2차 爆発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 同 目標物이 彈藥倉庫였음을 알하여 중.

의 모든 군사 시설, 전남포의 잠수함 기지, 그 밖에도 장전장 발전소와 무전장 발전소 등 주요 군사 시설과 혼수시설 및 생산시설들 모두 파괴해 버렸다. 따라서 북한은 그들의 지상군을 남하지런 냐기로 키운 시설을 모두 다 파괴당하였다.

조선 국경에 인접한 나진폭역 후 비 함동함모본 부는 나진이 소련국경과 가깝다는 이유로 나진을 폭격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버렸다. 이를 두고 백아 더 지지자들은 군사적 필요에 정리가 간접한 어떤 높은 해라고 지적하였다.

중공에 있는 적의 실력은 아군측의 공중우세 유 적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물론 아군은 중공 기지 내의 지상에 있는 MIG기를 파괴시킬 수 없을 뿐만아니다. 국방상의 지시 때문에 중공에서 그 들을 격파하기 위해 중공영공까지 그들을 추격할 수도 없었다. 10월 14일 중공 공군의 MIG-15가 출현하여 김포비행장을 공격, 이를 계기로 압록강 하류 국경지대 상공(MIG 회박)에서 공중전이 개 되었다. 압록강 배후에서 발전하여 공격을 끌내고

공격도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1950년 12월 1일 UN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함창은 반주지역 공격에 대한 요구를 기각하고 백 아더에게 일련의 발위전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 다.

11월 중공 F-86의 2개 제이비 항공단이 한국 전선에 주기로 도착되어 12월 6일 저녁 출격할 시 때 12월 중 8대의 MIG기를 격추했으며 7대를 격 파하였다.

12월 8일 중공군 제3 야전군 6개 사단의 급진 적으로 미10군단 해병1사단 5, 7연대와 7보병사 단의 31연대가 차례로 포위되어 피로가 하던피자 이들에 대한 중증보급을 단행하였으며, 제1 해병 사단은 12월 18일 춘무간역지대 고드라에서 중남 으로 철수하였고 연포비행장으로 부터 38전 이남 지역까지 5분 간격으로 24시간 연속 393회의 공 수를 실시하여 2,088톤의 화물, 3,891명의 상병, 228명의 부상병을 추송했으며 12월 24일에는 배 상수송으로 철수가 완료되었다. 중남철수기간 중



제5 공군은 건밀한 근접지원을 실시하고 공중 수송부대는 전선지역 지원을 펼쳤다. 이 시기의 UN 공군의 강력한 근접항공작전과 후방차단 작전은 중공군의 후방보급조직을 괴멸시키고 막대한 인차, 물적 손실을 입혀 인세전술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중국공군은 나날이 증가되어 50년 12월 650대의 전투기에서 51년 6월에는 1,050대로 증가되었다. 그중 MIG-15기는 약 445대 정도였다. 공산군은 분명히 북한 북서부 지역의 항공 후세 획득을 도리고 있었다.

제5 공군이 51년 1월 초 일본의 구주지역으로 물러남으로써 중국 공군은 경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지역(MIG 회랑)에 항공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51년 3월 1일 이 공군의 B-29 폭격기 18대는 F-80 전투기 22대의 호위 하에 출격하였으나 깊은 구름 때문에 공중집합에 실패, 중국 공군의 MIG-15 전투기 9대의 공격으로 B-29 10대가 피해를 입었다. 대구에 불시착한 B-29의 처절한 모습을 모은 제5 공군의 참모들은 항공 후세의

항공력 강화

항공력으로 저 후방지역, 적의 교전부대, 적의 병참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적의 어필의 손실을 줄여도록 정독시켜 변화된 UN의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적 및 군사적 행동을 통한 북한과 남한의 통일보다는 UN은 38선을 따라 현상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였다.

한국전쟁이 치열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UN군은 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한군과 중공군을 전쟁종결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항공력에 눈길을 돌렸다. UN군의 당연한 과제는 휴전회담의 진전과 병행해서, 공산군에게 최대의 손해를 입힘으로 전쟁이 끝날 때에 UN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51년 6월말 현재 300대 이상의 MIG-15는 보르연트 랑크를 사용하여 경양 날방까지 진출했다. 이에 비해 국공 공군은 F-86 전투기 89대를 보유함으로써 4대 1로 열세에 처해 있었으나 추가 비행단의 파견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B-29 폭격기 6대를 잃고, 10월 말에는 1주동안에 5대를 잃었으며 8

대가 손상을 입었다. 10월 중 MIG의 활동 대수는 2,573대에 이르렀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MIG가 공격으로 B-29 폭격기의 손실이 속출한 결과, 극동 공군은 10월 24일 이후 2일간 B-29의 주간 출격을 중지하였다. 중공 공군의 항공우세 획득을 위한 분주한 제한당한 전투공역(MIG 화력) 같은 정치적 제약 때문에 극동 공군의 항공우세 유지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 여건 속에서도 미 제5 공군은 차단공격을 꾸준히 실시하여 철도에 대한 차단공격의 결과 북한의 철도는 전쟁 전의 95퍼센트가 파괴되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 초기, 극동 공군은 공산군에게 실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B-29폭격기에 의한 대폭격을 제한하였으나, 절박적인 이유로 취싱변에서 거꾸함으로써 공군의 활동은 전박히 운용에만 제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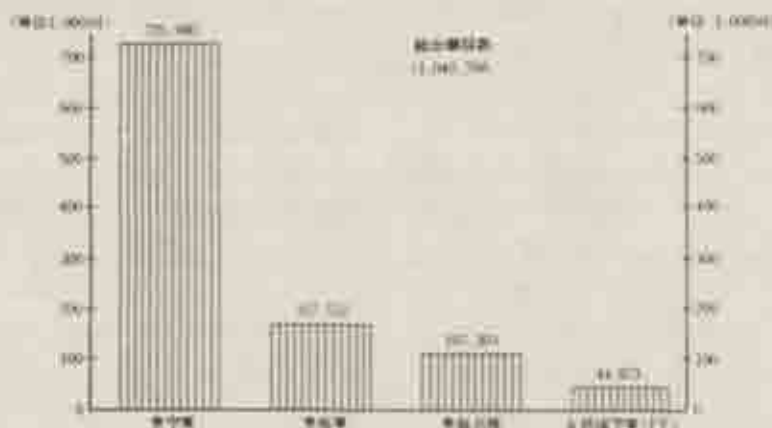
6월 23일~25일엔 수동댐에 대해서 제5 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 84대의 중중초계하에 미해군함 3척으로부터 70대의 함재기가 출격하여 적의 대공포에 의해 2대의 손실이 있었을 뿐, 폭격은 완전히 성공하였다. 또한 6월 26일~27일에는 장진의 발전시설이 파괴되어 북한의 수력발전 시설

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극동 공군은 1953년 4월, 북한군 경비대가 황해도와 평안도에 침입하여 버 생산을 지원하고 군용미 수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28만 3천 4백 62톤의 대부분은 공산군의 식량으로, 약 20개의 큰 저수지의 관개용수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었다. 공산군측이 휴전 회담을 지연시킬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댐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공산군측이 회담을 지연하자 5월 13일 극동 공군은 제5비행단의 F-84 선더볼트 전투기 59대를 동원하여 덕산에 7백미터의 흙과 돌로 쌓은 댐을 1천 파운드 폭탄을 사용, 파괴하였다. 곧이어 일어난 대홍수는 10킬로미터의 세발과 철도 선상의 5개 다리를 미 내려가게 하고, 철로를 약 3킬로미터나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 밖에도 하천 유역의 7백 개나 되는 건물과 숲산 비행장을 침수시켰다.

극동 공군은 더욱 공격을 계속하여 전투폭격기는 현안을, 모든 폭격기는 그 외의 댐을 공격하였다. 5월 25일 UN측 대표는 중립국 포로교환 위원회의 조건에 대해서 최종안을 제시하고, 5월 27일 미국의 클라크 상군은 이것이 UN측의 최종조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6월 8일 중공군의 대표는

各軍別 出撃回数 (期間: 1950. 6. 25 ~ 1953. 7. 27)



* F-86는 韓国空軍と北朝鮮空軍に別れて



이 조건에 지양하였다.

사건정황의 결과 휴전 전에 비행장을 복구하려고 한 북한군의 일부가 포병행기 때문에 극동 공군은 북측의 주요 비행장 함주로 길이를 MIG-15 전투기의 작전에 필요한 3천 피트 이하로 낮추고자 집중적으로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53년 6월 10일부터 휴전 직전인 7월 20일 사이에 극동 공군은 각종 전투기와 B-29 폭격기에 의한 목적으로 북한에 모든 비행장을 사용 불가능하게 했다.

6.25기간에 UN공군의 핵심인 미 극동 공군은 19개 비행단(62개 비행대대)을 운용하고, 월령군 1천 2백 48대의 보유 항공기 중 8백 39대를 실제로 가동했다.

6.25기간에 한반도에서의 항공작전에서 얻은 교훈은 첫째, 관성과 지휘체계에 있어 UN 주도의 작전 지휘였으므로 중요 사항이다. 유엔군의 협력에 의해 작전이 이루어져 중공군의 불시 개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군정합동지원

6.25 기간 동안 UN공군의 활약에 힘입어 지나치게 길었던 전쟁과 휴전회담은 끝이 났다.

과 중공군의 보급로에 파괴 및 후속부대 지원의 차단으로 1951년 7월 휴전회담에서 UN군의 휴전 조건에 동의하게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족한 수송기를 민간 공수회사에서 유상 차출하여 보충하였으며, 이때 미 본토와 한국을 연결하는 항공 수송로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공군 지휘관과 육·해군의 지휘관들의 전쟁운영 전례의 차이가 있어 공군의 전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정도로 실한 모습을 안겨다 주었다.

6.25 기간 동안 UN공군의 활약에 힘입어 지나치게 길었던 전쟁과 휴전회담은 끝이 났다.

전대전에서 항공력의 우세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이미 강토전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우리 공군도 6.25를 교훈받아 질과 양을 겸비한 대북 전력 주위를 통하여 주요한 전쟁 억제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한국전쟁에서의 항공작전, 공군본부 정보참모부
2. 전쟁에서의 항공력, 공군대학 항공보리 연구실 (1989)
3. 항공전사, 공군본부 작전 참모부 (1989)
4.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고명, 한국 국제정치학회 (1990)
5. 한국전쟁 (上)(下),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장렬하게 산화한 고 임택순 대위

6.25 참전중 애기와 함께



공군본부 정훈감실/대령 서홍교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을 양성하는 요람인 성무대 공군사관학교를 지켜보며 선배 전투조종사 고 임택순 대위 동상이 학교 박물관 입구에 우뚝 서 있다.

지난 3월 10일 공사 제41기 졸업 및 입관식에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이 고인의 동상 앞에 깊이 묵념하는 모습에서 고인이 6.25전담시 공사 제1기 전투조종사로서 애기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한 그 당시 상황과 43년의 세월속에 우리 공군이 성장 발전하여 온 것은 오직 선배 전투조종사의 투혼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본인이 새일 줄 그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빨간 마후라의 명예를 빛낸 열을 닦기 위하여 고인을 소재로 한편의 군 영화제작을 위해 열정을 쏟았던 모습이 더욱 새로워진다.

● “불멸의 보라매” 군 영화제작

사관학교 청춘참모로 전속할 때는 공사가 평주 신기지로 이동할 무렵인 1985년 9월이었다. 그 당시 나는 약 3년간 공군 제3591부대 생활을 통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하면 반드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기록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참보회직시 교장께서 학교가 이동한 후 성무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이 곳에 많은 지부 공연단을 유치하여 예술, 문화공연을 사관생도에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언급하였다. 이에 “저는 마을밖고 하면 잔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자 나의 담대한 반응에 참모들이 놀리면서 대단한 용기라고 격려하였다. 그 후 교장께서는 참모들과 소환을 마치고 임택순 동상 앞을 지나오면서 고 임택순 대위의 동상이 이 자리에서 잘거되고 신 캠퍼스에 세워질 동상이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 이 기회에 고인에 대한 영화를 한편 제작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회회시 나의 신념을 시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후에 사관생도에게는 공군에 대한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공군에 동상이라면 고 이근치 장군을 비롯해서



▲ 그 임백순대위와 동상

그의 당시 많은 형편이었고, 특히 사관학교 교장에는 유일하게 생도의 취급으로 그 임백순 대위의 동상이 제8기생 일등에 의해 지난 1960년 3월에 세워졌을 뿐이었다.

영화제작은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지한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야 조치였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하나의 모험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고안을 짜내었다. 그것은 먼저 비예산으로 제작이 가능한 국군 홍보관리소를 이용하는 일인데, 며칠 후 이 곳을 찾아가 영화제작 관계자를 만나니 모두가 비행단 시절 군 영화제작 지원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했던 감독과 제작 팀들이었다.

먼저 문제 제기를 위해 영화 담당자에게 각군의 상징적 동상 인물로서 육군에는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강재준 소령이 있다고 했고, 해군에는 미연로 소장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래서 공군에는 누가 있는지를 이쁘다고 물어보니 아무도 대답

을 못하길래 나는 공군에는 사탕스러운 전투조종사 고 임백순 대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영화 기록이 없다는 것은 군 영화제작 측에서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내가 고 임백순 대위와 순국에 얽힌 사연을 잘 알고 있고, 그에 관한 자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모두 만족해 하면서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이끌어지 갔다.

영화는 세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기로 하고 신기저 성루대에 동상 제막과 함께 작업은 시작되었으며, 사관학교 교장에 영화감독을 직접 대면하는 기회도 마련함으로써 영화제작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갔다.

그리고 고 임백순 대위의 기록영화를 보다 실감 있는 다큐멘터리로 구성하기 위해서 고민이 태어난 고할도 한 번 찾아가 유가족을 만나려 했으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어 도저히 찾지 못하고 포기할 무렵 온종일 당시 바둔 이장을 지냈던 유재두씨를 만남으로써 고민의 외삼촌 민민현씨와 이종사촌 동생 이점순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분들은 이곳에 고 임백순 대위의 외가가 있어 그가 어릴 때 이곳을 몇 번 다녀가고 방학 때 오기도 했다고 하면서 머글로 이런간 부모의 소식을 알려 주었다. 나는 거기서 고 임 대위의 부친 임학재씨와 어머니 민혜연, 처사가 5년동안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노라고 말했더니 그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잊혀져 가는 고인에 대해 목마진 감정을 토해내었다. 나는 영화보다도 더한 감동을 느끼면서 한 전투조종사의 애국심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려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육군 항공학교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

영화는 오랜 기간 작업 끝에 16mm 작품으로 완성되었고 드디어 "불멸의 보라매"라는 제목으로 1986년 6월 TV방송 『세대의 기수』편에 방영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모친 민혜연씨가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자식의 동상을 보러오겠다고 연락해와

유가족 15명이 그해 7월 18일에 학교를 방문, 고인의 동상과 박물관 내 고인의 유물을 보면서 눈물을 적셨다. 정말 뜻있고 보람된 일을 행구나 하는 뿌듯함과 함께 그분들에 빌었던 영화를 VTR로 한 권 복사해 드린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매년 찾아오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전쟁으로 먼지 간 호국 영령들을 찾아보면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산화한 전투조종사를 추모하고 자식을 하늘에 바친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일도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공사 생도의 영원한 표상

고 일택은 태워진 1930년 12월 충남 연기군 대사면에서 출생하였고, 1949년 경가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그해 6월 10일 공사 제1기생으로 입교하였다.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6.25 전쟁중인 1953년 1월 23일 강릉기지에서 11회의 출격을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는 6.25 전란이 막바지로 향해 가던 시기에 강원도 고성 상동에서 지상군 작전을 협조하던 중 적 지상군의 포화에 피격되어 F-15 무스탕기와 함께

북한에 돌입하며 24세의 꽃다운 나이로 장렬하게 안락하였다.

그는 공군 사관학교 제3기 출신의 전투조종사로서 최초의 전사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울 대방동 성무대에 전투조종사의 투혼과 조국 영공수호의 표상으로 그의 동상이 1960년 3월 19일 공사 제8기 사관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후, 25년간 서울 대방동 사관학교를 지켜오다 1985년 12월 상주 이관을 앞두고 신거지 성무대에 보다 뜻있게 농상을 재건립하기 위해 공사 제1기에서 제33기 사관까지 공들기념사업으로 추진하여 1986년 3월 8일 제막하였다. 그의 동상 좌대 장면에는 1954년 3월 1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하사받은 “武勇”이라는 편필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작업은 종지 조사회(김민정)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오늘도 하늘을 지키고 있는 전투조종사들은 오직 젊은 나이에 애기와 함께 사라진 고 임백을 대위와 그 강한 정신과 영혼 추모하면서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계승하여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헌신하는 것만이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우리 군에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민정**



<제1기 공사 졸업식에 참석했던 김영삼 대통령 사외분이 고 일택은 대위 동상 앞에 고인의 생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전쟁에서 나타난 심리전의 역할

심리전은 무기가 동원되는 전투에 비해 그 효과가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리전을 통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만 기획에서는 걸프전과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심리전의 양상을 살펴 보면서 무형의 전력, 즉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투위지를 맡았던 요인 중 하나이며, 또 다른 두가지 요인이 더 있다. 그 하나는 이라크군이 사담 후세인을 밀지 않았고 후세인에 대항하여 싸운 다국적군을 받은 것이다. 이라크 선전기관이 다국적군을 괴물로 선전하고, 사담을 위해 싸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해 협안이 되었어도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의 설명과 약속을 믿었다. 다른 하나는 다국적군이 이라크 병사들에게 버려진 신뢰를 잃어 주었는 것이다. 그 예로 공격에 앞서 이라크 전투대에 경고함으로써 많은 이라크 병사들이 복수를 선전 임무를 볼 수 있다. 그것을 계기로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이 자기들을 향해 주리라 믿었다. 공격전 사전 경고는 연합군의 모든 통신에 신뢰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병사들의 생명도 구한 것이다.

사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투에서 죽이는 것과 같이 밀접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차원이다. 도망하거나 함복한 수십만명의 이라크 병사와 장교들은 사담 후세인의 일원 동지유지 수단을 알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담에 대한 충실적인 인기와 충성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이라크 군대에서 발생한 이 거대한 탈영, 함복 등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진 것이었다. 즉 그것은 심리전부대라고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되고 행해진 것이다.

심리전보다 더 오래되고 심비하게 살상되고 약화를 담당하기 쉬운 것은 없다. 오모자에게 있어서 심리전은 케커나 혼란 중에 행해지는 특색전전을 연상하게 한다. 새로운 미국의 심리전 계획이나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색전전은 어떤 전쟁에서 심리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것이 심리전의 전체를 특정짓는 것은 아니다. 특색전전은 전설상에 기초를 두며, 적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되돌아에서 반복된다. 이것은 군의 능력이나 작전상 위도에 관하여 적을 오인시키는 긍정적인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색전전은 기만작전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이것은 지휘관의 작전 분야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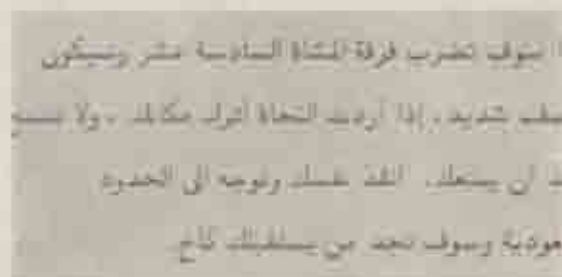
심리전은 기만이 아니며, 심리전 부대는 작전을 지원하는 일부를 맡는다. 어쩌면 일반적인 심리전은 통상적인 작전이나 신뢰보다 덜 극적이고 덜 신비스러운 것이다. (전두나 전쟁의 결과에서 심리전이 매우 극적일 수는 있어도)뿐만 아니라, 그 수단들도 특별히 신비롭지 않다.

심리전을 지원하는 부대로 제1회 기구는 특색을 띠거나 포트 브라그에 있는 미 육군의 공수부대에서 3개 대대로 구성된 제4심리작전 그룹인 "4th PDG"이다. 이 기구는 특별한 나라나 지역을 전공한 학자, 숙련된 통신 기술자와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대대중 3개 대대(1, 6, 8대대)는 지역을 근거지로 편성되어 있다. 각 대대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언어 그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다. 각 대대는 적어도 하나의 지역과 관련된 심리전 계획과 프로그램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관에게 제공한다.

전시에 그들은 미국이나 연합국이 계획한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하여 적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지향한다. 평상시는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외국 군대와 협력한다.



This is your last and last warning! Tomorrow, the 1st Infantry Division will be bombed! Fly the number now!



The 7th Infantry Division will be bombed tomorrow. The bombing will be heavy. If you want to save yourself, leave your location and do not allow anyone to stop you. Stay yourself and head towards the Saudi border, where you will be welcomed as a brother.

두 개의 다른 대대는 실제로 기술적인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단에서 심문까지 다양한 인쇄물을 비행기나 보트에 의해 퍼뜨릴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소유한 심리작전 전과 대대이다. 그들은 세계로 퍼지는 라디오나 TV 방송도 퍼뜨릴 수 있다. 또 다른 대대는 직할 전투의 전투를 지원하는 전투 지원대대이다. 이 대대는 지상에서 고도의 저동성과 공중에서의 시정확 전파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대와 함께 이동할 수 있고 전투 지원 기지를 전쟁기간 동안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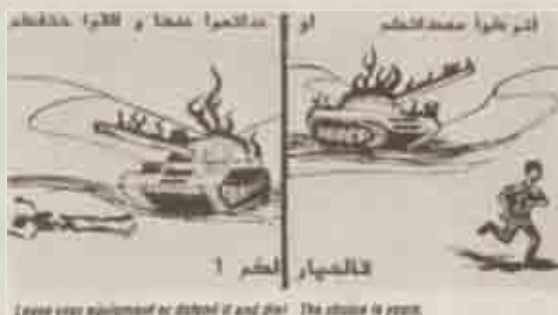
일반 부대와 달리 제4 심리전 부대는 무기 방어용 소파기 외에는 어떤 파괴용 무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부대원들의 손에는 공수부대원들 못지않게 반달하다. 다른 부대의 달리 그들의 임무는 작과 교전하고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임무는 중국의 위대한 전략가인 손자가 밝힌 “파루지 않고 적을 정복하는 것이 전쟁의 극치이다.” 라는 명언을 실행하는 것이며,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1990년 8월 야밤처럼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이 일어난 지 2주일후에 제4 POG의 요원들은 제82 공정사단에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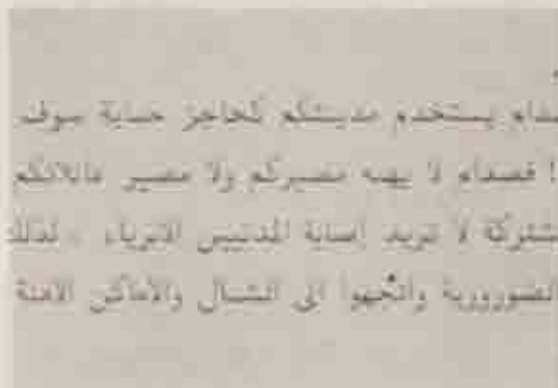
제6 심리전 부대는 중동 지역에 활동한 바로 이런 임무를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대였다. 연합 공중작전이 실시되기전 5개월 동안 제4 POG는 다국적 심리전 팀을 만들기 위해 다국적군과 협력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달 후에 일의 끝에 대해 핵심적인 심도처럼 바지 끝에 묻어 두는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을 끌고 군사포획자에게 포획된 일반 시민을 구하는 것이었다.

특별 제작된 배를 통하여 계획된 공격 24시간 전에 연합 심리전 팀은 군인과 시민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포위 지역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게 하였다. 위협이 증가되어 길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이것을 계속 수행하였다. 그것은 전쟁을 피하는 가장 저비용의 방법이었다. 그 결과 죽을 지도 못할 수 많은 생명을 살렸다.

심리전은 모든 전쟁국면에서 사용되었다. 그것을



Leave your equipment or defend it and die! The choice is yours.



Dahlg and cities were also warned. Saddam's Army stands along your city as a protective shield to live peace. Saddam doesn't care about you or your family. But the Joint Forces do not want to hurt innocent citizens. So take your belongings and leave them in a safe place.



The tank!

중대 공격 전에 마을과 시대에 있는 이라크 시민들에게 위난의 수난을 경고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 군인들에게 이라크군의 실각된 상황을 사실대로 전하였다. 이라크군 포로들은 후에 이 계획자들이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환상적으로 침략하기를 하

는 정부선전과 양자백일되었다고 후에 주장했다.

전투기와 별기에 의해 전라된 수백 만의 베라는 이라크 군인들에게 그들의 군장을 벗은 정직한 사상을 담았고 또한 보르르시의 좋은 대우를 보장했다. 이 베라들은 쿠웨이트를 탈취한 아랍어권 군대들과 요파차르로 충신하기 위한 연합 심리전 조직의 산물이다.

“심리전의 목소리”란 라디오 방송은 고립된 이라크 군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베라에 내보낸 메시지를 보강했다. 매우 흥미있는 이 라디오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주 군군의 193 특수 작전 비행대대가 제공했다. 정말 독특한 이 주 공군부대는 날아 다니는 라디오와 TV 방송국인 EC-130 항공기를 조종한다. 제4 PCX의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비행한 이 수송기들은 항복을 호소하는 방송을 이라크 군인들에게 했다. 그들의 “전파 세시판”은 상처를 입히고 상상하는 포탄보다도 더 이라크군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었다. 두개의 EC-130은 사막의 폭풍작전 동안 총 578시간 비행했고, 계속된 60여일간의 사막의 폭풍 작전동안 매일 14시간의 비행과 550시간의 초과 비행으로 그들의 방송을 보강하였다.

직장 기동작전 부대가 “사막의 폭풍작전” 중 지상 단계에서 이라크 열도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어떤 전술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전 기동 작전기 팀과 동반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행하는 그 허튼이 기지를 잃기 전에 저항을 그만두고 항복할 언어의 정확성을 제공하며 제4 PCX와 화성기담과 동반했다. 이것은 죽음의 용가리로 부터 벗어난 길을 찾고 있는 침망적인 이라크 군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심리전은 전쟁을 빨리 종결시켰다. 심리전은 이라크 함락군을 빠르게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활동작전을 지원했다. 이것은 사막 후세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쓸모없는 위치에 있는 수 천의 군인들을 구속했다. 공중과 지상의 군사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제4 PCX는 심리작전을 쿠웨이트 제인에 있는 수 천의 이라크 군대를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한번도



The reverse of the "ambitious liar" leaflet contained accurate surrender instructions which strengthened the Iraqi soldiers' belief that the ambitious threat was real.



Warning! This is only the beginning! This could have been a real bomb. We have no desire to harm innocent people. But Saddam is leading you to certain death and destruction. We want you to know the truth! Saddam is the cause. Yes, the Multinational Forces have the ability to strike anywhere... and at anytime! Warning!



One of the two major strategic decisions which caused Saddam Hussein to misdirect his forces was a campaign to make him think that a U.S. Marine amphibious landing might take place off Kuwait's shores. It worked and led to the 73rd Airborne Division. This matter was discussed by 12,000 British soldiers.



Four equipment is subject to combatant



reproduction of how Iraqi forces could have been provided for all equipment, including how the force must be equipped. (See below)

시도된 적이 없는 이 해병대의 육, 해, 공 합동 공격 작전을 도왔다.

UN이 결한 결구지하인 1991년 1월 15일 3주 전, 12,000개의 병력이 쿠웨이트 해안에 배치된다. 그 병력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항복을 하던 실수 있다는 지령이 해 있는 전단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몇백대는 이 해병대의 해상상륙 작전을 강력히 암시하는 그림이 있었다. 한 실정들 잘 보자한 그 병들은 D-DAY 하루전인 1월 14일 해안에서 도착을 시작했다. 사담 후세인은 이러한 전략을 정하리 파악하지 못하고 해안 준비대를 증원 하였으며, 정확한 공격지점은 밝힌 군대를 감속했다. 미국의 실버윈은 세계 2차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에 대해 행했던 작전 중 하나이다.

실버윈은 작살없이 받아지기 전에 쿠웨이트 남쪽 경계에 미 7군단이 주둔하는 것처럼 속이는데 기억했다. 사실, 이 대규모 부대는 극비리에 이라크의 남쪽 국경을 지나 지중해를 횡단하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작전은 이라크의 정찰가를 속이기 위한 특수 부대의 탱크의 이동, 계획한 작전에 의한 군단본부의 기동통신을 수반해야 했다. 이 전략 또한 사담 후세인은 잘못 분석했다. 그는 이 병력들이 쿠웨이트 남쪽 국경선에 도착한 최정예 예비대에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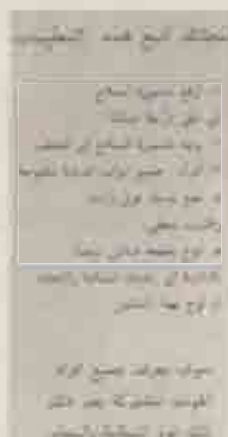
U.S. forces made it clear that they were not enemies of the Iraqi people—only of its oppressive regime. Positive interactions were provided in the absence of full control of how to remove the weapon's magazine and bring the weapon, muscle power, just the left shoulder. Good treatment they followed.



Tank combat statistics were followed by F-119, C-129B and other aircraft to create low air drops in by M119 leaflet bombs, which could drop 14,000 to 22,000 each. Special 150mm artillery rounds could deliver about 3,000 leaflet each.

이라크가 군사상황을 잘못 파악하도록 하게 한 그 효과적인 상의지 속임수는 많은 수의 이라크 장군들을 몰라게 했으며, 공화국 수비대를 지명적으로 손쉽게 대규모 측면 기동작전을 위하여 모호함과 침묵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이 예비적 육군 심리작전 중대로부터 105명의



Use the following procedure to leave resistance:

- Closest your weapons to their maximum capacity.
- Transfer the gun tube over the last deck.
- Expose the tank's side in the approaching force.
- Leave the tank hatch open.
- Place your hands over your head and proceed slowly.
- Wave a white cloth to signal your peaceful intent or hold up this leaflet.
- All armies of the Multinational Forces understood that this was shown over Saddam's commitment to peace.

중원군을 포함한 모든 세4 POG의 자산은 다국적군 작전의 성공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비록 전쟁에 걸친 '식파의 폭풍자란'에 참여했던 병력에 비교하면 소규모이지만 이 세4 POG는 그 규모에 비해 엄청난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당근**



The PSYOP guarantees of good treatment, the precise instructions on how to surrender and what to expect, and the accurate commitment by the Coalition Forces to these guarantees, brought in tens of thousands of Iraqi soldiers and helped collapse Saddam Hussein's dream of an unpunished conquest of a fellow Islamic people.



한국전쟁과 심리전



공군 제6672부대/중위 임재동

한국전쟁 중 유엔군은 1,000일 동안의 라디오 방송, 수십만 번의 확성기 방송, 엄청난 양의 전단 살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심리전의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전쟁의 결과와 민심의 동향 및 로보의 숫자로 볼 때 그 효과가 상당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한국 전쟁에서의 심리전 작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위하여 여기서는 심리전에 대한 일반론을 먼저 살펴보고 난 후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심리전 작전에 대해 논술하겠다.

1.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가. 심리전의 개념

오늘날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전쟁터에서 격돌하는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작전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행위의 개념이 변함에 따라 전쟁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도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가공할만한 핵무기로 무장한 유도미사일과 장거리 전략전 무기의 출현은 전쟁의 영역을 한없이 넓혀 놓았다.

그러나 전방에서의 총격전이나 후방의 민간인에 대한 공작활동을 불문하고 그 목적은 승리와 평화 를 쟁취하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정치적이 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연유된 전쟁인 경우 이러한 목적을 지루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조직적 인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적의 심 제뿐만 아니라 마음 에 대해서도 전쟁활동을 수행 해야만 하는 것이다.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 PSYWAR)이란 말은 오늘날 일상대화에서는 미술과 같은 이 감을 풍기며 일종의 음모를 암시하기도 하고 비스 테미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심리전이란 그다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와 헬기가 아니라 말과 아이디어 로 적과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심리전을 "국가의 목적 및 군의 임무수

쟁을 위하여 적군에 대하여 계획된 선전과 정보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심리전은 높은 기동력과 파괴력을 갖는 무기이다. 즉, 심리전은 선전이라는 화력을 사용하여 아군이 최소한의 노력과 손실로 많은 바 임무를 수행하게 해준다. 또한 심리전은 아군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며, 적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육군의 지상작전이 개시되기전 공군에서는 지상에서의 후방을 확보하고 그 지역에 대한 집중폭격을 실시하는데 이는 적의 저항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에게 공포의 압력을 가중시킨다.

심리전도 이러한 공격작전과 같이 임무수행의 성공과 사상자의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선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심리전은 적의 마음을 공격하고 적으로 하여금 자멸과 자살을 살기시켜 항수에 패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기 전에 귀순을 함으로써 적의 그들 장교나 무기·화력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거나 정치적도자에 대한 확고성을 약화시켜 하며, 아군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등 결국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쟁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나. 심리전의 전략적 의의

심리전은 전쟁에 대중적인 적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의 주인과 후방지역에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전략적 심리전'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선전이라는 무기수단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심리전에서는 그 대상이 전선의 전방이나 군사시설이 아닌 후방의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

목표 민간인의 생활문화와 관습에 관한 풍부한 조사와 지식을 갖고 심리전 수행자는 이를 적의 후방의 민간인들의 적군세력에 대한 시련의욕을 저하시키는 활동을 전개한다. 방송매체나 공중심포 전단을 이용하여 불만을 고조시키며 적군성과 공포감을 조성한다. 예를 들면 군수공급노동자의 파업을 선동하고 경찰이나 군입대를 삼가도록 권고

하며 농민에게는 수확물의 손실을 요청하고 정치 지도자, 군지휘관에 대한 불신감을 고취시킨다.

이러한 전략적 심리전의 효율적 전개는 후방의 소요를 조정하여 적군의 효율성을 극도로 약화시켜 결국 전쟁기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이렇게 전술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면, 궁극 박멸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전은 군사적 임무수행은 물론 승리와 평화의 성취라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2. 한국전쟁에서의 심리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나 미군에게는 심리적인 심리전 조직이 명백하게 존재하지는 않았었다. J. Woodfall Green 대령이 이끄는 원모진이 1947년 국공군 본부내에 세조직되었으나 이 조직은 야전공작부대의 참대적인 부속으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선전활동을 거의 전



개하지 못했다. 급속히 초지를 정비한 등 함포전은 남한이 침공당한 2일째부터 전단과 라디오를 통한 전략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활동은 3년 동안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되었다. 트루먼대통령의 “공산침략자들을 분쇄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24시간만에 첫번째 전단살포가 실시되었다. 또한 48시간만에 심리전을 위한 라디오 방송이 적 전방부대와 후방지역의 민간인에게 강력한 선전 메시지를 발송했던 것이다.

한국전쟁시 사용된 심리전의 유형은 전략적 화성기를 이용한 선전, 전단을 통한 선전활동, 선전말기에 개발된 새로운 기술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전투활동을 지원한 전략적 화성기

심리전은 곧바로 전투와 연결되어 한국전쟁의 발발 후 몇 달만에 21개 화성기 팀이 전방부대와 협동작전을 수행하였다. 강력한 지상의 화성기를 사용하여 화성기팀은 적에게 함몰을 유도하고 특별한 상황을 파악, 이에 적합한 호소를 하면서 선전을 수였다.

이들 화성기팀들은 보병 및 포병의 작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포병과 연합한 화성기팀들은 보병진지에서 화성기를 통해 특정의 적 집단에게 알지않아 아군의 포가 물을 함을 쏜 것이라고 말리면서 전투를 포기하라고 호소하였다. 적들은 지리한 기간동안 그들의 방위선에 잠박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만일 병력밖으로 나오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였다. 따라서 세 집단은 그들의 진지가 완전히 아군의 포위망에 갇혀 있으며 아군의 포대가 그들의 전지를 순식간에 분쇄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군포병의 주위성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적의 취약성을 이용한 심리전을 통하여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전단살포를 통한 심리전

한민족의 위대한 투쟁을 위하여 싸우자

농민들의 추수평가를 낮게하라!

농민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농업농장지도를 반대하라!

새금들 낚지 사정하야 정부에 보고하라!

가축의 수를 덜어서 보고하라!

농민들에게 월 급여를 주라. 강제노역을 시키지 말라!

가난한 농민들을 구하라!
한국민족을 흥신족 대에서 건지라!

출발

로동자들에게 보인다

출발

시한

폭탄

1. 10월 10일 12시 30분

2. 10월 10일 12시 30분

3. 10월 10일 12시 30분

4. 10월 10일 12시 30분



한국전쟁에서는 종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전단이 사용되었다. 해수 4백만장 이상의 전단지, 전승전 전단이 적군과 후방의 민간인들에게 살포되었는데 이러한 전단을 통한 선전 작전이 적의

사기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라고 전쟁으로 및 파란말에 대한 심문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공중투하와 포탄에 의해 적에게 알로한 전단은 야군의 병분종 밝혔는데 유관단어와 그림을 사용하여 적의 활동을 마비시켰다.

심리전 작전에 사용된 전단들을 다양, 색채의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뉴스용 전단, 안전보장 및 특별한 호소를 전단들이었다.

1) 뉴스용 전단

일반적으로 안전보장 전단보다 크기가 작은 뉴스용 전단은 전쟁에 관한 사실적인 뉴스를 담고 있었다. 만일 야군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를 선전한다면 아무리 적 지휘관의 선전에 세뇌를 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야군을 믿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뉴스용 전단들은 적군이 전선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야군측 정보원이 심문한 전쟁로로들은 밝혔다. 그들은 야군이 제작한 전단들이 매우 흥미로와 적들이 빈말이 없으면서 과연 누가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를 깊이 의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 안전보장을 파악하는 전단



중공군은 좋은무기는 자기네가 차지하고 못쓸무기
만북한군에게 넘겨주고있다



왜?

북한이 약해져야 할까?
먹기 쉬우니까...!
북한주민들이여!
인젠 여력분이 채 중
공군이 북한군에게서
죽일 무한한
거주지를 할
맛을 보이다!

중공군은 여러분의 적이다!

뉴스용 전단과 다른 매우 효과적인 또 하나의 전단은 귀순을 유도하는 안전보장을 담은 대공의 전단들이었는데 이 전단은 적군과 아군을 대항으로 한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엔군의 책임있는 지휘관이 서명을 한 열풍으로 인쇄된 부분은 아군들에게 귀순자를 안전하게 대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뉴스용 전단처럼 안전보장 전단에도 사실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이는 아군이 적군들의 귀순시 안전과 좋은 대우를 보장하겠

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천천히 적군들이 아군의 화약을 보다 더 믿게 된다는 점에서도 었다. 한국 전쟁에서 많은 지 병사들은 안전보장 증명서를 그들이 항복을 결심할 경우 확실한 증명서로서 오랫동안 갈루고 있었다고 아군의 심문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안전보장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 적병사들 모두 항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의 공포로부터 탈출하여 항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히 병사로서의 개인적인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3) 특별한 호소용 전단

가장 다양한 내용을 담은 전단은 목표 대상 대의 특정 적부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호소용 전단이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전선에서 적부대에 공들여진 취약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적부대 지휘관이 아군의 '전선병풍을 벌려한 병사들'을 제로하여 심하게 처벌을 가하거나 종과 종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아군측은 이러한 적의 취약성을 간파할 수 있다. 만일 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적부대에 이용할 만한 취약성이 발견된다면 이를 파악, 적절한 시기에 쫓아 몇 시간내에 이 부대를 대상을 전단을 제작하여 비행거나 포를 이용, 살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단을 적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 심리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여 군의 작전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호소용 전단은 후방지역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킬 수 있다. 가령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여 그들을 마을로부터 떠나도록 위협하는 내용의 전단은 적후방 민간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쟁물자 보급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심리전의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기술

전쟁이 비비지에 다다른 1953년 초여름 유엔군은 심리전 작전의 핵심적인 새로운 원칙과 기술을 개발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그 중 하나가 적의 공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이었다. 미그15기를 폭크 유엔군으로 귀순한 북한 조종사는 보상으로 미화 10만불을 받았다. 이들 조종사들은 귀순하기 전에는 유엔군이 제시한 보상을 받지하지는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귀순한 조종사가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그들의 상당수 동료들이 이에 동조, 귀순을 감행하였다. 미그기를 귀순 유도한 북한은 미의 군군 정보를 얻고 미그기를 입수하는 동시에 적군의 심리적인 동요를 유발하여 적 공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후 공산군은 조종사들을 지상으로 철수시켜

심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비행시 그들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두게 되었다. 그러나 출신성분이 양호한 조종사들은 볼모로 잡힌 그들의 가족을 걱정하게 되었고 편대장들과 편대원들이 남한으로 귀순하지 않음에 대해 항상 염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심리전 활동에 힘입어 미 제5 공군은 한국전쟁 마지막 3개월 동안 그 이전의 같은 기간동안에 비해 미그기를 3배나 많이 격추시킬 수 있었다. **당론**



한국안보, 그 위기의 극복

1. 왜 4면초가 인가?

새로이 출범한 문민정부가 신
한국 창조를 위한 4대 국정차프
로서 ①깨끗한 정부, ②튼튼한
경제 ③건강한 사회 ④통일된
조국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 관
한하여 「새 술은 새 보대에 담이
야 한다」는 문민 대통령의 상책
원 지지와 온 국민의 성원에 힘
입어 해북은 한국병의 온상이
하나 치나 피해처치고 있음을
본다. 탈라대 일산과 인창간 등
산로의 개발, 안가의 합거와 지
방 청외대의 세제, 고위 공직자
의 재산공개, 안기부와 기무사의
기능 정상화 등 자동정화 거능
을 가진 총합없는 우형해법이
온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 속에
이일이 진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치(內治)
직합적 개혁만으로 「한국의 해
일가치(Core Value)를 양류의 위
협으로 부터 지키는」국가안보를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외교나 국방은 내치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안보수단은
국력의 통합적 진채화를 통하여
바련되지만, 한국 안보는 현실적
으로 심상치 않은 인위으로부터
의 위험 요인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바디도 사면초가(四面
而楚歌)와 같은 우리의 안보현
실이 무관심하게 도와지고 있
느니 이는 대다수 국민이 분개
불감중 한자이거나, 한일도피주
의자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갖게 한다.

그러면 4면초가지 안보위협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기도 한다.
①북한의 핵무장 ②일본의 군사
대국화 ③주한미군의 철수전쟁
④한국군의 조락(凋落)위기를 4
가지가 치명적인 강도의 대외적,
대내적 위협 요인으로 우리들
4면초가와 같은 상황의 크니로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의 핵무장



한국사회문제연구소장/이선호



▲ 영변에 건설중인 핵발전소 외부

자주적인 핵정보 획득능력이 없는 한국으로서 대미 의존적인 핵주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른 걸까가 되었다. 핵정책에 관한한 적을 과대평가해야 하고 보수적인 접근방법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물문가지이다.

왜냐하면 판도라(Pandora)의 상자 뚜껑은 일단 열리기만 하면 아무도 이를 닫을 수 없듯 핵은 궁극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핵무장을 한 다음에는 휴전의 걸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풀리버인 핵새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5MW급 및 20MW급 연구를 원자로에서 핵무산물로 부터 20KT급 핵무기 조성에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인 ^{239}Pu 를 8kg 이상 이미 추출 확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6월에 열린 IAEA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의 의지

와 능력을 숨긴 채 의심스러운 핵시설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삼호사찰 원정에 올라지 않다가 마침내는 NPT로부터의 탈퇴선언을 하였던 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했거나 핵무장 직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다음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①미국이 최근 촬영한 위성 항공사진의 관측결과 제2차 시설의 핵상위자에 대한 대공방어망의 증강·회중 ②국제원자재장이나 구 소련으로부터 ^{239}Pu 를 획득하였고 핵무기 조립작업 진행 중 임기결함 이상을 저장하였으며 핵무기 조립작업이 진행 중이던 IAEA의 보도 ③NPT의 불검등성 부각 및 조약 만료(1995년)를 기념해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한다는 시나리오를 표출한 점 등이다.

가장하게 PR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본은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다음 5가지 가운데 북한이 하나도 이행한 것이 없으니, 우리의 핵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①방방안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

②방방은 핵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한다.

③방방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

▼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은의 부자세를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과 우리는 능숙시일을 보존하지 않는다. 「생방이」 전장 합작의 대상을 남북한 핵동맹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행 시킬한다. 또 앞으로 1개 월내에 핵동맹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를 주장해 세치켜 높은 북한은, 여유만만하게 중무장을 하고서 미국과의 직접접촉을 통해 한국을 코너에 몰아 넣기 위한 통찰을 세안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상실한 채로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인질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실상기상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학무기 다량 보유국인 북한의 행동변화를 세안하지 않고 한국은 1993년 3월 14일(노태우 대통령 퇴임 직전) 화학무기금지 조약에 원서형국으로 가입한 듯이할 수 없는 수밖에 실수를 저질렀다. 가입일은 지난 4월 15일 82세의 생일을 맞아 노태우를 과기하면서 세비식 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의 3위 1세적 대남우위를 배경으로 최신헌 박소를 비급고, 「대화를 통한 전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는 평화공세를 위한 바 있었으니, 여누스 같은 그의 2중 구조적 행태를 당국은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 가속

걸프전쟁을 통하여 「눈에 띄는 국제평화 능한」을 가지화한 일본은 이제 「선비합에 의한 국제평화 참용 참여」로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군사 대국으로서의 연으로 과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PKO(평화유지)대진화(補給), 주 「국방비의 GNP 1% 상한선 증가, 군비해 3원화, 2배의 과잉급지가 드루세어지고 군사대국으로서의 발을 작없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마디로 핵기술 개관주의를 지향한 정치, 군사 대국화의 지반 조성이라고 하겠다.

최근 보도된 바 있듯이 일본은 세계최대의 중무도함 제척의 지위를 작동하였다. 현재 일본은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제3의 원자로 발전국으로서 전국에 40기의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총 전력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급세기내에 핵연료의 전급을 성취하면서, 연간 7t 가량의 Pu239 추출능력을 갖게 된다. 일본은 세계 유일한 핵재래국으로서 (20KT급 2발) 이제 아이로니컬히에도 세계최대의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어간다. 7t의 중무도함은 20KT급 핵무기 875발을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 일본 중무도함 수송선 미키쓰키호가 도카이항을 항해하고 있다.

물었다.

IAEA의 헌장에 의하면 NPT 가입국은 IAEA의 안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동원자력의 군사목적 전용을 저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한 마디로 NPT/IAEA 가입국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전용하지 않는 한 평화적임 목적을 위한 플루토늄 채처리 시설 보유가 합법적으로 하나도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제도의 단계가 IAEA의 사찰이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연료 켄거기를 정제함으로써 핵연료의 자급을 이루게 되면,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폐재기물을 부응태물질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일거양득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영존을 위해서 최악의 경우엔, Pu239를 핵무기조립에 전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처리 능력을 갖는 국가를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핵의 선택권(nuclear option)이며, 이러한 핵주권(nuclear privilege)의 확보라는 생존전략인 것이다.

북한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핵 부세인임을 실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NND정책(핵의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효과적인 핵억제 전략)을 무의미하게 해버렸으며, 플루토늄 채처리 시

일본의 세계 제3위의 국방비 지출과 세계 제2위의 군사 기술 수준은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의 길을 자연스럽게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일을 찾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음에도, IAEA의 보너스로 거부하고 이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가 하면, 북한의 침입한 수 불가능성도 판단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으나, 어이없게도 뒤집어 먹고 오리발 대이는 북한이 전하. 현상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잠재적인 핵보유국 정도가 아니라, 세계 GNP의 15%를 소비하는 경제대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CTT(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서 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거쳐 2독일, 일본)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P5에 독일과 일본이 추가된다면, 제2차 대전시의 구 작국 조항이 유엔헌장에서 삭제되어서 하고 현재의 유엔 안보 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15개 이사국을 과반수가 차지해야 한다. 일본의 총력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은 시간문제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의 세계 제3위 국방비 지출과 세계 제2위의 군사 기술 수준은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의 길을 자연스럽게 보장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PKO인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군사력을 파견한 이래를 바탕으로 PKF(Peace Keeping Force)를 창설하여 미국의 대아라르지 분쟁에 간섭적인 한반도에도 상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산발 1000바일 배도를 일본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세계 제6위의 해상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미 제7함대와 밀적할 만한 거대한 만치거나 동해의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200바일 경제수역 선포와 더불어 독도 영유권 시비를 다시 걸고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일본은 분명히 국제적 원수 범위 개념으로 한국의 가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4.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진행

미 국방성은 1992년 7월 「동아시아의 전략구상」으로 통칭되는 제2차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적 틀」이란 수정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3단계의 철군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 미군은 제1단계(1992. 7) 철수 계획시행 후 전류 인원이 육군 27,000명, 해군 400명, 해병대 500명, 공군 9,513명, 제 37,413명으로

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1단계의 철군이 이미 완료되어, 현재 주한미군의 총전투 인원은 37,413 명임을 알 수 있다.

제2단계(1973-1995년)는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철군을 연기하고, 급속히 발표되어라도 전투 및 지원 부대는 안전하며, 미군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적 역할로 이행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철군인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장가능성을 전제로 한 일시 유보된 철군계획이 집행될 경우, 제2단계 철군으로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육군 제2사단(정 1개여단)이 사단본부와 1개 여단과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부대만 작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공군은 1개 항공사단(병력: 11,200명)에 각종 항공기 96대 정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미 발표된 바 있듯이, 한미 연합사의 지상군 사령관직을 한국군이 담당하고(제2사단은 결사에는 한미연합사의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미 제6군의 예하부대가 됨), 동기간 중 예정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합참하고 있는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Promotional Control)을 합참의장에게 넘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사의 패해야무는 동기간 중 적기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주한 미군이 그동안 예비해



놓았던 500여발의 탄을 쏘아대는 한국주도의 한반도 비핵화하던 적전에 설치됨으로써 미국의 공동장치는 NCND 정책이 주지미하게 되고 말았다.

제3단계(1996-2000년) 철군 계획은 「한국에 있어서 전력대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북한의 위협, 적제에 관한 고려, 미군의 주둔에 의한 지역적 역할이다.」라는 표현으로 함축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동기간 중에도 남북에 기반전력의 일환으로 지정규모의 세력행사(powers presence)를 지속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는 예상되지 않는다. 상징적인 세력으로서 소수의 지상군과 전술공군기 잔존할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현재 남북한 전미 군사력은 비교해 보면, 병력은 65만 대 99.5만, 가동부대는 11개군단 대 16개군단, 전차는 1,550대 대 3,600대, 아로는

4,300문 대 8,500문, 전투함은 170척 대 430척, 전술기는 520대 대 550대로 전반적인 열세가 두드러진다. 주한미군을 해체한다면 이적세력의 존립가능성마저 희박한 상황이다. 실감가능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고 화확무기를 계속 증설할 것이 예상되므로, 잠재적인 전력결과는 그 부가가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추계로 미루어 볼 때, 주한미군의 제2단계 철군이 끝나는 1995년까지도 남북한의 전력은 균형을 이룰 정도로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은 바, 주한미군에 의한 전략적 균형장치가 존속하는 동안에 남북간의 격차구도가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에 대한 정치적 기반, 국방지원의 유한성, 군사력 집행을 위한 행정기술 등이 한계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획기적인 줄과

구를 군축협상에서 찾기 전에는
표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한국군의 조락(凋落) 위기

한글로 패배의 시련을 맞고
있는 한국군은 개척이다. 아니면
조락이다. 하는 두 길일지에 처
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화내민 한국군 전력의 북한
에게 알려지고 국민에게 적탄받
으면서 내실을 증대를 인사비리
가 만연하여 공개됨으로써 중대
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전한 대다수
의 이전부터 장병들의 초적에
대한 충실함과 국가에 대한 사
명감은 이러한 부패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발전의
재기로 살을 수 있을 것으로 확
신하게 한다. 굳은 자기비하를
증폭하자 말고 자금이 선진사회
로 가는 중간단계일므로 이 어
두운 터널을 빨리 뚫고 나가야
한다는 굳결적 사고가 필요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인
사기 반사다.」 「교복을 분납하
자.」란 캐치프레이즈를 미사여구
가 아닌 조락의 위기를 맞고 있
는 한국군의 개혁과 발전을 위
한 처방으로 삼도록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그리고 악순환을 비
용지 않는 장전해결과 제도적
개선으로 슬화시키도록 직접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오늘날의 국가안보적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열사불공의 성
숙한 자세로 협동·
단합해야 할 것이다

6. 맺는말

일찍이 중국의 성현 공자(孔
子)는 국가안보의 3대 요건으로
민심(民心 : 정치), 축적(足食 :
경제) 그리고 축병(足兵 : 군
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한
대적 국가안보 개념이나 국력의
3대 요소와도 매우 일치하는 선
견지명(先見之明)을 보인 것이
다.

위기에 처한 한국안보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처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안정
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
모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기반조성
과 남북간의 신뢰조성에 의한
민선(民選), 둘째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의한 국력 신장으로 선
진화를 이룩하고, 적지사회를 지
향한 변형을 추구하는 축식(足
食),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체제를 수호하고, 대내외적 위협
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생존을 보
장하며, 국방경제와 국민경제의

조화를 도모하는 적정규모의 정
제화된 군사력에 의한 축병(足
兵)이 바로 그것이다.

탈냉전시대라 하지만 한반도
에는 아직 냉전의 잔적이 녹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대병서에
나와 있는 다음의 교훈을 되새
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호전필
망, 방전필위(好戰必亡, 忘戰必
危)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
하고,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
태로와 진다.」

국가안보와 국방일이 국민정
제와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없
지만, 국가안보와 국방의 수단인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
지원은 적정수준으로 규제되어
야 국민경제와 민주주의가 전진
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안
보도 튼튼해진다.

국방조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
하면 목숨을 바칠 작오를 하고
(見危授命), 대안적으로 이득이
있을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記得思義)」라고 후
러에게 가르쳐 준 안중근 의사
의 교훈을 같이 용납하여, 오늘
날의 국가안보적 위기국면을 극
복하기 위해 열사불공의 성숙한
자세로 협동·단합해야 할 것이
다. 이것이 4대 국정지표를 조기
달성하는 길이다. **공민**

북한의 핵개발 문제

지난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의 비준국으로부터 탈퇴한다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은 커다란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을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대화 및 판문화해 논의되는 데에는 몇가지 배경이 있다.

“핵”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무기제조원료가 되는 반면에 무한한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핵문제를 한민족 상호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핵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특히 “핵”폭탄이라는 무기생산의 경우에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규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을 평화적 목적에 따라 원자력발전 등에 사용할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정기적으로 핵연료의 사용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다시 말해서, 핵을 이용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기존 핵보유국가들이 거의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으려는 것은, 인류의 불행한 운명을 막아 보려는 데 있다고 본다. 한편 핵을 이용한 원자력생산을 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핵동력에 의한 선박의 추진력 엔진, 원자력을 이용한 기타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추진하더라도 IAEA의 사찰을 받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외에 다른 목적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투명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제조되었는지, 또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 더욱이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그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윤정석 교수



▲ 북한의 핵무기제조와 밀접한 나폴레옹 치열한 계산과 수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미국의 언론방송이 찍은 북한의 핵시설물/시설들.



북한은 그동안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미미하다고 부인했었다. 또 양변의 핵시설은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핵동력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장비를 핵무기개발 쪽으로만 의심해 왔다. 물론 이는 핵이 갖는

양면성 때문이란 하지만,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이용하여 남한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핵무기의 철수를 미군 군사기지의 사실문제와 연결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결국 작년에 들어서 미국의 카네기 평화재단의 대표관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하고 핵개발에 대한 상황을 조사해서 IAEA에 정책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 당시 김영남·최우건 등 북한의 군사지도자와 수시간씩 면담하고서 여러가지 확인된 바가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북한의 핵문제에 관련된 입장으로서는 핵 의혹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IAEA가 원한 대로 플루토늄 분리할 도 사실상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 민간단체로서의 정변에 집중은 다른 <표 1>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카네기 평화재단이 방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욱 더 확실해지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1985년 12월 북한은 핵무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92년 1월 30일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여 자국의 의문을 수락하였고, 4월 10일에 북한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

<표 1>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 및 북한의 성취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시설	북한이 건설한 것
○ 우라늄 생산 ○ 우라늄 농축공장 ○ 우라늄 연료소립공장 ○ 원자로 ○ 재처리 공장 (우라늄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장)	있음 있음 있음 있음 [1년에 백록탄 하나정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원자로 : 더 큰 것은 건설중에 있음] 부분적으로 있음 (실험실 규모 : 플루토늄을 조금 생산 : 더 큰 것을 부분적으로 건설완료)

(이 자료는 1992. 5. 27에 카네기 재단에서 Leonard S. Spector가 발표한 것임. Spector씨는 미국상원 에너지와 핵확산에 관한 소위원회회의 법률고문임.)

을 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북한이 IAEA에 핵물질·핵시설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5월 11~16일간 발족하고 북한의 재처리시설에 관한 언급이 있은 뒤, 5월 25일부터 IAEA의 사찰단원이 대북(對北)임시사찰을 처음으로 시작했었다. 그 뒤에 수회에 걸친 정규사찰을 하였던 바, 열번에 있는 한 시설을 특별사찰할 것을 IAEA가 북한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한강히 반대하고 마침내 1993년 3월에 NPT 탈퇴를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제이론은 북한이 NPT 조약준수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NPT 복귀를 권유하고 있다.

NPT 발의선언 후에 실제적인 효력발생은 선언이후 3개월이거 때문에 금년 6월 중순이면 현실

적으로 발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NPT가 발의이후 처음있는 사건이며 또한 1995년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국제적 협의를 위해서는 대단한 걸림돌이 됨으로써, 한국은 UN의 결의와 권고에 따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비원국으로 되돌아 오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핵분재와의 관련은 북

한의 경우와 다르다. 주지하는 대로 1991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핵화 선언』에 이어 한반도에 있어서 『핵무기 선언』을 하였다. 이어서 1992년 2월 18일 북한과 『비핵화 공동선언』을 맺어 상호간 핵무기보유는 물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보유를 포기키로 함으로써 우리 핵정책 역사에 정착되었으며 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이 IAEA에 제출한 16개 핵시설 목록

시설명	수량	규모	소재	비고
연구용원자로 및 입계시설	2기		영변 핵물리학연구소	기존시설
준입계시설	1기		평양 김일성대학	기존시설
핵연료봉제조 및 저장시설	2기		영변	기존시설
핵발전 실험원자로	1기	5MW	영변 핵물리학 연구소	기존시설
방사능 화학실험실	1기		영변 방사능 화학연구소	건설 중
핵발전소	1기	50MW	영변	건설 중
핵발전소	1기	200MW	평북(대천)	건설 중
발전용 원자로	3기	각 535MW	(인조)	건설계획
우라늄 생산	2개소		(순천 등)	기존
우라늄정련생산공장	2개소		(광산, 박천)	기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확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의혹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대미 의존적인 핵정책·핵외교로 발버둥이 우리민족 고유 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이 없다는 비판의 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한·미 협조로 공산주의에 대처하는 「동서」문제로만 간주해 온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세계 남북구도 속에서 한·미 양국 문제도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강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바닷에 핵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핵문제를 단순한 안보문제로,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기 보다는 경제적, 민족사적 의미를 포함한 총체적 구도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속의 한반도 핵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하며, 이에 따라 결코 한반도와 무관할 수 없는 세계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 대량살상무기 강추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남북화(南北化)」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동서구도에서 미·



군중수령까지 세습하는 김일자는 핵을 개발, 한반도를 통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한결의안 표결에서 이조희 중국대사가 손을 들어 가결을 표시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박철언 주유엔 북한대사)

소가 대립했던 냉전구조가 소멸함에 따라 기존의 강대국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IAEA의 핵사찰기능 강화, 제 3세계 미사일 확산을 전제하는 것, 인간한 핵물질의 수출을 규제하는 런던 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s)의 강화 등도 이러한 남북화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원자력 산업 등 우리의 전핵사업들이 미국을 위시한

핵강국들의 규제와 압박에 시달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정치에서의 우리의 외교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의 압축이 순기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한반도와 안보상황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원안해군 및 원거리 공군력강화를 저두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핵개발 자처에 준보조금이 되지 못한다.

고 있고 해병대단 창설 등 공격적 능력위주의 군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주변국가들에게 비살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막강한 잠재력을 갖춘 일본의 종루도급 비축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역사를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는 실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남북 당사자사이에 핵에 관한 특별한 사실과정을 거치게 되면 크게 어리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또 다른 협상의 기조로 삼으려는 것 같다. 원칙적으로 북한은 IAEA가 주도하는 일반사항을 수락하고, 남북간의 상호자찰에 순한다면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핵의혹이 없게 되리라 고 믿는다.

그러나 결국 북의 핵의혹 문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약소국의 전략으로써, 핵을 가진 것이 상대국에 알리고 그 의욕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외교적인 성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 북한이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듯기간에 핵문제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핵문제가 한반도에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대화와 핵문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해결되어야 할 국제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은 연변에 있는 방사화화시설을 꼭 없애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은 특별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NPT를 탈퇴했고 그 결과 UN안보회의 결의에 따라 경제 제재부터 받게되는 상황의 전개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지금의 NPT복귀 권고, 경제제재, 해양봉쇄, 그리고 무력으로 파괴한다는 단계적 제재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같은 고압적인 압력에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찾으면서 시간을 벌게 될지도 모르며, 북한은 그럴만한 사정이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앞에서 북한에게 연계된 연합적 전략에 따라 압력을 가할 뿐이다. **등리**

한반도통일 현실을
인식한 정부는 보충을
가중할 안보지원을 한다

새시대를 맞이하는 軍

- 신한국 건설의 의미와 그 당위성
- 바람직한 군 문화를 위하여
- 신한국과 새로운 군위상
- 신한국을 앞서는 우리의 자세

신한국의 대동을 앞서는 개혁의 불꽃이 도처에서 종리 넘쳐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면서 갖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다.

신한국 건설의 의미와 그 당위성

서울대 외교학과
박상섭 교수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시정방침은 「신한국의 건설」이라는 표제 하에서 주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표제가 과연 진부한 구호로 그칠런지 아니면 건설로 전혀 새로운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는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하기에 달렸지만 새 정부가 출범된 후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 보아 앞으로 무엇인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일본의 시베로부터 광복된 후 새로운 국가건설에의 기대는 국토분단과 한국 전쟁의 말말로 완전히 무산되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의 무의 상태에서 지난 40여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지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와 같이 불리한 이점을 딛고서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것과 비슷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예는 세계 역사상 아마도 그리 흔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이 대단히 눈부신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전혀 만족하거나 자만심을 느끼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발전은 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점은 남북한간의 긴장과 경쟁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즉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다른 어떤 죄성을 치부더라도 경제발전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었다.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그동안의 지상명령, 즉 경제발전의 목표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노동자와 농업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전자의 문제는 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순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해결되기 보다는 그 세기 자체가 역제되어 왔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요청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하는 권위주의 정권이 아무런 효과적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장기간 지속된 결과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사회전반에 걸쳐 출고 그룹의 커

이 흐러지게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존중되지 이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의 기준이 전혀 될 수 없게 되었다. 정권 자체가 정당성의 시비에 휘말림으로써 정치권력에 의해 그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아무런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과 이와 연결된 세력들은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움으로써 법과 제도는 사회적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특권 소용자들의 도구로 인식되게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혼돈이 가중되어 우리 사회는 절망적인 무질서, 무규범 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부정부패는 정거전이나 정부관리들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비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지만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지는 각종 비리를 볼 때 부정부패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 집단이나 세력만에 국한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관행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리로 인식치 못할 따름일 뿐이다.

이러한 비리 또는 부정부패 구조화의 피해자는 우리 스스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구조에서 배일배일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나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신호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무패된 사회 속에서의 법과 제도는 마치 이러한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며 당대에 해지게 된다. 즉 우리 모두는 항상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남의 범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직정은 차라리 원론적인 것에 불과한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전반의 무패화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점에서 나타난다.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가까운 목적을 찾자면 쾌락이 가능하고 물질적 궁핍에서 벗어난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현대 세계에서는 불가피하게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국가간 경쟁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있다.

2차대전 직후부터 40년을 넘게 지속된 냉전기간 동안에서는 군사적 경쟁이 우선하였으나 냉전구조



가 와해된 현재에 이르러 모든 나라는 아무런 숨
김없이 경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
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모든 나라들은
보다 완벽함으로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어떤
제화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사회의 비용의
절감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란 교육비, 국방비, 치안비 등 인
성되고 개명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경제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부패된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예컨대 살
업준사자들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내야 할 뇌물이나
정치인에게 줄 정치자금은 특정 소수자들에게는
축재나 명예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지
는 모르지만 이러한 추가적 비용은 들인 값에 보
환되어 우리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국민들의 삶의 비용을 더 높임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에는 큰 해악을 끼칠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의 필요성 또는 「신
한국 건설」의 명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 각자의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만드는 유일하고 불가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은 한마디로 우리 사
회안에 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부패구조의 제거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구조의 제거작업은 이론적으로는 대
단히 간단하다. 즉 사회적 행동이 원칙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의 원칙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
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그리 쉬운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동안 법과 제도
가 실제로는 부패의 수단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
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
혁의 첫 작업은 법과 제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법과 제
도를 어기거나 굽혀가면서 취해온 행동, 즉 모든



탈법 및 반법행위의 습관을 무효화시키고 그러한
행동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일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정작업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정작업은 어디까지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개혁작업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되었던 비리는 법과 제도가 갖는
맹점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다고 여겨지기 때문
이다. 이상적인 법과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올바른 행동
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한국」의 건설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약속을 지킬 경우 사람들 사이에 모든
고통이나 이익이 자연스럽게 분담될 것이라는 기
대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말로써는 대단히 간단한 것같이 보이는 이
러한 작업은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작업은 우리의 머리 속에 뿌
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불신적 사고를 자체의 교
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명화 작업은 아무
런 시간과 큰 고통이 따르더라도 개혁작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될 경우 우리는 국제적으로 영원히 낙후된 위치
에서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근**

바람직한 군 문화를 위하여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

1.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 군 문화와 관련된 글들은 양 갈래에서 쓰여져 각자 극단적 입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군 문화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강조하는 한쪽의 논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군 문화가 정치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또 다른 한쪽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극정적인 관점에서건 부정적인 관점에서건 지금까지 군 문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군 문화가 사회 일반에 미친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음 뿐 사회환경의 변화가 군조직의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 내적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구조 및 국민화식의 변화에 대한 군조직의 대응을 중심으로 군 문화와 일반문화가 접근될 수 있

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필자의 저서 “한국 군대의 사회학”(나남 출판사, 1993)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2. 군 문화의 내용

군 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일반문화와 비교해 군 문화의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몇가지 간추려 보기로 한다. 아래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는 군 조직의 문화에 국한된 것으로만 보기에에는 힘든 것들도 있다. 또한 일부는 군 문화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군 문화의 영향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로서 파생되어 나온 특성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권위주의

그 첫째는 군 문화가 갖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다. 군조직은 계급의 관계가 경직화된 수직적 관계로 계속 남아 있다. 지휘관 또는 상급자의 결심은 그 자체가 결정으로 되어 버린다. 하급자들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이고 보조적이다. 하급자의 생각이 상급자와 상충할 경우 하급자의 견해가 수용되느냐의 여부는 상급자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 획일주의

둘째로 군 문화에서는 통일과 획일성이 요구된다. 군은 그 특성상 인사불란한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1인 체제로 운용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획일성은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와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해와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윤과 갈등과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군 문화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넓지 못하다.

다. 형식주의

셋째로, 복장, 태도, 몸짓 등을 극도로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들 수 있다. 다른 산업조직들이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데 비하면 확실히 형식에 치중하는 비중이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질서가 중요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형식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집합의식과 집단적 결속이 어느 조직보다 크게 요구되는 군조직에서 이를 화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보수주의

넷째로 군 문화는 국가의식을 강조하거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등 보수적 성격을 지닌다. 정치나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생업에 대해서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회적 생업에 대해서

실리가 중요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형식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보수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히 경제와 문예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매우 진보적이거나 개혁지향적인 실태마저 보여주고 있다.

마. 집합주의

다섯째로 군 문화는 개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이 집합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도록 요구한다. 민간조직에서도 집단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주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지만 군 문화에서 기대되는 집합의식은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 집합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기희생도 감수하여야 한다.

바. 완전무결주의

여섯째로 전쟁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며 완전무결을 강조하고 직무와 관련된 책임어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 위기관리자로서 비상시를 대비하면서 언제나 긴장된 생활의 연속 속에서 생활한다. 물론 이 부분도 형태는 다소 달리하나 일반 산업조직에서도 비슷하게 요구되는 행위양식이다.

사. 공공조직주의

일곱째로 군대의 공공조직적 성격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군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조직이란 가치와 규범에 의해 결당화되며 보다 상위의 선이 개인의 이해에 우선된다. 반면에 직업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사회발전이 따



완전무결주의(절대성)
공공조직주의

유연성
직업주의

이제 논의의 초점은 이와 같이 규정되고 있는 군 문화가 일반 사회문화와 어떻게 병존해 나갈 수 있으며 군과 사회가 결합되는 영역에서 상호이질성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모아져야 한다.

3. 사회환경의 변화와 군의 사회화

군에 충원되는 인적 자원은 그 성격상 군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최소한의 의무 기간을 넘어서도 계속 복무하는 장기화사 이상의 직업군인과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단기장교 및 병사들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직업군인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군복무를 할

장기복무 직업군인들에게는 공공조직적 가치와 직업적 가치의 상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일반 병사들의 경우 의무복무를 위해 군조직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장기화사 이상의 직업군인들은 군은 다른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노동시장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군조직은 공공조직적 성격을 강하게 가져야 하고 그 조직의 성원들에게 이러한 규범에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업적 규범의 도입은 불가피하며 또한 충원되는 인적자원도 이미 직업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직업군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를 생각하도록 강조되어 왔다. 군조직에의 헌신적 기여는 주요한 덕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전통적 직업군인관은 크게 도전받게 되었다. 이제는 헌신적 기여만이 요구될 수는 없고 이러한 기여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기업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사회화시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만들며 또한 이들은 전역 후 민간사회에서 어떻게 재사회화되어가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질적인 문화와의 만남은 궁전과 배출에서 이루어진다. 충원이 이루어지면 인간 인적 자원이 군 조직의 주력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민간 사회문화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군대문화를 흡수하게 된다. 반면에 배출은 군대문화에서 탈피하여 민간문화를 받아들여 나가는 과정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장기 복무 후 전역하는 자원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로서 재직중의 문제가 등장한다. 군 문화가 갖는 이질적인 요소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민간 사회문화와 갈등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군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해 나가지만 군대의 사회화 과정은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군조직 내의 세대문제

위주의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의 해소를 위하여 군은 정규적인 군사훈련 이외에 군조직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군은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그들이 지니온 질서에 순응하도록 일반적으로 강요해 주는 잔치며 군 지휘부 스스로가 젊은 세대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4. 맺음말

사회변동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는 이미 전통적인 군 문화와 공존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연가된 만주, 개인의 취향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기어 등이 차지하는 영역들은 완전히 축소되어 왔다. 그렇다면 군 문화의 위상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특수 문화로서의 군 문화를 포괄문화화 명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첫째로 순수

군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인적 자원을 가진 비군 조직내에서 활용하여 한다. 둘째로 여성인력의 활용이다. 군이 여성화로 이야기할 수 없겠으나 전통적으로 남성에 의해 점유되어 왔던 군 조직에 여성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군대와 민간조직을 수렴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상당 부분 군의 정책에 반영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로 직업적 가치를 도입하여 공공조직적 가치를 보완시켜야 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들 두 가지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민간 부분의 직업적 가치가 군조직 내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군을 지탱하고 있는 공공조직적 가치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간의 직업적 가치가 이를 더욱 강화시켜 줄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군을 제도적으로 민간조직에 근접시키는 것은 전문 군사요원들이 전역 후 민간사회에 재집적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군 문화의 이질화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군이 민간의 가치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그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군 문화가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사회의 여러 하위문화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인정받고 또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는 군조직을

군 문화가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사회의 하위문화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인정받고 또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질화된 집단이 아니라 일반군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내적 구성원이 되도록 제도적 의식적 변화를 수반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군문화가 군조직을 묶어주는 기본 질서이며 군조직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 문화가 곧 군조직의 성격이라는 등식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사회의 질서에 바탕을 둔 일반문화가 군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명**



신한국 창조와 새로운 군위상의 정립



군군 제0785부대
중위 임기원

1. 문제제기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을 시작으로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명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역설하였다.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복, 국가기강의 확립이라는 3대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도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군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난 4월 17일 당부대에서 실시한 정훈교육본임조 주제발표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신한국 창조와 새로운 군의 상의 정립'이라는 주제 아래 변화하는 국내외정세에 맞추어 우리 군의 위상과 그에 따른 과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2. 토의내용

사회자 : 주제토론에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신한국」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실 분 발표해 주십시오.

이해실 심원 :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난듯이 신한국이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이며, 질서감이 넘치는 사회,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한국이란 "더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나라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용준 병장 : 현재 사회 곳곳에 독바섯처럼 번져 있는 이기주의, 그리고 부질서 심리 등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 앞서 국민적인 도덕성이나 윤리회복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방이후 반세기 동안 사회·문화적으로 큰 변동을 겪었으므로 전통윤리의 준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대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체제의 정립이 요청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세대에서 '나만은 은혜를 보더라도 비록 세 살아야 했다'는 태도를 견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모두가 다같이 규범을 준수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남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신한국 창조에 대한 개념정리와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큰 단속속의 부분단체인 '군'이란 집단에 있어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지 모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성 설명 : 지금 '신한국 건설'을 위해 사회 각 부문에 걸쳐 개혁과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기 위해 과거 군의 부정적인 요소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군인사 운영과 전략전술개발 등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군은 젊은이들에게 확고한
국가적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하여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군은 군 훈련과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용중 병장 : 저는 군대론리라는 측면에서 모의해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답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보다 강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따라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가장 민감한 나이에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장래 이 나라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에서 부패와 부조리를 합하고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굳은 확고한 국가적 사명감과 책임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회자 : 사회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에서 확고한 가치관을 세워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어문석 하사 :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한국에 대해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의 노획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서방 선진국은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김정일의 초기 권력 계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평화 통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이 강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군의 제도의 합리화와 엄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내부의 개혁작업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어 군에 대한 신뢰를 높고, 강하고 온화한 군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부터는 신한국 창조의 군위상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우리 군이 전지해야 될 새로운 군의 모습이 어떠한지 할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승우 상병 : 우선 안보의식이 변화되고 군교육 제도가 개선되어 민주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신한국 창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군위상의 정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현재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군위상의 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부대의 관련자여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승희 상병 : 예, 저는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 부대가 신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한국에 걸맞는 신군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가 화합과 조화, 그리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화되고 본질이 퇴색되어진 내부간담회나 면담, 기타 소속장관 부서원간의 자유로운 의사발표를 위한 토론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이 쓴 소원수리함의 작품회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음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반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족한 체육시설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방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책과 근무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반장 모임이나 내부간담회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휘관과 부대원간의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일 일병 : 저는 앞으로 발표하신 분의 의견에 좀 더 보태고 싶습니다. 수리가 화상실에 기다 보면 화상 소원수리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화상실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전엔 구타가 심하고 집합이 난무할 때 병동들에게 불쾌 하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대에서는 구타나 집합 같은 것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대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배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의 해를가 합니다. 소원수리함을 의견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또 그것을 화상실배다 두지 말고, 우리들의 의견술 상

관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부서장님의 사무일
열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사회자 :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원수리함을 의견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우리 부대가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선군체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병영문화를 정착해야 했고,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여 보다 선진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현창우 하사 : 저는 앞서 분회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군은 특수한 사회이고, 법적으로 건설된 무력단체이기 때문에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즘 세태를 살펴보면, 시대적 분위기가 방인지 하급자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군의 전투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를 해달라', '.....를 하자'는 등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조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든지, 출근수업을 하루에 한번씩 하자는 의견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흐르고, 또한 그러한 흐름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일수복 우리 군은 더욱더 굳건히
위아 합니다.

우병길 실병 : 앞서 두 분 다 의미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굳은 특수한 사회이다'라는 말에 더 호감이 갑니다. 특수한 사회인 군에서 무엇을 받아들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갑한 여러 의견을 방때 볼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은 '무조건 세 것이 최고다'라는 사고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주변의 것들이 그렇게 노후하고 부족합니까? 참사 할양에 도움을 주는 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후 일감으로 나오는 '국방'이라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 알서 군은 특수사회란 것을 인식하고 더욱 군인다워져야 합니다

는지 '자유공론'같은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발행되는 'TIME지'나 '국민일보'는 정치협상에 도움이 되고,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진중문고나 참관지는 군인의 정치협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또 제정 것은 값이아 하고 무조건 것은 반드시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시설과 불충을 뒤로 한 채, 무엇을 갖고 무엇을 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 예, 모두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신한국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잡군요. 우리 부대가 민주화되고 선진화하여 사회적 흐름에 능동되자는 의견과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것을 받아들여기에는 우리의 자질이 충분하리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만들만한 그곳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덥으려면 그 불이 덥혀지 않을 만큼의 그곳이 필요하듯이 우리 군 또한 신한국 창조의 바탕을 수용할 준비를 먼저 갖추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십니까?

신미성 실병 : 예,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방때 보겠습니다. 방대한 일정한 군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육, 해, 공군 3군중에서 공군이 처음으로 참모총장실을 방때들에게 개방하고, 방때 맡기들 다잡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31개 실천방향을 방때하였는데

그 대안을 요하하면, 간부들이 먼저 각종 훈련에 우선 참여하고, 적당주머니 보신주의적 업무자세를 일제 소진할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확립하며, 복종만을 강요하는 일반지식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정착하여 군내부의 권위주의를 없애 나가고, 또 교통법규를 지키고 환경오염 방지에 일장시는 등 실천가능한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병길 상병 : 앞서 말씀하신 31개 실천강령 살펴 보면 지휘관에게 국한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일반 장병들에게 필요한 지혜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적당히 묵묵히간단 배우면 된다는 식의 업무자세를 지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에게 올바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도 우리들이 그것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군은 다시 옛날의 구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철만의 군군남게 책을 통하여 우리 의 의식과 능력을 더욱 개발해야 합니다. 엄청난 기술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젊은 시합 불안 다양한 의견 발표가 이뤄졌지만, '신한국 창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가능성을 증명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 민·관·군이 화너되어 21세기를 향해 인화단결과 학교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정령과 실실이 내릴받고 인입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모두가 '더불어 중요롭게 사는' 복지국가 건설에 한발 가까워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에 참석하시어 인지하계 정려해 주신 방영계 여러분과 토론한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의 도양 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군은 확립적이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을 유지할 수는 없다. 군의 현대화로 많은 변모를 겪고 있는 지금 이전의 비합리적인 명령체계, 통제위주의 행정, 무사안일주의, 특수한 군관료주의의 폐만문제점들을 극복함으로써 문민정부가 표방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기 위한 새로운 군위상을 정립해야만 한다. 이처럼 새로운 군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군조직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자세변화가 요구된다. 군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이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무질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내 자신이 조국의 번영과 안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군생활에 임해야 하겠다.

둘째, 자율적인 군행정문화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것은 개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일관성있는 규정의 이행과, 현재의 명령체통 내에서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의 의사전달체계가 활성화으로써 부대원의 의견을 양성적으로 흡수·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번거로움을 극복함으로써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간소화 및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전에서 승리를 위한 기본요건인 '군의 현대화'와 관련되는 문제로 신속정확함과 능률의 기본요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군조직의 중요한 인력차원으로서 '개인'의 성장발전을 추구하고, 아울러 군의 현대화와 능률화를 도모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군위상의 정립은 형식적인 제도개편이나, 군인의 인분을 망각한 급진적인 사고나 주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과 민주적인 군 문화의 정착이 있을 때,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적인 정예공군이 갖추어질 것이다. **문근**

3. 결 론

신한국을 맞는 우리의 자세



공군 제1공군사령관
대령 최태준

1. 문민시대 역사적 개악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새 역사를 연14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창조를 관명했다. 새 정부는 누구나 참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신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화 경직에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나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 양식까지도 바꾸어야 하며 부정부패 척결, 경제의 활성화, 국가기강확립 등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앗아먹는 가장 큰 암적 요소이다. 정치집단, 공직사회, 경제 부문 등 모든 지도층에 만연된 세습주의, 이권개입, 사치, 낭비가 집소되지 않고는 우리가 제도약탈

집을 실행할 수가 없다. 성직없는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분담이 실효력을 갖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경제회생 역시 새로운 과제로 꼽힌다. 경제침체는 수출회생의 약화나 기업의 투자유동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희생된 근로계층의 박탈감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상실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공약하는 성장이나 국력의 팽창보다는 근원적인 집권과 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삼부가 합쳐 못하면 국민이 삼부를 불신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달라지지 않으면 개혁도 신한국 건설도 공전불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빠른 생각 빠른 마음을 가진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다수의 빠른 생각이 결집되고 조직력을 발휘한다면 밝고 밝은 사회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정치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국민만이 변명을 누린다는 것은 세계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신한국건설은 구호나 기상천외한 과감 또는 엄청난 개혁의 정사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계를 먹이지 않는 공중도덕과 보물창고 하나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국민체면만 결집된다면 우리 사회는 최적으로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이면우 교수의 W이론

W이론은 독자적 경영철학을 의미하는 실질적인 이름으로 이를 우리 산업의 현실과 기술패권주의 또는 기술민족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창조학에 붙을 달이는 새로운 창조시 국가발전 전략에 적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W이론이 추구하는 바는 세계 각국이 고유기술, 고유산업,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국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W이론은 우리의 국가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첨단 기술을 용기 발전시키고자 하는 선진국의 산업정책 및 우리화 재지가 비슷한 중진국의 산업전략에도 밀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너나없이 무역적자와 함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걱정들을 하지만 이는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는 표현은 아니다. 우리의 현재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미 국난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런 정신적 자존없이 기술패권주의를 휘두르는 선진 선진국과 기술패권에 의존하여 치명적인 산업은 적인지 산업과 다를 바 없다한 것이다.

공장에서 피와 땀으로 근로자들이 일했던 그간의 결과로 성취한 국제경쟁력은 이제 도열선과 전운이 짙어 나아서 새롭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독자적 경영철학을 뒷받침 할 W이론이 있어야 오늘날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의 비전 제시가 가능하다.

철수와 휴양의 싸움을 그린 「조한지」를 보면 한 나라 군사가 조국의 항우를 사면에서 포위하고 목과 경끼리를 지면서 조나라의 노래를 불렀다는 구절이 나온다. 요즘에도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부를 일컬어 「사면조가」에 처해 있다는 표현을 쓴다.

우리의 주된 여건을 둘러보면 국제적으로는 ① 정보통신 혁명의 급격한 진전 ②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③ EC의 무역보조정책 ④ 일본의 책임부담 분담조절 ⑤ 국제화 조율에 따른 내수시장 개방정책 ⑥ 중진국이 부활국의 병렬한 추격 등으로 국제경

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은 ① 산업기반기술의 취약 ② 고급기술인력 부족 ③ 자금원 및 ④ 화소비 증대 확산 등의 이유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돌아볼 때 오늘날의 우리는 「사면조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는 다시 뛰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근접철학을 생활화하고 부설부채를 추방하며 주민의식을 갖고 맞은바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경제는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해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되고 극복하는 정신적인 자세이다. 정신적 자력의 회복이 시대적 사명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근로자에게는 태만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소명의식과 장원정신이 부족하다. 목표달성을 위한 헌법주의와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출세를 기양하며 온갖 꾀를 쓴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된 결과 사회규범은 무력해졌다.

선한국 창조는 새 정부의 기발이며 그 아래 선 경제 선진화 심사와 인문화 등이 도열하게 된다. 얼마인 우리 나라 고위 직직인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였다. 잘못된 정치도 인해 경제도 사회도 병들게한 지난날의 오류는 이제 막을 내리고 맑고 깨끗한 정치중도 위에서 다시 뛰면서 한국인의 서머를 과시해야 한다. 감지 과거의 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전한 사회중도는 우리를 스스로가 용기와 자신감으로 품을 품군이 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선한국 창조에 주역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부의 개혁 의지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문경**

세계의 명작 다이제스트

<편집실 제공>

1.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A. 밀러(Arthur Miller)*

주인공 빌리는 자유분방한 직관력의 삶을 상실하게 하면서 지식들의 장래를 영구적으로 화전하는 낙원적인 미국인이다.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만족하고 두루 심기를 얻는 데 골몰하는가 하면, 사실의 큰 아들 비프가 학업에는 태만한 즉 지식층구에 재능을 보이는 것에 열광했다. 그래서 비프의 친구인 후속생 비나드가 비프의 수학 숙제를 빌리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큰 경기장에서 인가를 모으는 아들의 모습만 태연스럽게 여겼다. 이것이 빌리의 삶과 행복했던 과거의 생활이었다.

이때 젊은 것의 나이를 먹은 빌, 선과 깊은 기동력과 없고 고백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지 못해 곧 매질적이 오르지 않아 패르된다. 34년간 청춘을 바친 직장으로부터 쫓겨났을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전장에서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냉정함이 여군을처럼 드러워진다.

이와 아울러 현대 문명인의 비애도 드러된다. 자존심, 영광과 재물이 등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전부 무산 들어놓을 수가 있지만 할부금을 다 낼 즈음이면 모두 다 어긋없이 망가지 있다. 할부로 마련했던 집도 마지막 부금을 낼 때 끊어지면 자식들은 전부 떨어져 나가 함께 살 가족이 없게 된다.

가족과의 갈등은 빌이 비프와의 관계에서 참예하게 드러난다. 비프는 수학에 과학함으로서 중업을 못하고 대학원학의 길도 막히고 있다. 게다가 비프의 친구들이나 들은 마라다이는 데 불려졌던 비나드가 변호사로서 출세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빌리는 자신의 말자취를 후회스럽게 돌아본다. 그후 그도록 만했던 자식이 빌리에게 세기화거는 저당 한달 종도독으로 일러한 것을 모으는 자신을 사뭇했던 어리석은 자존심도 부너져 미칠대 죽음의 벽설해이타를 밟고 있다.

이 작품을 그도화된 사회의 메카니즘에 조화된 현대인의 비극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 수만회의 공연을 통해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세네카, 밀리얼즈와 함께 1949년 미국이 2대 작가, M.밀러의 전 '살판프로도' 출간

2. 맥 베드(Macbeth)

W.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스코틀랜드의 왕 일리크의 자식인 맥베드는 캄브루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전하는 중 우연히 세 명의 마녀를 만나 그들의 음모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그 예언에 따르면 맥베드는 코디의 영주가 되고 그 후에는 왕이 되지만 캄브루는 그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오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맥베드가 코디의 영주로 부임되면서 마녀의 예언에 놀란 맥베드와 그의 부인은 왕위에 대한 욕망을 품게 된다. 그러던 중 왕 일리크가 맥베드를 방문한 것을 기회로 맥베드는 부인의 승낙에 의해 왕을 살해하고 그 뒤를 두 왕자에게 맡겨 주어 그들은 국외로 도피한다.

그 결과 왕과 가장 가까운 혈족인 맥베드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마녀들의 예언을 믿게 들었던 캄브루는 맥베드에게 의혹을 품는다. 자신을 위협하는 캄브루를 부당스러워하고 캄브루의 자손이 왕이 되리라는 마녀의 예언이 성취한 맥베드는 자객을 보내서 캄브루를 살해되고 그의 아들 맥더프는 피랍에서 벗어난다.

맥베드는 왕위 추위식에서 캄브루의 발령을 보고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광동해서 조그마한 의심으로도 자객들을 죽이고 괴상한 맥더프의 살을 삼켜서 그의 처자를 살해한다. 이런 잔학해진 남편의 변화를 보고 그의 부인은 자책하던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한편 맥베드는 불안을 이기지 못해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맥더프를 조살하라", "이제 맥더프가 태어난 자는 맥베드를 이기지 못한다", "미년의 숲이 그의 상을 공격하지 않는 한 그는 왕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다.

아버지와 처자를 잃고 복수심에 불탄 맥더프는 맥베드를 노멸하기 위해 구원군을 얻어 맥베드의 거점 가까이까지 침략하여 미년의 숲에 이른다. 맥베드는 마녀의 예언을 믿고 승리할 자신감으로 싸웠으나 그 순간 갑자기 미년의 숲이 움직여 상으로 침략해 왔다. 상은 병력을 노획시키지 않기 위해 경사들을 나뭇가지로 뒤덮고 공격한 것이다. 또한 맥베드는 맥더프가 어머니의 관속에서 말을 해두지 못하고 해탈장벽에 태어났음을 알게 된다. 만사가 마녀의 예언대로 진행되었고 그 예언을 따라 부두까지인 왕위에 존했던 맥베드는 마침내 맥더프의 도발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눈이 먼 한 인간의 갈등과 증상을 매우 빠른 템포로 간파하고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중 하나이다.

** 영어에 대한 철저한 깊이를 함양 발전시킨 세계문화사상 최고의 작가로 평가됨.

3. 파리대왕(Lord of the Flies)

W. 골딩(William Golding)

미래의 핵전쟁으로부터 과난을 자전, 영국 소년들이 저문의 피자를 먹고 무언도에 수락한다. 그들이 착륙한 무언도는 꽃과 열매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맑은 물이 넘치는 낙원이다. 소년들은 부끄러움과 확고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 아무런 단절도 없이 살고 방학을 즐길 수 있다는 환희에 젖는다.

소년들은 여섯 살 전후의 어린이들과 열두 살 가까이 십대소년들로 구성된 대표로 뽑아 살린다. 소년들의 대표가 된 팔트는 급박에 세력이 좋은 소년으로 명망하고, 작위와, 사리 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팔트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 세력이 형성되고 레프라는 소년이 그들의 대를 노릇을 한다.

어느날 소년들 중 한 아이가 커다란 괴물이 숲 속을 기닐고 있다고 말하자, 모두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레프 팔트는 이 괴물을 토벌하고 재가를 사냥하여 모자를 문금화했다고 장담한다. 결국 이들은 사냥의 흥분에 휩싸이 점차 이성을 잃고 살육하는 것을 참나하게 된다. 그들의 대표인 팔트에게 반항하면서, 완전히 나빠가 되어 물에 갇혀서 죽을 일하고 항을 휘두르며 뛰어다닌다.

한편 거대한 괴물에 연방하고 말한 사이먼은 괴물의 형체를 문금히 생각해 보지만 그의 바를 속에 비쳐오는 괴물의 형태는 사랑할 뿐이다. 그는 "괴물이란 아마도 우리 자신일거야"라고 말하엿으나, 소년들은 그에게 비웃음을 보낸다. 마침내 괴물을 찾아 전으로 온다갔던 팔트와 레프는 산장에서 낙하산을 한 채 죽어있는 병사의 시체를 본 순간 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포에 질려 도주하게 된다. 그 이튿날 레프 팔트는 괴물에게 바치는 제물로 온 참제자를 잡아 커리를 살라내고 나무가운데 박아 세워준다. 그리자 순식간에 새까만 파미레들이 해리 머리를 덮는다.

아이들이 일한 괴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나간 사이먼은 산 위에서 이 재치머리를 뒤집은 파미레를 보게 되고 하늘과 대화를 나눈다. '파미레의 왕'은 사이먼에게 "내가 너희를 두에 일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회자아. 나는 바로 너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재치머리는 슬슬하게 입을 벌려 웃는 듯했다. 이에 너는 놀라 지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사이먼은 다시 괴물이 있다는 신상에 올라가서 그것은 비행기 조종사의 시체를 발견하고 괴물은 없다는 거본 소식을 소년들에게 전하기 위해 굶어 산 아래로 뛰어내려온다.

다른 소년들은 산장에 모여 레프 팔트가 잡아 온 참제자의 살을 구워 먹으며, '괴물을 죽이자', '괴물의 피를 뽑자'라고 외치면서 금단의 숲을 주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숲속에서 뛰어나오는 사이먼을 저물로 처각하고 그를 죽이고 만다. 이런 자신들의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결국 레프 팔트는 모든 작제력을 상실하고 세력을 추격하여 침묵이 그들의 대표인 팔트를 쫓으며 온 산에 불을 지른다. 팔트가 불타버리는 순간, 연기를 보고 찾아 온 영국방대의 해군 장교가 나타난다. 그리고 장교는 다름과 같은 어이없는 말을 한다. "아니, 너희들 전쟁을이중 하고 있는 거냐? 마치 <삼포살>의 이야기처럼 아주 멋지구나?"

팔트는 이렇게 말하는 그 장교를 일하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물에 타버린 살을 둘러보고 죽은 제자와 사이먼을 회상하며 그는 혼란을 넘어 오열했다. 다른 소년들도 비바시 울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이장사의 무언도에서 소년들의 타락을 통해 인간성 원초적 결함과 불완전성을 표현한 1983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다. '파리대왕'은 처음에 '벵케버르'이며, '파랑'을 뜻하는 말이다.

명언선집 — ‘軍’에 관하여

<편집실 제공>

- 국가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준비를 하라. 일단 일에 대해서는 겁이 공격하거나 모욕하지 못할 것이다. <헤카타에우스/로마 군사교본>
- 국방은 부유보다도 중요하다. <A스미드/국무론>
- 우리를 군비로 제1 목적은 평화이지 전쟁은 아니다. <IF.세레다/정세를 변화하기 위하여>
- 어떠한 방법들도 조리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써 길이 주어지 있는 것이다. <I.실리/법령을 행>
- 강한 장군 밖에 약한 병법 없다. <소동과/세련공예>
- 충성은 뿌리와 같은 것으로 지키자부터 자치가 잘라 통감할 평음이 나온다. <P.시드너>
- 평상은 낮은 것보다도 일정한 것을 요구한다. <十八史略>
- 군인은 덕을 용서할 수 없으며, 적의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 <플루타르크 열전전>
- 군인이란 직업만을 할지, 안이 승리의 생필물이 두드러진 것도 없다. <A.비니/군대의 군종과 원예>
- 군인법은 자식적인 불자리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군인의 역할이 본질적인 것이어서 실력에 의해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면에 의해 입건하기 때문이다. <B.프라스칼/평생>
- 장군 세력이 강한 병법은 없다. <후지/謀略編>
- 훈련을 바리키 아니한 군인을 싸움터로 보내는 오로지 임명의 귀중한 목숨을 버릴 뿐이다. <論議>
- 우리 추구한 진술가였던가 하는 것을 감정하는 것은 최후의 결과로써 해야한다. <C.드글>
- 장군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단단과 신중이다. <C.아리보스/역사>
- 가장 위대한 장군은 가장 작심이 적은 자다. <B.나폴레옹>

공군항공의학 적성훈련원을 찾아서

비행안전과 공군전투력 향상에 공헌



1

2

3



항공의학 적성훈련원에서는 가속도, 저압실, 비행척각, 비상탈출 등의 항공생리 교육용 훈련장비와 함께 새로운 훈련방법을 개발해 실전적 교육훈련에 활용함으로써 첨단 비행기를 다루는 전투조종사 및 공중군무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건강관리 및 비행사고 예방에 진력하고 있다.

- * 사진설명 1) 비행척각 훈련 control room
- 2) 비행척각(Gyro-Lab) 훈련
- 3) 바라니 체어를 통한 비행척각 훈련



▲ 지상실 장비 주종실



▲ 지상실 비행(Dual Flight Training) 훈련



▲ 기록도 내신 훈련

올해로 창설 44주년이 된 항공의학 적성 훈련원은 그동안 축적된 항공의학 분야에서 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공중 근무자 및 장병들에 대한 신체 검사와 비행 적성 자문을 완벽히 책임지고 있다.

특히 공중근무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항공생리 교육훈련 및 항공의학 연구업무를 통하여 거두어 들인 성과를 실무에 적용시킴으로써 비행사고 방지와 장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항공의학 적성훈련원은 원장 이하 계획 운영부, 초내성 교육 훈련부, 항공의학 연구부, 비행적성 자문부, 태성대의무실 등 4개부 1개실로 운영되고 있다.

초내성 교육 훈련부는 조종사 보수과정, 항공의학 장교 과정, 항공생리 교관 과정, 비행 간호장교 과정 등 각종 항공생리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종사 선발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 의학부는 전 공군기지에 대한 환경위생 조사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비행 환경과 장병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항공의학 연구업무를 활성화하여 전투 조종사 및 공중근무자들에게 적용시켜 극한 상황에서의 인체 생리학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비행안전과 공군 전투력 향상에 공헌하여 왔다.

비행적성 자문부는 조종사 및 공중근무자, 사관·생도들에 대한 비행적성 관리 및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인체관리와 비행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또한 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며 국내에서 유일한 각종 항공생리 교육 훈련 장비를 도입 교육훈련의 질을 한 차원 높였으며, 군내외 위탁 교육 및 연구기관 파견 연수를 통하여 피무요원들의 전문화 및 자질 향상에 기여하여 항공의무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공군 항공의무 발전은 물론이고 국내 의학분야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다.

함의원장 이민기 중령은 "실전적 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한 항공의무 요원의 자질 제고로 끝없는 항공의무 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군 항공의학 적성훈련원은 2000년에 공군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현실상부한 공군의 항공의무 교육 훈련부대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오늘도 전장병이 발차단결에 팔든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비행생리 훈련



▲ 체력 측정



▲ OST 훈련 (Oxygen System Training) 고공 추력 적성훈련



▲ 한미연합 무정찰기 경연대회인 '3rd Sami Spirit'이 공군 제357부대에서 열렸다.
(06. 8. 19)



▲ 공군 제357부대에서는 초·중·고등 학생을 위한 무정찰기 경연대회가 열렸다.
(05. 6. 4)



▲ 한국전쟁 당시 100회 이상 출격했던 공군 조종사들의 모임인 푸스탕 ACE 클럽회원들이 공군 제397부대를 방문하여 제단날을 최고하여 후배 조종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98. 5. 29)



▲ 공군본부 장훈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78기육수호 용병대회를 개최하였다. (98. 6. 18)

국내 최대의 항공축제

-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대히 개막
- 고무동력 등 4개 부문 1,454명 선수들의 열띤 경연



▲ 대회개막을 알리는 공군참모총장의 축하 시범 비행



▲ 공군 참모총장 기념 사진촬영



▲ 비행에 완료した 유망아들의 고무동력 부문 경기 모습

제15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현전이 지난 6월 20일 공군사관학교 (연평경)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의 항공축제인 이 대회는 모형항공기를 통해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의 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이번 본선 대회에는 지난 6월 현당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대회 참가자 10,285명의 선수 가운데 예선 통과자인 1,454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 UCM Ultra-Light Motorized vehicle 조경광 항공기 시연행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항공 우주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 마련



▲ 무선조종 헬기 부문



▲ 사관생도들의 축하 퍼레이드

대회장인 慈根湖 공군 참모 출장대 참가 어린이들과 함께 모형비행기를 날리면서 시작된 대회 경기는 고무동력 글라이더, 유선조종, 무선조종 등 4개 23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었다.

간헐거리며 나는 듯한 고무동력기 그리고 유·무선 모형항공기의 아슬아슬한 곡예비행과 전투비행 등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싣고 솟아올라온 하늘을 수놓았다.

경기와 함께 공군에서는 축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유원 글라이더와 초경량 항공기 시범 등 개마봉사와 조상화 그려주기, 군악대의 거리 연주, 악장대의 시범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축제적 한마당이 펼쳐졌다.

“사관생도들의 젊음이 엮어낸 화합의 축제”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1일부터 3일간에 걸쳐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사관생도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투철한 군인정신 및 조국의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다진 이번 대회는 올해로 40회를 맞이하였는데 3군 사관생도들의 다채로운 응원전과 함께 순수 이미 주어로 구성된 선수들의 패기와 젊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럭비와 축구의 두 정규 종목 이외에 군악, 의창 시범, 모형항공기 시범, 생도본업, 행글라이딩, 사물놀이, 열광야성 고적대 시범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축제의 장을 제공하였다.

올해는 공군사관학교의 종합무용으로 대회가 마무리지어졌다.

적·아식별(IFF) 장비의 올바른 이해

1. 서 언

제 1, 2차 세계대전과 중동전을 통하여 항공력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으나, 특히 1990년 8월 2일에 발발한 GULF전들 통해 항공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여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전장중심(Center of Gravity)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후군의 항공기를 포함한 지·해상 후군 전투력의 보호는 일차적인 전투수행 과제이며 그 필요성은 2차 세계대전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서 얻은 교훈을 항공기와 함정을 상당량 보유한 미군이 일본군 항공기를 마군 항공기로 잘못 판단한 결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전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해·공의 원형한 입체작전과, 특히 우리 공군에서의 삼위일체(항공기, 방공포병, 관제) 중립전투력 발휘와 원에서 적·아식별(IFF) 장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새설

을 찾아 원대한 항공병과 임무수행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2. 적·아식별(IFF)의 중요성 이해

가. IFF의 발달과정

적·아식별(IFF)장비는 2차 세계대전 초기 적기와 후군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군기에 특정한 모양(별, 다이아몬드)의 금속판을 원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후 영국에서 1940년 MARK-Ⅱ¹⁾를 개발하였지만 이 또한 모양상, 산출상, 정확성 결여로 미국에서 MARK-Ⅲ, Ⅳ, Ⅴ, Ⅵ 등이 개발되었다. 무선신호와 암호 조합방식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모두 폐기되었으며 실질적인 적·아식별(IFF)은 1984년에 MARK-X IFF장비가 개발되어 그 변모를 갖추게 되었고 1959년에 MARK-X SH²⁾가 추가 개발되어 작전에 사용하였다. Mode 1은 32Code까지, Mode 2, 3은 64Code까지 사용 가능하였고,



공군 제3171 부대/대원 한태환

1961년에 MARK-XII의 개발로 4,096 Code로 확대되었으며 Mode 1, 2, 3/A, C, 4로 변경되어 5개의 숫자동기 신호와 32개의 숫자워드 신호, 그리고 랜덤 펄스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나. 운용원리

항공기를 목적으로 식별할 때는 적·아식별(IFF) 장비가 필요없으나 항공기의 발달로 적·아식별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항공기(스텔스 목적기 등) 및 전자광학장비(Optical Electronic) 발달로 장래에는 적·아식별(IFF)장비가 불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항공 및 방공학전에서 필수 불가결한 장비로써 지상전투수행에 있어서 항공기(문, 달) 기능과 같은 것이며 만약 우군

까지 탐구해 비속지 또는 불일치 상황이 발생되는 대규모의 비전투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과거 지상전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적·아식별(IFF) 장비는 지상에 설치된 질문기(Interrogator)와 항공기에 탑재된 응답기(Transponder)로 구성되어 지상레이더(항공관제, 탐공 레이더)와 항공기간 상호 약정된 부호로 질문 및 응답함으로써 ① 국적에 따른 적·아식별 ② 기종식별(Tail No) ③ 항로식별(행선, 비상, 피납) ④ 고도정보 등을 교환하는 2차원 레이더 장비제이다. 그 계통은 그림 1(적·아식별 계통도)과 같이 지상의 안테나를 통하여 양호로 조립된 신호가 방사되어 항공기에 수신되면 응답기(Transponder)는 이 신호를 장입된 암호

숫자와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신호를 송신하게 되고, 지상의 질문기(Interrogator)는 이 신호를 수신하여 해역기에서 해석하여 PPI(평면 위치 표시기) 스크린에 표시, 일표적과 함께 표시되므로써 적·아 항공기를 구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다. 식별 응답과 전시

상기 "나"항의 운용원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적·아식별은 방공포병 적·아식별 장비의 경우 PPI 스크린상에 그림 2(적·아식별부호)와 같이 장비운용 주파수와 Mode(1, 2, 3/A, 4) 및 Code(암호화된 숫자)가 일치하지는 "A"반응(우군기)이 전시되고, 주파수와 Mode만 일치하지는 "B"반응(불명기)이 전시되며, 식별조건이 어느 하나도 일치되지 않을 시에는 "C"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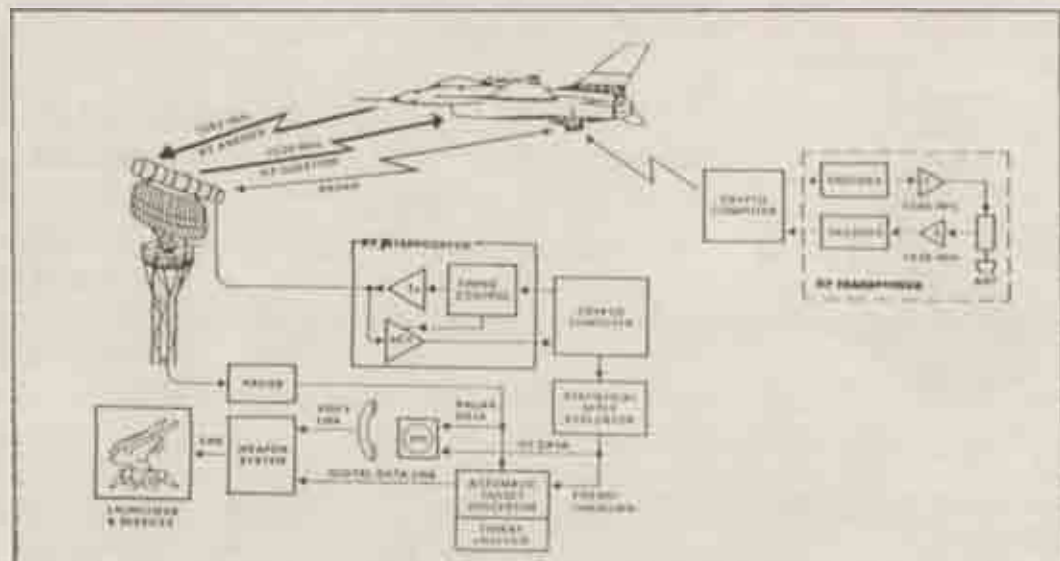


그림 1. 적·아식별 계통도 (Mode 4)

반응	부호	식별조건			판정	비고
		주피수	Mode	Code		
A 반응		○	○	○	응답기	
B 반응		○	○	×	불명기	
C 반응		×	×	×	적기	

그림 2. 敵・我識別 符號

종(적기)이 표시된다.

이에 따라 방위포병은 적기 및 불명기 판정이 된 항공기에 대해 규정한 교환절차에 따라 교환하게 된다.

라. 심감기 및 응답기 운용

적・아식별의 과정은 레이더 장비와 관계없이 IFF/SIF 자체 장비, 즉 심감기 및 응답기에서 출수신되고 증폭, 해석되며 표시 기능만 해이다. 장비의 PPI 스크린을 이용해서 심으므로 적・아식별(IFF) 장비의 주제는 심감기와 응답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감기와 응답기의 종류는 그림 3(적・아식별 장비

종류)와 같이 대표적인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MARK-X급과 MARK-XII급의 기능차이로 운용하고 있는 장비에 따라 Mode 4의 사용유무가 결정(즉 MARK-XII급 장비를 Mode 4사용이 가능한 반면 MARK-X급 장비는 Mode 4사용을 위한 장비개량이 필요하다)되며 Mode 4 운용이 가능한 장비라 한 지라도 Mode 4를 운용하는데 따른 Code 장입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마. 운용실태

(1) Mode 운용

적・아식별(IFF)장비를 운용

하는 기본 기능인 Mode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종류(Mode 1, 2, 3/A, C, 4)가 있어 각 Mode별 운용에 따른 비교(차이점)는 그림 4(Mode 운용)와 같이 선택, 사용한 Mode에 따라 그 기능의 차이가 있다. 방공포병 부대의 적・아식별을 위한 Mode는 표시에 Mode 3/A를 사용하고 표시에는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Mode 4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공군은 항상 Mode 3/A 및 Mode 4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 Code 운용

적・아식별(IFF) 장비의

구분	MARK-X IFF/SIF	MARK-XII IFF/SIF
심 감 기 (지 상 용)	AN/TPX-26	AN/TPX-46
	AN/TPX-27	AN/TPX-54
	AN/UPX-6등	AN/UPX-23 AN/UPX-27등
응 답 기 (항공기용)	AN/APX-23	AN/APX-46
	AN/APX-44	AN/APX-64
	AN/GPA-78	AN/APA-72
		AN/KY-532등

그림 3. 敵・我識別 裝備 種類

구분 (Mode)	종류	비고
Mode 1	○ 국적 식별 ○ 전술, 비전술기 구분	연합군일 때 국적 식별 가능한 식별
Mode 2	○ 항공기 일련번호 식별 ○ 표명기 식별	항공기 고유번호, 장비
Mode 3/A	○ 적·아 식별 ○ 항도 판독	방공포병부대 적·아 식별(광시) 비행항로 통제(군, 민용)
Mode C	○ 비행고도 확인 (100ft 단위)	관제용
Mode 4	○ 명확한 우군기 식별 (군용, 암호화)	전시자용(미국항공기/방공포병 부대 광시부터 사용)

그림 4. Mode運用

Code는 암호화 및 약정된 신호로 Mode 1, 2의 코드는 저의 고령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Mode 3/A는 암호자세 AKAA 000/000를 사용하여 매일 00시(INDIA TIME)를 기준으로 2시간 간격으로 장입하여 수하시 살거 “다”항 식별응답과 그림 2 [적·아 식별 부호]와 같이 전시된 부호에 따라 우군기와 불명기, 적기로 구분하여 교전한다. 무기통제상태(Weapons Control Status)에 따라 우군기로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와 교전하도록 규장되어 있는 실정으로 당부대에서의 '92년 연간 항공기를 포함한 항공기 식별결과를 분석해 보면 A반응(우군기 식별)이 약 10%이고 B반응(불명기 식별)이 90%로써 현실적으로 적·아 식별 장비(IFF)운용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위포병부대의 항공기 식별능력은 관제 레이더(FPS-

117)에 운용되는 식별장비(OX-60/FPS-117)의 기능에 비해 국히 제한되어 장기 “다”항 식별 응답과 전시에서의 우군기, 불명기, 적기만을 식별할 수 밖에 없어 Mode와 Code의 불일치에 따라 전시에 복잡다양한 공중 상황하에서 오인 식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효율적인 운용방안

현재 기용공적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은 끊임없이 전략, 전술 및 관련교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비행장에 효율적인 일주수행, 구역권별 관제비 특성, 공중항로교동 통제 등의 요인에 의해 저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식교란이 증수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저지 전파와 자전 및 전술을 모두 수

행하는 항공전력의 보호를 1차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적·아 식별(IFF)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상호이해 및 교리 발전

방위포병부대가 공군으로 전군된 이후 통합 영공방위 전투력 발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명실공히 항공기, 방위포병, 관제가 삼위일체가 되고 있는 현실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완벽한 방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호 적·아 식별장비 보호, 운용일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군 항공기 보호 및 적기와의 효과적인 교전을 위해 상호 감문을 통한 현실적 이해와 전술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아 식별(IFF)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과 관제되는 교리의 발전이

서로써 요구된다.

나. 전시대비 적·아식별 훈련 감화

앞으로 교전능력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작중 발위훈련시 적·아식별 훈련과제를 창립하여 작전과 시스템이 제한되는(전투/무전)가설 전시 상황하에서의 적·아식별 훈련을 통해 방공포병 무대요원의 식별능력 및 교전요청/승인 절차를 숙달하고 항공기의 적·아식별(IFF) 장비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결과를 정검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일단 용사적 발생할 수 있는 적·아식별과의 문제점을 도출, 해소할 수 있어야겠다.

다. Mode 4 활용

미 항공관제(민수, 군용) 장비의 동시인영국가의 보유, 특히 출국의 미군사용 관제장비 도입 및 북한 500MD 도입 등으로 북한이 적·아식별(IFF) 장비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Mode 1, 2, 3/A는 상당한 비밀이 노출되어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Mode, Code에 있어서 Mode 1, 2, 3/A를 이용한 적·아식별은 북한 항공기도 무조건 반응으로 나타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서 적·아식별 장비는 보안성이 보장될 수 있는 Mode 4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결시에도 가설 전시 상황 하에서 항공기 및 방위포병부대, 관제부대가 Mode 4를 운용할 수 있도록 대비책(식별장비 조기/확득)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송중전 및 Gulf전에서 우리는 현재 기술공격에 의해 리셀라드와 간접 접근전투에 따른 마비 현상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알 수 있었다. 그러한 Gulf전 당시 장성면의 전투공간에서 항공작전은 장거리 가동면에서는 제한이 되었지만 항공전력 통제면에서는 용이하였다.

우리의 경우 북한의 현재 기술전략과 전장의 특이 좁은 전투 공간을 고려할 때 피아간 혼란이 야기되어 전전장(전후방) 동시 전투가 예상되므로 통합된 영역발위 일투 수행에 있어서 신속한 탐지 및 전차적 식별이 보장되어야 먼저 교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아식별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아식별 장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용요령을 숙달함으로써 통합된 열공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주>

- 1) IFF :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적·아식별)
- 2) MARK-II : 2개의 주파수를 이용한 CW무선방식으로 지상장비와 항공기 간의 무선통신 방법사용.
- 3) SIF : Selective Identification Feature(선택식별 장치)
- 4) PPI : Plane Position Indicator (평면 위치 지시기)

<참고문헌>

1. TM, 11-5895-532-12, AN/TPX-46 IFF/SIF.
2. KAM-225/TSEC, KIR-1A AND KIT-1A MAINTENANCE MANUAL.
3. 美 Litton 社, ROK IFF MODE 4 UPDATE PROGRAM.
4. ST 44-159-2 IFF(75. 10)
5. ST 44-199-2 IFF(71.7)
6. 군사방위 제 44호, 적·아식별장치에 대한 교할(87. 11. 30)
7. FM 44-1 방공포병전술
8. 교육참고 101-20-3, 방공용 어사면(89. 7. 30)

수치 지도의 제작과 활용

1. 서 론

1950년대 후반에 반자동식 발공시스템(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을 제작하면서 최초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수치화된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MIT의 C.L. Miller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구축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control center의 컴퓨터와 미국전체의 항공 레이더망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항공관제와 직의 비시업의 집입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지도의 제작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수치 지도에는 수치 지형 모델과 수치 지형 표고모델이 있다.

수치 지형 모델(DTM : Digital Terrain Model)이란 지형학상의 공간적 분포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가지 응용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형의 특성은 표고를 주로 사용하지만 표고 이외에도 지가(地價), 소유주, 토질, 토지이용 등

이 포함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표고를 지형특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수치 지형 표고 모델(DEM : Digital Elevation Model)이라 하며 이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정보를 갖고 있는 2차원 배열의 형태로써 gridded DEM과 feature DEM으로 구분되는데 gridded DEM은 2차원 평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표고를 기록한 것이고 feature DEM은 지형중 도로, 강, 계곡 등과 같은 특징적인 지형의 경계를 따라 불규칙하게 표고를 기록한 것이다.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지도를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라이징(digitizing)하여 얻는 방법과 항공 사진 측량에 의한 방법,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스캐닝과 디지털라이징에서 유발되는 오차와 지도자체의 오차가 누적될 수 있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함은 물론 지형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공군본부 정형부/소령 김형기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방법은 해상도확기를 사용하여 지도를 만들면서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을 함께 만드는 것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이지만 항공사진에 의존하므로 항공사진을 촬영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한장의 사진이 포함하는 영역이 좁으므로 넓은 지역에 대한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프랑스가 SPOT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LANDSAT (LAND SATellite) 위성과는 달리 군사관측이 가능하며 지형의 표고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상 해상도도 10m로 크게 향상되어 이를 이용한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경우 영상의 면적이 항공사진에 비해 수십배에 달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수치 지형 모델이 완성되면 일반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산업과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장의 SPOT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을 제작하였다.

2. 국내외 수치 지형 표고 모델 제작 현황

인공위성 자료의 해상도가 1970년 초에 발사된 LANDSAT은 80m에서 1984년 제2세대의 LANDSAT에서는 30m, 1986년의 SPOT 위성에서는 10m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성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지도가 상층으로 나오기에 이르렀다. LANDSAT 5에 탑재된 Thematic Mapper는 기하학적으로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나, base/height 비가 낮아 고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1986년 발사된 SPOT 위성은 약 20m, 폭력으로 10m인 고해상도의 stereos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손쉽게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 SPOT 영상을 이용한 DEM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DMA(Defense Mapping Agency)는 1972년에 설립된 국방업 산하 기관으로 지도제작에 관한 연구와 지형정보의 data base를 통해 마군의 탐발기술, 무기화 지휘통제 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사인원이 대략 9,000명으로 여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총칭하여 digital terrain data(DTD)라 한다. DMA Combat Support Center에서 제공된 DTD는 대략 20여 종류이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AFIF (Automated Air Facilities File), LSD (Local Slope Data), DEAD (Digital Feature Analysis Data), DTED (Digital Terrain Elevation Data), TERCOM

(TERrain COntour Matching Database), TTD (Tactical Terrain Data) 등이 있다. 이들에게서 DTED와 DFAD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정부와 관계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구는 197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1966년에 네덜란드와 한·미 협동 항공사진 측량사업 협정체결을 계기로 1971년에 항공사진을 이용한 1:25,000의 지형도를 처음 제작하였으며 1974년에 1:5,000의 대축적 지형도 제작을 시작하였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구는 1975년에 LANDSAT 영상자료를 이용한 아산만 일대의 초석현상에 따른 해안지형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주로 토지의 활용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87년에는 국립지리원과 한국 동력자원 연구소가 공동 연구로 LANDSAT-5의 TM (Thematic Mapper)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 부근의 토지이용도를 조사하였고, 1988년에는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연구로 한강 홍수위와 침수구역 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치 지형 표고 모델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시스템 공학연구소, 국방과학 연구소 등에서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수치 지형 표고 모델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은 위성 영상을 획득할 당시 항공위성의 위치와 자세를 최소 자승 오차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다음 양쪽의 영상에서 동일점을 찾아 시차를 계산하고 센서의 기하학적 모델링을 수행, 각점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한다.

항공사진에서의 항공기 위치와 자세는 한 가지로 고정되어 SPOT 위성의 위치(X, Y, Z)와 자세(ω , φ , χ)를 나타내는 외부표점요소는 각 line마다 존재하여 36,000개이다. 위성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정보를 모두 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항공위성의 운동이 안정된 것을 이용하여 위성의 위치와 자세를 시간의 함수로 근사화하여 구한다.

Computer vision, machine vision, DEM 제작분야에서는 이를 일치성 문제(correspondence problem)로 다루고 있는데 서로 다른 지점에서 촬영한 두 장의 위성영상으로부터 각각 위성 영상에 맺힌 동일점을 찾는 과

절이 stereo matching이다. 이의 구현방법으로 feature-based matching 방법과 area-based matching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Feature-based matching 방법은 양쪽영상에서 특징(feature)을 추출한 뒤 이들을 서로 matching하고 특징점과 특징점 사이의 화소들은 내삽(interpolation)을 한다. Area-based matching 방법은 각각의 화소에 대응하는 화소를 상대영상에서 matching하는 것으로 좌측영상의 화소에 대해 주변의 기준영역과 우측영상의 matching 대상화소 주변 영역을 설정하여 두 영역의 화소값들에 대한 통계값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응점을 찾는 방법이다. Stereo matching을 통해 disparity 정보를 획득하고 disparity 정보와 공전조건식을 이용하면 각점의 고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치 지형 표고 모델제작을 위해 좌측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 그림 1이고 우측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 그림 2이다. 이로

부터 제작된 3차원의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의 일부가 그림 3이다. 수치 지형 표고 모델위에 원래의 위성영상을 위치시키면 그림 4의 3차원의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된다. 제작된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을 같은 고도를 연결한 등고선 모양과 동일 지역의 지형도에서 나타난 등고선도를 비교한 그림이 그림 5와 그림 6이다. 등고선의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며 위성영상으로 부터 제작된 등고선도가 전체적으로 대략 10여m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항공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은 지표면의 숲과 건물 등을 촬영하기 때문이다.

4.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의 사용 예

본 연구에서 제작된 수치 지형 모델의 RMS 오차는 좌측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16m가 되었다.

이를 이용한 군사적 사용에는



그림 1. 좌측 위성 영상



그림 2. 우측 위성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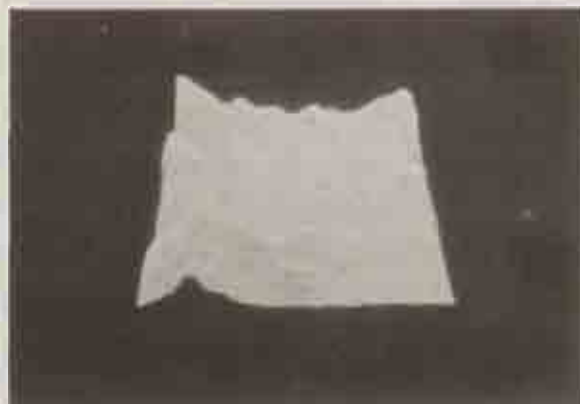


그림 3. 제작된 D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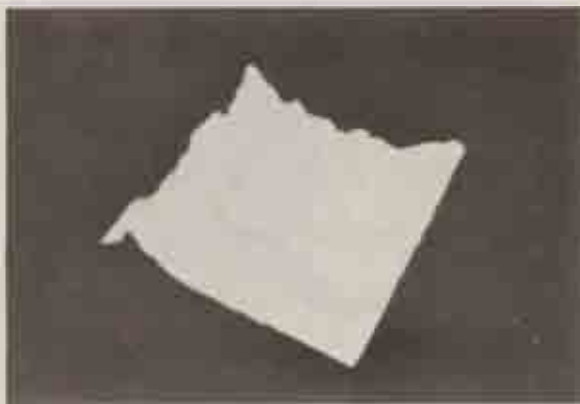


그림 4. 디지털 영상 지도



그림 5. 제작된 DEM의 등고선도



그림 6. 지도의 등고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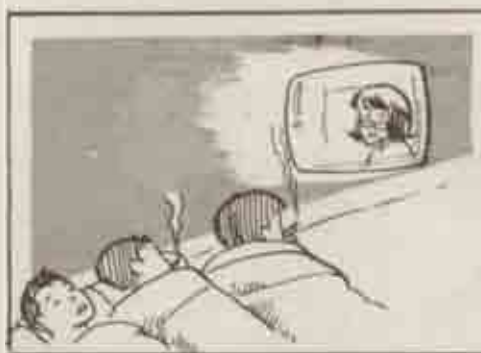
지형수치 순환 미사일에 사용되
는 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 시스템에 적용
되어 장거리 순환 미사일형 용
도장치에 이용되는 데이터 베이스로
사용이 되었고 F-16 폭
공기에는 SITAN(Sandia Inertial
Terrain-Aided Navigation)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항법
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종사

훈련용 모의훈련장치 등에 사용
되고 있다. 한입용으로는 도시계
획, 도로건설 계획, 수해지역 예
측 등의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하기 때
문에 수정, 보좌 등에 많은 장점이
있으나 처리 기술의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제작되지 못하였

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수치
지형 표고 모델의 정확도가 선
전국과 비슷하므로 남북한 전
지역의 수치 지형 표고 모델 제
작과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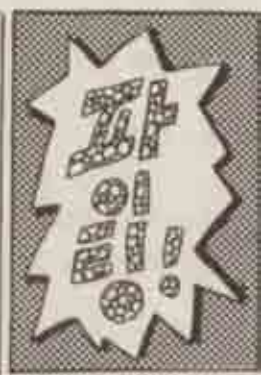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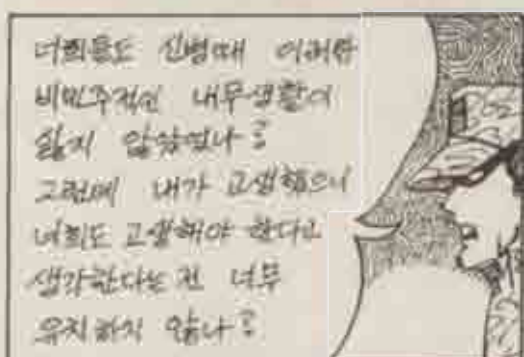












공군 군사용어 해설

<편집실 제공>

AEDO(Airmedical Evacuation Operations Officer) : 항공의무후송 작전장교

BA (Blind Approach) : 새기이름 맹목 진입

CSO(Close Support Operation) : 근접지원 작전. 우군의 지상 및 해상군과 대치하고 있는 적의 목표에 대해 공중공격을 가하여 지상 및 해상 적군의 돌파구를 형성하거나 적의 공격을 둔화시킴으로써 작전의 유효성과 기동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작전.

DEFCON(Defence Condition) : 방어태세 준비단계.

Emergency Alighting Area : 비행기不時 착륙장.

Fighter-X : 차세대 주력 전투기.

Great Circle Course : 동권선로 혹은 대권선로. 지구 중심에 그 중심을 갖는 원주로를 밟아 가는 선로로, 지구표면의 어떤 두 지점 간, 최단거리임.

Holding Fix : 공중 대기지점. 시작비행시는 공중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점이 공중 대기 지점이 되고, 재기비행시는 송신소나 두 개 송신소 전파의 교차점이 공중대기 지점이 됨.

IAS(Indirect Air Support) : 간접항공지원. 우군을 공습할 적의 항공세력을 우군 항공기가 공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방공수단이 제공되는 것.

Jay-flying : 부규칙비행. 항공규칙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비행하는 것.

K&R Rate : 적추출, 적기를 떨어뜨리는 전투기 및 미사일의 정확도.

L/C(Leave Chocks) : 지상탈주개시

Mechanical Pilot : 자동조정장치. 항공기가 희망하는 대로 방향과 자세를 취하도록 자동적으로 보조적, 방향타, 승강타를 조작하는 장치.

Nose Dive : 급강하, 수직강하.

■ 알아봅시다 ■

Operating Ceiling : 비행고도 한계. 최고 상승한계.

Pocket Aircraft : 갈래용 비행기. 갈자용 비행기.

Quick-search Procedure : 신속탐색 절차. 외각으로부터 중심시보다 항공기를 두 배 사용하여 적 지 역을 지체없이 탐색하는 방법.

Radar Range : 비행기의 레더반경.

Speed Scout : 고속 정찰기

TOT(Time Over Target) : (공군의)일제 폭격.

Upside-down Fighter : 반전비행. 정상으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뒤집는 고도의 기술.

VMB(Very Many Buggy) : 20기 이상의 피아 불명기.

WASP(War Air Service Program) : 전시항공 군부제회. 간선 민간항공로 및 군부지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간에비행공대에 배속된 항공기가 철수한 후, 민간 항공수송기관에 대한 수송기 배분 및 재 배분을 위해 준비된 계획.

X-15 : 초고도에서 작전가능한 유인 로켓 추진 초음속 연구를 항공기, 폭격기로부터 공중에서 발 사하며, 학류는 조종사에 의해 실시됨.

Yellow Equipment : 황색장비. 장비의 가용성 관정기준으로서 현재 자동상태에 있지만 90일간의 가 동능력이 의심되거나, 예비부속 및 공구가 부족한 상태인 장비를 말함.

Zoom-up Attack : 급상승 공격. 적방에 가깝게 올라가면서 하는 공격.



HACKER와 컴퓨터 범죄

공보 법무감실/이동상사 손찬원



I. 서 론

1993년 2월 17일 도하 각 일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한 해커가 있었다. 그는 청와대 정권 인수반의 이름을 도용하여 국내 최고 의 정보통신망인 한리안에 잠입한 후 일부 정부기관의 user ID Password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여 금융기관의 휴면구좌에 있는 수백여의 예금을 인출하려다 잡혀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자주 떠도는 컴퓨터 해커와 그들이 범하는 불법침입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하여야 하는 정보보안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Hacker와 컴퓨터 범죄

가. 해커(Hacker)에 대하여

1) 1989년 서독 하노버 해커사건

1988년 11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천문학 연구소인 로렌스 바클리 연구소 전산실에서 클리프드 스톨이라는 시스템 운영자 Host Computer의 사용요금을 청산하던 중 75센트의 공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운영자는 과학자다운 필요함과 끈기를 가지고 정부보안기관과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아가며 추적을 하기 시작하여 4개월에 걸친 대대적이면서 비밀을 요하는 작전을 벌인 결과 서독 하노버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해커 마루루스 레스라는 사람을 찾아 대기에 이른다.

1983년 3월 검거되기까지 약 6개월동안 이 해커가 벌인 이 사건의 내용은 유럽과 미국 및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 37곳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낸 것을 비롯하여 대서양과 미 대륙을 횡단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텔레트, 인터넷, 텔레트등의

화선망을 통하여 400개를 상회하는 연구용 및 군용 컴퓨터에 침입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하노버 해커는 한글과 바약을 구하기 위하여 소련의 KGB와 접촉해 사구의 군사 및 산업기밀을 빼내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 해커란 무엇인가?

해커란 용어를 컴퓨터 사전에서 찾아보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 강렬하게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일컫는 속어'라고 단순히 기록되어 있다.

해커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으로 액세스(Access, 접근)하여 그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 보기도 하고, 파일을 꺼내 보기도 하며,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시스템의 일부를 실수 또는 고의로 손상시키기도 한다.

해커들은 초기일 많은 청소년

들어 팔은채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서 별이는 모뎀달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유별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컴퓨터를 공짜 불법 액세스를 시도, 성공할 경우 마치 처녀봉을 정복한 동산 가치의 대가를 맛보게 된다. 이러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하여 PC와 MODEM, 그리고 전화기 앞에 매달린 채 거의 모든 시간

3) 해커의 과거와 현재

해커라는 단어는 1960년대에도 있었으나 이때에는 주로 컴퓨터광을 총칭하는 단어였다. 60년대 미국 MIT중대의 컴퓨터 시스템연구수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으로 구성된 일단의 컴퓨터광들을 고용, MAC라는 프로젝트에 투입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개념이 개발되었는데 예

해커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를 여러가지 조합의 레스위드들을 시도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자기의 시간을 완전히 오게서 날비해 버린다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Hacking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해커는 근본적으로 과거 자라기 보다는 한가지 일에 심식을 잃고 몰두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 물론 AI용 언어인 LISP의 개발과 후에 Expert System으로 알려진 시스템의 개발 및 시분할 개념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젊은 컴퓨터광들은 이러한 개념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 시스템을 역으로 통과시키는 역할도 받았는데 이는 시스템의 Bug를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화와 모뎀을 통한 컴퓨터 액세스가

가능해지고 현대적인 해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전에도 전화시스템 자체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교란하는 활동들이 암암리에 많이 있었다. 당시 극소수에게만 알려져 있었던 이러한 사실들이 71년 Enquirer지에 상세히 보도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전화시스템은 송화기에 대해 특별한 종류의 휘파람 소리를 낼 경우 그 기능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이로써 Phone Frenker들은 장거리 전화를 마음대로 걸 수 있었고 때로는 전화시스템의 기능미비도 유발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종류의 효과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전화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하였다.

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고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게 되자 Phone Frenker들이 컴퓨터 해커로 변신하였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83년 「War Game s」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수많은 청소년들이 해킹을 시도하게 되었다

PC들이 가장, 학교, 사무실로 보급되면서 컴퓨터 해커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81~82년에 들어서면서 해커들의 지하조직이 형성되고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의 전자정보판시 시스템 (Bulletin - Board System : BBC)을 입입이에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한 명이 알게 된 회사 컴퓨터의 User ID 및 패스워드들은 이 BBC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보와 교환된다. 또 83년에 한 소년이 해킹을 시도하는 도중 미국 국가안보 제제에 잡힌다는 얘기를 그린 "War Games"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부터 수많은 청소년들이 해커들에 대하여 알게되고 이를 시도하게 되었다.

4) 해킹(Hacking)의 방법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구좌명(Account Name)과 암호번호>Password)를 입력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좌명들은 대개 비밀이 아니며 컴

퓨터 프린트물이나 CRT터미널 등에 적혀지 나오고 또 한번 걸릴되면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패스워드는 비밀로 취급되어 해커들은 이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하여 실험을 기용한다. 해커들은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회사 내에 붙해 걸입해 터미널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아 내기도 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기도 한다.

새 User(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좌명과 패스워드는 때때로 SYSOP(System Operator)의 업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Default(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해커들의 손쉬운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커들의 여러 가지 침투방법 중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시험착오법

한 컴퓨터의 구좌번호를 알 경우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패스워드를 다 입력시켜보는 방법이다.

제품 들면 잡고 있는 구좌번호를 입력한 후 여러가지 조합된 패스워드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패스워드는 대개 6자리 이하이므로 알파벳과 숫자를 적당히 사용하여 순열조합을 만들어 차례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SE-

CRET, LOVE, SEX, DEMO, TEST, SYSTEM, ACCOUNT, PASSWORD, ALPHA, HELLO, KILL, DOLLAR, WORK, YES, NO, OKAY, GOD 등이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들이며, 한국의 경우 KIM, LEE, PARK, CHO 등 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위장술

낮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커라면 먼저 한 터미널에서 시스템에 Log-in한 후 다음과 같이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동한 후 시스템을 버린다.

- 터미널의 화면을 지우고 'Welcome to XXX System' 등 Log-on 직전 터미널에 나타나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CRT에 만들어 놓는다.
 - 다음 유저가 와서 Log-on을 시도할 때 실제 시스템과 동일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 유저가 입력한 구좌명과 패스워드를 해커의 메모리에 넣는다.
 - 유저가 패스워드를 입력한 직후 'Log-in Incorrect'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 그 후 이 프로그램은 작동을 중지하고 항상적인 형태로 Log-on과형으로 컨트롤을 돌려보낸다.
- 이 유저는 아마도 자기가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착각하고 다시 시도해서 연결이 되면 의심없이 작업

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해커는 높은 권한을 가진, 가늠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찾아와 Logon해줄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다) 트로이 목마와 시한폭탄

이것은 장군의 프로그램에 몇 가지 특수한 명령문을 추가해 해커 자신을 최고권 시스템 운영자로 둔갑시켜 버리는 방법이다. 또 이 경우 시스템 운영자가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시스템 운영권을 장악해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시스템이 다운되게 되거나 자료를 파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른다.

라) Trapdoors

대형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OS를 개발할 때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Bug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중간에 약점을 미리 숨겨둘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약점을 Trapdoor(다락방 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Trapdoor는 대개 프로그램 작성이 끝났을 때 없애는 것이 보통인데 실수 또는 고의로 남겨두는 수가 있다. 이 트랩도어는 후에 이 프로그램을 쉽게 공격하고 유입할

수 있는 비밀통로가 되는 것이다.

바) 대응방법

해커들의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실의 전원 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비강화와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패스워드를 분할 유자의 확인 과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액세스 통제방안, 내부인원에 대한 교육으로 보안의식을 높이고 패스워드의 적절한 사용방법을 교육시켜서 내부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신속히 폐처리하는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안, OS,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시스템 자체의 보안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나. 컴퓨터 System의 보안문제

1) 컴퓨터의 현황

컴퓨터가 인간생활의 구성구석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수반하면서 법률분야에도 점차 침입한 관련을 맺어가고 있다. 이것은 법률이 인간생활의 각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령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도입으로 법학이 영향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첫째, 컴퓨터 기술을 법학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입구입이 끝나고 나오는 각종법령의 수많은 관계들이나 제, 개정되는 법령들을 일정한 방법에

해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비강화와 보안의식, 그리고 기술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리하여 저장시켜 두고 자료화하여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영향이다. 즉, 법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말한다.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법학분야는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저작권법, 특허법, 모험법, 처사법 등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생활에 대한 침해, 컴퓨터 범죄, 컴퓨터의 증거능력 문제, 프로그램의 저작권 내지 특허권의 침해 이와 등이 그것이다.

셋째의 경우가 법학의 방법론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의 경우는 법학의 실체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가 법전 자체에 사용되면 우리의 생활이 풍족하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회나 남용되면 이것은 개인의 생활이나 더

컴퓨터의 주요 5부분은 모두 침투가 가능하며, 각각 취약점을 갖고 있다

나라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기밀 누설, 또 국제적 긴장과 정치적 분쟁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컴퓨터 범죄의 개념

컴퓨터 범죄는 넓게 보면, 개인이 프라이머리 침해, 정치권 영역에 있어서의 침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은 컴퓨터를 남용할 경우 생기는 결과도 많다.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컴퓨터에 의한 고의의 재산적 피해를 컴퓨터 범죄로 보는 견해인데 이 둘사이의 차이점은 프라이머리 침해와 비재산적 피해를 과연 컴퓨터 범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3) 컴퓨터의 취약성

컴퓨터 시스템은 얼마나 취약한가?

컴퓨터는 대야 5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력, 출

력, 프로그램, 중앙처리장치, 통신 등이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 부분은 모두 침투가 가능한 것이며 각 단계마다 많은 취약점이 있다.

첫째로 입력부분을 보면 자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키보드판독기, 광학판독장치(스캐너), 카드리더, 자기테이프 등이 그것이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자료가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가중치 잘못된 자료를 입력하여 기계를 조작하므로써 재물을 횡령하는 사례는 고전적인 범죄수법이다.

둘째로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작동을 조종하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만약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거나, 변조되거나, 조작 또는 위조되면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나타나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거나 큰 손해를 끼치고, 입회상에 큰 구멍을 남기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은 정도에 대해 무관심 상태이다. 누구든지 복사하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중앙처리장치(CPU)이다. 이것은 컴퓨터의 두뇌 그 자체이며 심혈관도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파괴되면 그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System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친다. 1973년 아랍 제정파에 의해 수행된 스미라트 해전 공격은 이스라엘군 백크에 치대한 피해를 준 사례로 유명하다.

넷째가 출력이다. 출력자료를 손대는 것만 봐도 예를 들면 행정 전산망에 수록된 주민등록현황을 선거운동원들이 입수하여 사론하는 예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 단계가 통신이다. 서구의 많은 컴퓨터가 거의 다 단말 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범죄를 손쉽게 만들었고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부분인 것이다. 처음에 사례로 들었던 하노버 해커 사건도 바로 이 통신을 이용한 범죄였다.

4) 컴퓨터 System으로의 불법침입

데이터,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에 대한 불법 침입은 종종 정보 통신망이 발달되지 못하고,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어 컴퓨터 보안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때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전산망에 침입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영업정보를 누설 또는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데일 때 이르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83년에 모텔과 전화기를 가지고 도전적인 동기에서 국가 전산망에 도전하여 핵전쟁을 유발시킬뻔했다는 대론의 "War Games"라는 영화가 제각각 알려

된 이후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발을 꼬박 새워가며 불법침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작동기는 참난이었는지 모르나 결과는 엄청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운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5) 원 System의 보안문제

현재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은 대개의 경우 작업 효율성의 향상에만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결정적인 결함을 나타내곤 한다. 소위 사용자 위주 시스템(User Friendly System)은 정당한 사용자에게만 친절할 것이 아니고 불법침입자에게도 똑같이 친절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용자의 편의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때로는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생략하기도 한다. 또 임의분당 미비로 보안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너무 옳거나 너무 자명한 패스워드를 쓰기도 하며 오랜동안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기도 한다. 이제 정보시스템의 위험은 외국에서나 일어나는 강건너 불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6) 컴퓨터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

— 제리 슈나이더 사건

제리 슈나이더는 LA에서 큰 신발가게를 하는 부모사이에 자라나 10살 때 이미 자신의 전

자동선 시스템을 개발할 정도의 천재적 재능을 지녔다. 그는 1968년 해밀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Creative Syste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신의 발명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매일 등학교 길에 개시적 전화회사의 공급대리점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충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기술에 재능이 많은 이 젊은이는 그 대리점 밑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폐목적인 물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그 쓰레기통에서 거의 완벽한 형태의 개시적 전화회사의 개인서류를 가져게 되었고 고교를 졸업하고 산타모니카 대학과 UCLA에서 전자공학에 대한 야간부강의를 듣기 시작할 무렵 그는 위 전기회사에 대해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위 전기회사로부터 물품을 할당하기로 마음먹고 텍스틴 전기회사에 침투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파악하고 1971년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물건을 빼돌려 다시 포장하여 자신의 고

현재의 정보시스템은 작업 효율성의 향상에만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결정적인 결함이 나타나곤 한다

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제리는 제자가 시작하였다. 낮에 회사를 운영하고 밤에는 학교에 나가고 새벽에는 공급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 사실을 고용인에게 말하였다가 고용인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밀고 당하게 되었다. 경찰이 조사를 한 바로는 전화회사가 도둑맞은 장비는 약 74,000 달러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었다고 한다.

그는 위 사건후 상역 2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나와서 그의 경험을 모아 EDP Security라는 컴퓨터 보안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를 치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2. 컴퓨터 범죄의 방지대책

가. 감영내부적인 측면에서
(내부적 통제제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컴퓨터 범죄는 많은
성우 경영 내부의 자에 의해 범
하여 지고 있는 점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규모, 대상, 업무 내용
등에 따른 적절한 내부 통제제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컴퓨터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장
이상의 형태는 내부통제수단도
있었지만 아직 그 정도의 수준
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는 적
절한 인사조직관리, 컴퓨터 시스
템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Ac-
cess Control), KDP시스템 강
화제도의 도입 등 주변 통제수
단이 권장되고 있다.

나. 법집행적인 측면에서(법집
행기관의 강력하고도 철저한 대
처를 통해)

컴퓨터 범죄는 현존한 바와
같이 기술적인 컴퓨터 범죄의
경우 발각과 증명이 어려운 특
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암수가
많은 범죄이다. 범죄가 발각되었
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대한 지
식의 결여로 수사기관 또는 법
원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로 되
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선진 각국의 사례) 이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능력의 배양,
검찰관, 군판사 등 법관의 컴퓨
터 지식배양문제는 범죄의 극복
을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FBI, 서독의
Kriminalamt에서는 이미 양성
된 전문수사요원이 컴퓨터 범죄
의 단속에 힘쓰고 있다.

다. 입법적인 측면에서(법제
도의 정비를 통해서)

컴퓨터의 새로운 등장은 일단
과학기술을 예상하기 못했던 거
큰 법 체계에 많은 행위를 드러
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지
입법을 통한 적절한 대처방안은
컴퓨터 범죄 방지대책의 선결과
제라고 오늘날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1986년에 제정되고
1989년에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
램 보호법이 있어 저작권을 보
호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컴퓨터를 사용한 범죄
를 조직적으로 난국하는 법률은
없어 부속이 형법상의 강도, 횡
령,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에 의
존하여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국

세한 서지에 있다. 그러므로 컴
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
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해커는 본래 범죄를 목적으로
컴퓨터에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오른 및 남용할 경우 범죄행위
로 귀착될 우려가 많은 행위이
다. 우리 나라의 산업 및 공공기
관의 정보화 추세가 대단히 빠
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인 및 단체의 정보처리 시스
템은 당연히 강력하게 보호되어
려야만 하고 이러한 개인 또는
공공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커로부터 개인 또는 공공의
정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
가없이 남의 전자정보자료를 수
입, 이용, 안전보호, 관리와 해
임 및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전자정보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관
단한다.

또한 개인 또는 공공의 프라
이머시 침해 및 위중한 전자자
료를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 시스템 운영자는 전자상 보
호에 더욱 힘쓰고 불법침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
안대책을 강구하여 귀중한 정보
가 탈취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본문]

구타사고 근절에 관한 소고

광군 제3173부대/중령 남재운

1. 서 론

일반적으로 사적 재산을 포함한 구타행위를 폭력범죄라고 지칭하여 군 내부에서 문제시하는 이유는 구타행위 자체가 주로 사상의 전체 참패를 내용으로 하여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구성될 뿐만 아니라 군조직 특성상 구타행위가 자살이나 군무이탈, 충기강력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로 인하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여 군의 단결을 와해시켜 결국 전투력 저해요인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적 재산은 지휘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당이 은밀히 발생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부대생활에 대한 공포감, 실근자에 대한 증오와 불신감을 조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원망과 대군진피를 손상에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구타의 발생원인을 분

석하여 근절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국 사기진작과 단결을 강화하여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대군진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며 본고도 이러한 맥락에서 쓰게 된 것이다.

2. 구타사고 발생원인

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시미니즘』과 유·불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왔으나 조선 말엽부터 외래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일제 36년간 일본군국주의의 비민주적이며 전제적인 영향을 받았다. 8.15해방 이후에는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도입 등 자유화와 물질이 있었으며, 그후 6.25,

4.19, 5.16 등을 거치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문화이전 속에 한국인은 감수성이 강하고 형식과 체면을 중요시하며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핵가족화,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식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어 오늘의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질서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반발,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의 만연, 소비생활적인 여가활동의 추구, 한이한 생활태도와 정체감(identity)의 결여 등 가치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이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구타사고의 발생에도 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군조직의 특수성과 욕구불만

『매슬로우』(A.H. 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개인차도 있다. 그러나 굳은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조직된 특수집단으로서, 이러한 군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당히 합식적이고 충동성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며 계급에 의한 차별과 관계가 엄격한 점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신병에게는 생리적 또는 안전욕구 불만이 많고 고함병이나 화사관 또는 장교중에는 존경 또는 자아실현의 욕구 불만이 있게 된다. 이러한 욕구불만이 있는 경우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행동에는 도피, 공격, 패상(代償)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격(aggression)의 경우인데, 이는 대개 왜곡된 성격과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나 지나치게 외향적/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그 욕구의 충족이 좌절될 때 취하는 행동으로서 이때 대일 또는 대물 공격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욕구불만은 적당한 기회에 사적 세제나 구타 또는 고함병 횡포 등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결국 사고의 한 원인으로 되는 것이다.

다. 음 주

병영생활에 있어서 상·하 및 동료간의 갈등 또는 개인적인 고민 등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음주이다. 그러나 음주함으로써 경소 억제되었던 감정이 폭발하여 시도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고함병이 주범이 되는 음주를 할 때에는 하급자는 하급자대로 상급자는 상급자대로 불안에 쌓이게 되어 병렬하고 화목해야 할 내부생활이 골로 분위기로 전하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구타사고가 당시 음주 중 또는 음주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음주가 구타사고의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술이 취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져온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의력의 태만, 이해력의 불발, 기억력 감퇴, 추상(退想) 상태를 초래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술에 취한자는 그 사고가 현명하게 되고 자기비판력이 결여되며, 특히 감정과 의사 측면에서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분은 망양(癡陽)되고 혼란하여 억제력이 결여되 의사보다 행동이 앞서는 초기행동이 용이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순간적 감정의 폭발로 인하여 격렬적인 또는 고의없는 구타 행위가 발생

하기 쉬운 것이다. 더군다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의 전통적인 사회풍조에 있어 술취하여 행위를 꾸리는 자를 자제도 구타사고 발생에 일조(一助)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실패, 동료간에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문제는 적당량을 넘기는 음주에 있는 것이다.

라. 청년기의 특징

병, 단기화사. 또는 조급장교들은 연령적으로 보아 대부분 사춘기 후기 또는 청년기에 해당한다. 청년기에 크게 나타나는 정서는 불안, 고민, 호기심 등인데, 이중 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안과 고민이다.

또한 청년기에는 아동기, 일년기에 비하여 현저히 고민하고 충동이 심하며 충분하기 쉽다. 청년기에는 감정을 말하며 자신을 영혼서하거나 명동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또한 욕구가 어떠한 상태를 받고 있을 때 불쾌감을 즉각 나타내기도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물론 정서에는 개인차가 있으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릇된 영웅심리가 사적 세제나 구타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 격렬성과 반항성 등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청년기의 정서적인 특징은 군에 있어서도 구타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 부대내적 요인

폭력범죄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적 재산과 고장병 차량, 구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군에 있어서 폭력범죄 중 구타 문제가 가장 많고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일일만큼 그 원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대내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부대내적 요인은 훈련소/장교 양성과정에서의 요인과 실무 부대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훈련소/장교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훈련소에서는 입영하자마자 입영장정이 군의 실정을 잘 모른다는 점과 군대한 사적 재산 내지 구타가 당연의 귀결된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사회의 특성을 함양·인식하여 군인정신의 주입과 기본훈련의 조기숙달을 위해 일차려라는 이름 아래 사적 재산 내지 구타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인격 및 자질상의 결여가 있는 교관이나 초급들의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 신병들은 교관들이나 기강병들의 행동과 지시의 시비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좇아 행해야 하는 형편이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사적 재산에 행하여지고 일부 징부는 사적 재산을 조강 또는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권력의 정형에 의하면 일반사회적 사고방식을 일소하고 군인정신을 주입시킨다는 명목으로 비인도적인 방법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이것이 달연하게 받아 들어지고 있다.

다음 실무부대 요인으로는 실존의 과도한 권위주의와 권력남용, 자나한 능동화의 추구, 질박의 연쇄작용, 초급지휘관이나 하사관들의 수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명령과 복종을 생략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이 가미되어 공사(公私)의 구분을 모르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초급지휘관이나, 하사관들은 자신들이 피교육과정에서 받았던 사적 제재나 폭력 등을 그대로 제하 병사들에게 실시하기도 하는 데 학력, 연령, 지식, 인격 등에서 하급자보다도 열등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정이 개입되기도 한다.

내무생활에 있어서도 후보 일

과 후에는 탈직사관 1명만 남은 경우가 등장이며 내부반장이 생활을 지도하게 되는데 내부반장은 형내 거주하는 하사, 또는 말장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로 학력이 낮거나 경력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행할지도를 하지 못하고 사적 제재에 의존하게 되는데, 장교 또한 격투와 부대 내에 있다는 파분한 감정으로 병사들의 불만에 등한해치는 수가 많다. 또한 커근마 엄화리와 사적 재산의 구분은 모호하여 군인정신이 해이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나 부대 굿기위반에 처속되었을 때 일등에 의한 방법보다 일차려에 의한 방법이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차려를 일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에 상급자의 수장부족으로 도가 지나치고 감정이 개입되는 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바. 피해자 요인

구타에 있어서 피해자 요인은 근년에 이르러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인데 이를 통해 피해자측의 책임 하임을 분석하고 이를 구타사고의 예방책에 응용하는 피해 가해자 즉 구타자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양정기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요인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특질 또는 특성에 관한 분석인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측의 유형분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멘델손』(Benjamin Mendelsohn)의 방법에 의하면 (1)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 (2)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3) 가해자의 동등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4) 가해자보다 책임이 더 많은 피해자 (5) 구타 책임이 많은 피해자(가해자적 피해자) (6) 지방적(欺瞞的) 피해자 (7) 환상적(幻想的) 피해자(피해 형질중에 의한 호소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레클레스』(W. C. Reckless)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증대한 도발을 한 결과로 범죄가 발생하였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두 가지 모델을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는 가해자-피해자 모델(the door-victim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해자 모델(the victim-

door model)로서 전자를 순수한 피해자, 후자를 도발한 피해자와 부를 수 있다.

그러면 폭력범죄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요인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일반사회에서 폭력범죄 발생에는 피해자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약간의 연구도 있다.

굳이 있어도 피해자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결론에 의하면 주로 지시에 대한 피해자의 불응, 내주생활에서 피해자의 이기적, 개인적인 행동, 언어 및 태도의 무례함, 피해자의 근무상태 불량 등이 그 요인으로 이로 인한 가해자의 교양욕과 재지 화물이의 구타가 존재하리라 본다. 다만 이상과 같은 피해자 요인은 궁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폭력범죄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굳이 있어서의 구타는 그 상당부분이 피해자-가해자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며 『멘델손』에 의한 피해자 유형중에는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동등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3. 구타사고 근절대책

가. 사전대책

(1) 정신교육의 강화

구타사고 발생의 근저에는 대외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폭력에 호소하는 일대상태가 온연중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타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정신교육의 강화가 제1차적 과제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신교육이란 단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란 점에서 교육의 실사에 단점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교육은 중요성이 큰 만큼 이의 실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신교육이란 결국 상벌물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범사회성 또는 비윤리성을 어떻게 하면 확고하게 인식하도록 하느냐 하는 점과 이러한 반사회성과 비윤리성을 갖는 폭력행위를 치하고 법과 윤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윤리적 신의(善意) 즉 선행위 의무의식(善行爲 義務意識)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점에 향하여 있는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법과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과 윤리에 관한 판단능력을 높여야 하고, 후자의 선행위 의무의식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와 종교적 차원에서 느껴지는 것이므로 종교를 갖도록 권장하는 것이 일책(一策)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사명 선도는 선형적인 차원에서

지휘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충교령함을 명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신교육은 사병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교와 하사관들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많은 장병을 상대로 하는 특강 형식, 단위부대급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형식을 취하고 지휘관, 참모장교, 군종장교, 법무장교, 직명 인사들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 철저한 신상과악

범죄예방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각을 잘래 범죄를 자행할 우려가 있는 추방자, 즉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여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휘관은 부대원래 대한 산상을 잘게히 파악하여 할 선도함으로써 부대 내에서 발생할 폭력범죄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미 소부대 지휘관들은 부하들에 대한 산단 들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상과악을 하여 부대를 지휘하고 있으나 과장적이고 형식에 그치는 경주가 많다. 따라서 폭력범죄의 예방이때는 측면에서 볼 때 범죄화상 중요시되는 일적, 환경상의 세요인

에 관한 다 개인적 상황을 자 방법으로 널리 조사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범죄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는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휘관들에게 신상과악에 관한 기초이론, 신상과악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교육하여 효과적인 신상과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속적인 생활지도

군대는 그 구상원인 병사들이 범의의무를 바지기 위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징집(모병)되어 근무하는 곳이고 계급에 의한 절대적인 명령 복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바질이 일어나고 이것이 폭력범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병사들에게 특히 내부생활에 있어서 적절한 지도를 한다면 폭력범죄 예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병사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주로 고참병과 신병과의 관계문제를 비롯한 대부분 부조리와 관계되는 것이며 이는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먼저 고참병에 대한 생활지도는 사적 제세 들 폭력의 행사가 대부분의 분위기와 단결을 지해하는 요인임을 인식시키고 자질이 신병지침에 괴로웠던 일을 살기시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신병에게 식기제

제, 총기손실, 전우와 손질, 잔물질등, 물집법, 동소근부, 세박 등 자기가 할 일을 신병에게 지키는 행위를 엄금하며 고참병으로서 군지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교정 폭력적 구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설치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타(스승의 "사랑의 매")에 대하여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반반의 여론이 있고, 문교부에서는 사회적인 풍의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학원적인 금지령을 한 바 있는데, 군에 있어서 교정폭력의 구타는 병사들로 하여금 주체성을 잃게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신병에 대한 생활지도는 많은 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발견되며 이는 주로 신병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하급자의 공은 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언행,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아니하는 등 특히 신병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도록 한다.

(4) 욕구불만 해소

군에 있어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욕구불만이 있게 된다. 병사들에게는 주로 생미적 또는 안전의 욕구불만이 많고 고참병이나 하사관 장교 중에는 존경 또는 자아실현의 욕구불만이 많다. 대부분의 병사들이나 초급장교들은 연령으로 모아 정년기에 해당하며 그 정서에 격렬성, 반발성 등의 특질이 있음

은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유시간을 주고 자의적 활동을 권장하여, 오락, 전향과요/군가보급, 단배깅기와 운동 등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과거에는 병사들에게 휴식이나 자유시간을 주고 오락을 실시하는 것은 글씨가 배이해져서 부대지휘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서 충분한 휴식은 다음 임무수행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 것이므로 자유시간을 통한 종교, 사색, 독서, 취미, 운동, 대화 등의 활동은 병사들로 하여금 군생활을 유익하게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이며 많은 인원이 관식되어 있고 봉원하여 소회되고 운동수 있는 오락이나 단배깅기, 군무(하술) 등을 보급하여 욕구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상급자와 동료사과의 귀화감도 배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적절한 음주통제

음주는 군에서의 폭력범죄 발생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주통제는 폭력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음주는 부대원들의 욕구불만 해소책이 될 수 있고 일제감을 조성하여 사기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시킬 수는 없고 부대사정에 따라 적절히 통

제하여야 한다.

즉, 음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장의 감독과 책임하에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생인적인 음주는 금지한다. 감독자는 사전에 주량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적당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교육을 통하여 상·하간의 예절을 더욱 지키게 하여 주취 사관들에게 물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은 감독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병사들이 음주 중 또는 음주한 후에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좋고 지휘관 자신이 음주하였을 때에도 역시 같다. 다만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지킴으로써 하고 음주하는



동안에는 질서의 긴장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벽이 있는 형사에게는 급주령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들은 눈을 피해야면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불태 음주하는 형사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6) 후견인 제도

현재 각부대에서는 전입신병으로 하여금 빠른 기간 안에 부대 적응을 하여 병영생활의 열화와 부대단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전입신병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후견인은 부대 내 상병급의 우수사병 중에서 개인 적성 및 특기를 파악하고 출신지 및 현재 거주지를 고려하여 중장, 중대(同內) 등 연고자를 지휘관이 임명하고 부대직을, 관할, 토지의 3단계로 나누어 전입병의 부대원격 적응에 노력하도록 배인지도하여 고민, 불안, 고향말에 대한 위압감 등을 발견, 해소하여 입대전 가정환경, 생활과정, 성격, 애로사항을 파악 시도 및 보고하여 내부생활에서 부대원과 친밀한 융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수입무로 하고 있다.

후견인 제도는 잘 활용하면 신병으로 하여금 빠른 기간 안에 부대적응을 하여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사적 제재 특히 고장병의 원인에 의한 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견인 제도는 폭력범죄의 예방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후대책

(1) 철저한 색출

일단 구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타내용과 구타자를 철저히 색출하여야 한다. 군에 입어서의 폭력범죄 특히 사적 제재나 고장병의 원인에 의한 폭력범죄는 지휘관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보복을 두려워하여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처분을 하기 위한 철저한 색출이 필요하다.

폭력범죄와 색출은 수사기관, 지휘관(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대원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무부대 지휘관(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원래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색출은 곧 범죄 수사적 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범죄자에 의한 새 범죄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범죄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법의 실효성의 확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크기보다는 범죄자를 인지, 검거, 처벌하는 능률의 크기 즉 과정의 확실성을 얼마나 높이 고양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부대 지휘관(자)들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폭력범죄 범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각되고야 만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색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폭력범죄 발생의 장후를 방지 위하여는 항상 새싹한 관찰과 감독을 하여야 하며 내부반의 분위기나 개인의 표정을 보고, 또는 수시로 일동집사를 통하여 애간 또는 신질 색출해 낼 수도 있다. 또한 면담이나 소원수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폭력범죄 발생 위험시간에 상관의 눈이 잘 가지않는 장소(내무반, 세면장, 휴전장, 취사장, 변소, 초소부근)에의 순찰을 강화하며 동료 및 다른 내부반원을 통한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망과 밀착된 하사관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2) 엄중한 처벌

폭력범죄자는 죄도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자로 하여금 재발을 할 수 없도록 한 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범죄자에 대하여 일한 처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나친 관용은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폭력범죄자는 집권구속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

사기관에서는 범행동기, 피해정도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통하여 범소의 소행과 실각, 동료사이의 필가 등 정황사실(情狀事實)을 수집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하며, 검찰관의 사건경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지휘관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보복행위 근절

기해자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게되면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주로 고참병의 횡포나 사적 제계에 의한 폭력범죄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에 의한 고통이 기운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심리적 고충까지 더 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폭력범죄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범죄를 일소하기 위하여서는 폭력범죄자에 의한 보복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먼저 폭력범죄자로 하여금 보복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폭력범죄자에 엄중한 처벌을 하여 무대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타부대로 전출조치를 취한다. 다만 타부대로의 전출조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자 자신이나 기존부대원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폭력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범죄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가해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지휘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5. 결 론

이상으로 군에 있어서의 구타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군에 있어서의 구타사고는 그

차례로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범죄들의 주체성을 침해하여 그로 인하여 더 무거운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범죄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거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또한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군에 있어서의 폭력범죄는 온밀한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많고 지휘관들이 보고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통제에 의한 폭력범죄의 분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더구나 표본조사 등을 행하지 못함에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폭력범죄를 일소방안을 연구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문**

장병을 위한 법률상담

《공군본부 법무감실 제공》

문1: 제 친구는 단기사병인데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에 하루 절근을 해버리고 처벌이 두려워서 다음 주일에 술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를 권해도 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조언하는 게 좋을까요?

답1: 하루 이틀 절근했다고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술을 지내겠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한 주달 이발했어도 자수하고 복무하겠다고 하면 대개 집행유예 등으로 재복무의 기회를 주어 엄청난 벌액절차가 되도록 합니다. 나아가 몇 달, 몇 년을 이발했어도 자수하면 형을 감경해 주므로 자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술을 지내면 절제 취지도 못하고 병장 때에 고할에도 못가며,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자녀의 국민학교 취학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발 후 수십 년이 경과해도 멸명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니 군우 이발과는 이발 기간이 길든 짧은 자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2: 군내 생활에 적응을 느껴 의무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전보를 쳐도록 하여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답2: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41조 2항의 군무 기피 목적의 사술죄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군우 이발죄와 함께 군대에서 중요한 범죄로 엄히 처벌합니다. 죄권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문3: 저는 비행단 후문을 지키는 초병입니다. 어떤 장교가 밤 늦게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채 동선자 장교숙소에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기에 안 된다고 완강히 막았더니 자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구타가 끝나고 그 택시는 끝내 후문 안에 못들어왔습니다. 그 장교를 제가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3: 군형법은 초병 즉행죄에 대하여 일반 폭행과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은 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장교는 기초만 되었다 하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중 어느 것을 받든간에 미증명으로 불명예 재대를 해야 될 형판입니다. 한편 그 장교를 기소유예하고 징계한 후 계속 복무를 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병즉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귀하는 초병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병을 즉행하는 자는 다른 병을 즉행하는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므로 초병은 다른 병보다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4 : 항공기에서 기름을 빼어다가 난로에 주입하여 그것을 작동시키라는 지숙상관의 명령을 거부 하였을 경우 항명죄에 해당하는가요?

답4 : 항명죄에 있어서 상관의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에 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난방에 쓸 목적으로 항공기에서 기름을 유출 하는 것은 군용물 절도죄를 구성하는 범죄 행위이고 위 명령을 발하는 상관의 권한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에는 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 해도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5 : 현역 군인이 집행유예 신고를 받은 경우 군인 신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요?

답5 : 군무원 또는 하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 확정되면 제적되나, 현역병이 집행유예를 신고한으면 이동병으로 감동되어 계속 복무하게 됩니다.

문6 : 제가 하급자에게 못마땅한 게 있어서 전화로 욕설을 했더니 그도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양자의 처벌관계가 어떨지요?

답6 : 전화 통화상의 욕설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므로 상급자는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으나 하급자는 공연성 유무에 관계없이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문7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군복무기간 동안에만 미치는가요?

답7 : 유죄판결의 효력은 군복무기간 동안에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을 받은 자가 전역한 후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어 그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즉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관할 경찰부에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판결을 받은 자의 본적지인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되며, 관공서나 국영 기업체에 취직이 제한되고, 각종 혜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외국여행이나 유학이 제한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문8 : 현재 공군 사관학교에서 이발사로 근무하는 고졸 군무원인 경우 퇴근 후에 민간 이발소에서 일 할 수 있는지요?

답9 : 공군 규정 40-1 161조, 국가 공무원법 제 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 26조,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와 같은 경우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풋내기의 새 아침

공군 제313 비행대/일병 이원천



오늘도 어김없이 불침번 발번의 소곤거림에 눈을 떴다. 어제의 피로가 가지지 않은 탓인지 어둠이 익숙지가 않다. 조심조심 눈을 열어놓고 근무처로 향하는 중에 바라본 하늘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었다.

하늘과 별, 입대 이전부터 난 이 두 낱말을 무척이나 즐겨쓰고 사랑했다. 윤동주님의 시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남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도 아니었지만, 내가 사랑한 별과 하늘은 항상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지친 삶에서의 여휴로움이랄까? 하여튼 만지르 달린 대도시에선 거의 사라진 별을 보기 위해 주말이면 가끔씩 시외로 나가 보곤 했다.

입대 당시의 기분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려 글을 쓰면서 밤은 꿀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작가적 재질을 타고난 사람일지 틀림없다. 만감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82년 10월 5일에 전주 항공병학교에 입교했다. 이제까지의 생활양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의 첫날밤에도 별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6주간의 바빠진 일일 동안 우리는 변화해 왔다. '나'를 알세우기 이전에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우리'를 알세우기 전에 '조국'을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줄다름은 생각에서 일순간에 모두 큰 세계로 나아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은 않았다. 우선

육체적으로 팔이는 피로 덕분에 취침과 동시에 우리는 잠진없이 잠에 빠져들어 갔다. 믿지 많은 연방캠프에서의 훈련으로 입단에는 보배가 가득했고 벌어지는 밤발출로 '안경은 재기능을 못했다. 산더미에 있는 전술장과 자격장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다. 함께 모르게 내려오는 '새 마리의 꿈'에 대한 전설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만 했다. 처음 잡아 보는 총은 무겁기만 하고 우리들의 배는 반죽할 때가 없었다. 가끔씩 있는 회식 때에는 사회에서 별 생각없이 먹던 초코파이 하나가 커다란 의미로 느껴졌다.

외소하는 날은 마의 세대하는 날처럼 미날 즐거움 뿐이고 어려웠던 일을 무사히 끝마쳤다는 안도감과 그라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많은 것들 중에 하늘과 별은 역시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 연방캠프에 누워서 바라본 맑은 하늘과 전술장에서 본 보름달과 별들은 별천 비보를 한순간에 가시도록 해주고 새로운 의욕을 북돋아 주기에 충분했다.

짧은 휴가를 끝마치고 학교를 통해 거듭난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 필요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특기교육을 받게 됐다. 나에게는 통교에서 최상의 교육조건을 위해 예비 주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해당 반 동안에 전자 기초과정과 전산장비장비 초급과정을 커다란 어려움없이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인 군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자대배치를 남긴 상태는 꼭 침대를 찢은 기분이었
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으로 기차
에서 본 바깥 풍경이 눈 앞을 스쳐가도 별 느낌이
오질 않았다. 천하게 지내던 농기를,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향로 때 내뿜는 풍기를 보습이
라니, 훌쩍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자대에 도착한 토요일 오후, '이제는 정말 혼자이
구나'하는 생각으로 꽤 차 있었다. 한 마디로 오르
는 것 두절이었다. 사선을 어디에 둘지, 어디로 어
떻게 가야 할지 행을 하나하나가 신경쓰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완전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날 무
렵 남은 군생활을 보낼 근무지에 배치를 받았다.

어느 전투체육 시간에 비가 내리 진흙탕이 되어
버린 연병장에서 흙이 얼방진탕이 되든 달든 빗물
이 채린화를 달치는 땅은 개미처럼 밟고 축구공을
광평 차질었다. 그날 비록 축구에서는 질지만 영방
이 되버린 채린복을 땀머 고찰들이 두려움만의 대
상이 아닌 새로운 무라라는 개념으로 다가올을 느
낄 수 있었다.

이제 자대에 온지 몇 달 되지않는 백영이리 신
참이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근무지 상소를 마친 후 바라본 하늘은 어느새
아침을 알려듯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
을 받으며 향하는 내무반에는 지난 토요일에 온
신병들이 아마도 한참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

비 상 (飛 上)

표준 제5718번대 발명/차재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죽음을 접하게 된다.
배상이 무엇이든간에 당사자에게는 크나 큰 불행
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
는, 마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생

명에게게 누가 그의 작은 삶에 공간을 허여 위로
의 독배를 해줄 수 있을까.

며칠 전, 함주로에서 종달새 두 마리가 새알되었
다. 송달이 군대군에 돌아 태어난지 얼마 안되보이

는 어린 새끼였다. 불행히도 환주로 철소 때 눈썹
떨어지기까지 오세 된 것 같다. 환주로에 그냥 두
면 캄캄기 이따라서 발레가 될 아버지가 되니까
둘러보낼 수도 없고 뭐 당감했다. 한질 어미 품에
서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자랄 때인데... 우
리는 그 역할을 하기엔 시간과 지식이 부족했지만
어쨌든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 두 마리의 귀
여를 종달새에게 무엇인가 해야만 했다.

우선 상으로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고 빈 파으
로 바람을 막아 주었다. 작은 지렁이는 팔로 썩어
먹기 좋게 잘라 부리 모양과 가장 흡사한 편썩으
로 입에 넣어 주었다. 복을 복 빼고 까미를 벌여
먹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가까이 살펴 보기는
자유이었다.

그래서 이 생동감있는 두 생명체에게 주려는 전
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름을 지어 주려고 생각
까지 하게 되었다. '천이와 미해', '조던과 리면'(호
프로 농구선수들)등 각각 각색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결국 결정을 못하고 망했다. 앉수의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매일 지렁이화
물을 주며 어서 빨리 털어지라 날아 다닐 수 있거
를 하수 고대했다.

그렇게 사흘이 흐른 뒤 아침, 그날도 지렁이를
잡아 깨끗이 씻은 뒤 이형준 수리 꼬마 새들을 찾
아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마리 모두 비실비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까지도 발
달하던 녀석들이 깨임을 입가에 갖다 주어도 부리
를 안땀리고 몸을 죽 늘어뜨린 채 업느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얼마하는 생각에 계속 지
켜보았지만, 역시 우린 어디새가 될 수 없었다.

죽 늘어진 어린 종달새 두 마리를 들어 화살기
로 골게 찌르고 새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삼일 두어 번, 종달새의만
같은 넓은 공간이 생겼다. 두 손으로 갈라 조일스레
안치하고 술을 흠을 뿌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
고 전디가 물어 있는 흙더미를 위에 덮었다. 그 위
에 작은 기주라기로 형은 작은 실지개를 찾아 주
었다.

이모에 끝났다. 어린 종달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 그 순간 생명을 잃었다. 등치도 편뽕도, 모아들
음도... 어린 새와 함께 그들의 존재 기지도 묻혀
버린 것이다.

두 생명의 죽음에서 느껴지는 허탈감이 우리를
침묵 속으로 빠뜨렸다. 차디찬 땅 속에 날개 한 번
세대로 펴보지 못하고 묻혀진 우리의 모마들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떠나갔다. 비록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는 없었지
만 행동 하나 하나에 생존과 삶에 대한 애착을 보
여준 녀석들. 영원히 날개를 달아 가고 싶은 곳 어
디까지나 날아 가거라!



위인들의 일화

1. 어떤 청년이 감옥에서 나온 청년 이강재 선생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청년은 그 청년을 좋끄러미 쳐다보더니 단호히 말했다. “그런 자라는 옥에서 초장을 하고 있나?”

2. 상키스칸은 아홉 살 때에 재이 정치인의 대필사위가 되어 그의 아버지 에스케이와 함께 처가로 갔다. 어려서부터 통글하기 이를 데 없는 상키스칸에게도 무시권하는 것이 있었던 모양으로 그의 부친은 사돈에게 작별인사를 곁에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는 다른 집에 있어서는 적당할 것이 없으니 단 한가지 것(大)만은 용서 주려위하나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요.”

3. 뉴우턴은 소년시절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를 할 때면 밤에서 두는 짓을 해도 불랐다. 언젠가 뉴우턴이 수학 공부를 끝두할 때, 친구 하나가 뉴우턴의 점심을 먹고 뉴우턴의 하는 꼴을 보고 있었다. 공부를 끝낸 뉴우턴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 빈 그릇만 남아 있어. 그는 “하, 이것정 공부에 점심이 팔려 아까 점심을 먹고 또 먹으려 하네”라고 중얼거보니 점심을 훔쳐 먹은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어 “아, 이 멍청아! 그 밥은 내가 먹었어.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하고 말하자, “어떻게 방금전에 먹었는 때도 내가 너무 빨리 고르더라나.”

4. 베르넨은 1815년부터 완전히 커가 없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일체 없단으로 밤엔 할 수 없었다. 1824년 5월 7일 일장을 접들던 교향곡(교향곡 제9번)을 작곡했을 때, 그에게 비수 강제를 치루은 방장의 대소동조차 그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여자 가수 하나가 그의 손을 이끌어 발코니 쪽으로 옮겨 새원을 바라하 비로소 그들이 모자를 던지고 순백을 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5. 케르나르도 다빈치는 지기만 보기 위해서 쓰는 글은 대개 다 그 글씨를 개꾸로 뒤집어 썼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읽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쳐 봐야만 했다.

6. 셰익스피어가 어느날 자기 작품 중 왕의 죽음 받고 직접 출연한 일이 있었다. 그 공연에는 엘리자베드 여왕도 밍지 많은 궁에서 있었다. 여왕은 셰익스피어를 단정하게 안들리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연히 것처럼 손수건을 부대 뒤 셰익스피어를 바로 밍지 물어드렸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우연 “여왕아!” 하고 실대어를 부른 다음, 이렇게 대사 아닐 대사를 밍했다. “그대는 침의 밍발을 밍하기 전에 먼저 이 손수건을 주워 여왕 쪽으로 드려라.” 여왕은 셰익스피어의 침착함에 매우 감탄하였다.

마음의 샘

- T-BIRD여, 영원하라
- 천작일식
- 명산을 찾아서
- 세월유한

T-BIRD여 영원하라



공군 제208 부대 대위/손중구

만세기 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평야한 작전 비행장에 그 등장함이 듯 항공기에 비길 바 없는 하늘의 명장이가 등장하고 있었다. 정찰을 한 노련 무기팔에 작렬하는 대포와 함께 Tail Pipe에서 뿜어 내는 열기는 우리의 숨을 죽이게 했고, 빨간 머플러의 주먹된 손에 엄지 손가락을 피세 하며 모두의 탄성을 작아내게 현을 자극하리라!

최상에 전투기로 하늘을 주름 잡았던 T-Bird가 하늘의 조인을 단칼에 파는 어머니 격함을 충분히 배내었음은 모든 조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서서히 그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으니 어찌 애몽하지 아니하리!

1987년 초여름 제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중등훈련 비행과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드래비”로 통했던 무기무식한 분위기, “사친의 편입”으로 불리는 T-33 한참 출려다 봐야 그 작대기를 볼 수 있었고 놓여 있는 사다리는 하늘과 연결된 듯 높아만 보였다.

첫 대면하는 ‘그’를 주렁주렁 둘러싸는 마음을 안고 대면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는듯 바라보는 그 초연함에 아연실색했다. 수백 계단을 넘고 또 넘어서야 드디어 한 배양되고 걸돈된 계기관이 수놓아진 조형식 안을 보았을 때 또 한 번 한성이고야 말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계기는 “참소 눈열” 후세계 온몸 걸은 역행을 한 그 모습은 사나이의 계기 넘치고 강렬한 모습 그 자체였다.

첫 손님을 태운 그는 마치 “허권”의 주인공처럼 이미 벼를 저미 벼를. 이렇게 Taxing이 어마를 줄이아 저축을 본뜬어 놓는 듯한 요란한 경음소리와 함께 날아 오르는 그는 마치 검주론 실패를 주름잡는 상어와 같았다. Sick에 매어있는 수많은 선배들의 방과 칠열을 내 손으로 움켜잡고 수평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나비처럼 날개를 흔들며 날아갔고—

조국 산하의 땅과 하늘 내음을 마음껏 맡아왔던 그는 끝없이 올라오는 구름과 거센 바람을 건디비 윤택히 내 마음 속의 세계를 지배했었다.

하늘로 솟구치면서 세상을 거꾸로 보았다 바로 보았다 할 수 전 번, 그는 내게 인생의 답안을 가르쳐 주었다.

서무은 조카에 아주 불경험이 험하게 솟구치면서 학원에서 평론의 새빛 클로버를 그려주던 그는 "괴롭고 무거운 짐 반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이라도 하는 듯 있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Nose의 두명

을 열어 내부를 볼 때면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그동안 전투대대에서 배운 기량으로 푸른 하늘에서 잘 사관이 보려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뿐...

후방의 교관의 호응소리, 전방의 학생의 "Roger" 소리를 위대한 복 이제 사라지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그는 비록 사라져 가지만 그의 혼은 함께 땀만 수 많은 일념의 조연들 가슴 속과 조국 산하에 길이 푸리 새싹을 맺는다. **END**



천직의식

꿈이 꾸리는 20대 초반 남자라면 육·해·공군 중 어느 군에서 복무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또한 신체검사를 면기하고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찍 군 복무를 마치고 새롭게 사회 진출을 할 것인가의 방법임도 있다.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장엄한 군대의 상징인 해병대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장교로서 위용을 뽐내고 싶은 욕망도 들뜬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동료, 선배, 친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하사관으로 입대하면 야간대학도 갈 수 있고, 의무복무를 하면서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 주른 세 복이 맺어 보이기도 해 과연만 타의만으로 입대를 한다.

직업이란 生計의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보통 생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서 생업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 직업이란 교환을 통한 사회참여를 동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화폐경제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자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누구든 사회적 기능의 일부분을 분담해야만 하며 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 댓가(代價)로서 화폐를 획득하고 그것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여 생활해야 한다.

군인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 비상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존재한다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하여 우리들은 체계적인 교육, 반복적인 연습, 끊임없는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무철한 직업의식과 법밖출의 보람만이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미국의 BLUE ANGELS는 푸른 칼공을 짜치고 하늘로 온갖같이 솟아오르는 하얀 줄무늬, 아찔한 곡예로 우리들에게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한다. 그들이 퍼와 떨어 댄 조종간을 잡으며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조종사로서 꿈을 갖고 입대하게 나도 영화나 매스

국군 제5197부대/참사 김진석

업종 통해 본 공군의 진정한 이미지에 대표되어 공군 하사관으로서 입대하였으며, 내가 한 선택에 한치의 후회도 없이 모든 일에 긍정적일 사고 방식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하사관 중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받은 상사도 여러 명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보면 우리 하사관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지휘권을 가진 부대의 관리자는 주변 참모와 사명을 대표하는 부대의 주임상사의 앞장된 의견을 저울질할 때 과연 어느 곳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또한 30년 이상의 군생활을 바탕으로 한 군사관의 경험과, 전문을 지휘관리하는 데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을까? 사명을 대표하는 주임상사의 의견이 지휘관리자에게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무사안일에서 탈피하여 과감한행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정년해 결별 의식을 한 후 하사관으로 다시 새로운 군 생활을 출발한 미군 장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군인으로서 직업의식과 한바탕 비교해 볼지하다.

일반적으로 하사관들의 전역 동기는 인간 동료들과의 임금격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하사관들의 아내들은 바쁜의 임금으로도 모래여 잘바라지하면 자녀를 키우는기 때문에 부업이나 직장을 가지려고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하사관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확립되어 주체적인 삶을 명백해 나가고 있다.

솔직히 하사관들 중에는 학창시절 남들보다 공부를 게을리 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한편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을 못하여 열등의식을 가진 자도 있었을 것이며, 일찍 군입대에 얼마만큼의 욕망을 겪고 천직하여 사회기반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군복무를 하면서 뜻대한 공부를 하려고 야간대학 입학도 생각하지만 군이라는 특수성과 근무여건상 전모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입대

당사부터 직업군인이 되겠다고 확고한 직업관을 갖고 입대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으나 자기 자신의 특성에 맞는 특기를 발음으로서 군생활에 흥미를 갖고 나아가서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을 계속전은 자도 있을 것이다.

인격적인 태도와 철저한행동이 이루어질 때 직장은 자기실현의 장(場)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신의 평생 반역(反逆)으로서의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자신의 능력, 사회적 가치, 심리적 만족 등을 고려해야 천직(天職)으로서 소중히 여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가 요구하는 충실성이란 카탈레시의 화목과 근무처에서의 안락한 대우가 충족될 때 참로 우리 리 나오며 경제적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회사도 세 손이 깨끗해야만 남을 숭상할 수 있듯이 내 직성부터 정연해야 직업군인으로서 군이라는 큰 배에 승승한 우리 하사관들은 보다 멀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민**



명산을 찾아서



공공전투발전단/5급 이동선

우리 나라는 휴난지도 작은 산들이 많아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산의 형세를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산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형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다. 즉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과 더불어 즐기면서 생활하는가 하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파괴적인 행위를 도처에서 일으키기도 한다.

일찍이 노자는 “인간은 땅을 본받고, 말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해 나가면서 그 오묘한 조화 속에서 만물이 다투지 아니하고 조화를 계속 이루고 있는 화계(和界)의 정신을 배울 수 있고, 무궁한 변화를 연출해 내는 자연 안에서 고착되지 아니한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으며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생의 기쁨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국토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이지만 수천 수천 개의 산중에서 50~60여 개의 산들만 명산이라하여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어느 산이 명산이요, 어느 산이 이름없는 산인가. 사람들은 산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 산 이름인가. 잘 알려진 유명세나, 인기인가. 산의 산세가 수려해서인가. 그러면 산세의 수려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만물의 열정’이라는 인간을 자연이 갖고 있는 건지함과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고한 감정을 갖게 된다. 주 예도는 모든 착하고, 혹은 아는 착하고, 혹은 무시하고, 또는 친절하고, 겸손하기도 하면서 아버지하고, 시시각각 변화가 심한 것이 인간이라고 본다. 그런 반면에 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으며 계절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갈아 입으면서 인간을 맞는다.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며 산을 애어자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한가게 인간들 내려다 본다.

산을 이루고 있는 집무인 바위의 형상 또한 인간의 생활상을 더욱 잘 대변해 주기도 한다. 바위는 커다란 산 속에서 일대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

어 세상을 바라보다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알으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하고 때로는 안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의 변화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또 다른 시련과 험난한 시험의 길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이들이 모두가 겪는 힘든 역경은 경험과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포기하게 하기도 하는, 깊은 현상을 연출하면서 커다란 비워가 작은 돌이듯 인간생활을 나타내기도하고 끝이론 한을 풀기라도 하듯 슬픔을 잠재하여 잔의 황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산은 여러모로써 다양함을 천출함이 출중하여 인간의 고귀를 표현하기도 하고, 유망과 욕심에 일목지는 인간들의 어두운마음을 깨우치기라도 하듯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눈이 자갈이 되고, 잔눈이 되고, 모래가 되고 또 부서져서 강물에 흘러가는 한강의 새와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수하고 훌륭한 명석이 되어 모른이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늘 자애로움을 나타내고 인간의 고귀를 벗어주는 시련하고 살얼한 생기와 기운을 주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근엄함은 산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신비미 힘이다. 산을 보면 감탄스럽고 어라우면서 고마우면서도 두려움, 인간이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 백함이 일으니, 이 모든 것이 산만이 갖는 특징인 것이다. 그러나 이 어찌 병산만 산이요, 유명산만 산일까. 이름없는 산도 있고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동산도 있으니, 병산이라고 비난할 것 없이 오르내려 배치가 되게 하고 인간의 존격에 몸살을 앓게하는 요즘의 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유명산을 찾는 발길이 끊어졌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은 진실로 보잘것 없는 산은 아니로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쉽게 생활하는 계단이 돌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속심은 초연히 재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름없는 산들을 치면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도 이름이 있고 이것들도 알고 보면 명산이며 인생의 교훈을 주는 길잡이와 생다하며는데

이제 조용하고 착지만 아름다운 아이기를 갖고 있는 작은 산을 찾아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바를 속으로 계획했던 구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출장장을 보고자 작은 산이 있는 이곳을 찾았다. 이곳은 서울에서 동북쪽 경춘국도를 따라 2시간을 가면 나타나는 북한산과 조종원이 합류하는 지역이다. 바도 앞에는 청평댐이 보이다. 청평유내로 난 그 길을 따라 언덕을 넘으면 다리 앞 삼거리가 보이고, 삼거리를 기점으로 앞으로 곧장가면 가평과 춘원이 나오는데 집문소를 좌측으로 끼고 조종원을 따라 들어가면 경기도 현리로 가는 국도가 잘 포장되어 주변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집문소가 있는 삼거리로부터 20분을 가면 몇 개의 마을을 지나 일초의 마을의 입구가 나타난다. 주변에는 국민학교(삼면)가 하나 있으며 주변가게는 아직도 도시의 슈퍼마켓과는 비코가 되지 않으나 현대화 되어가고 있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도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다.



주변은 작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한 시골 모습이다. 그러나 많은 산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산들처럼 산 명칭과 혹은 산이 붙잡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이런고로 어느 지방에는 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 일년에 한 두 번씩 그 산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한

다. 또 지도상에도 산 이름이 그다지 많지 않아 잘 알려진 용평산들만 봉안객이 집중적으로 불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작은 산이라도 산은 나름대로의 근엄한 모습과 온화한 모습, 또는 동물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아름다움과 산의 특징을 끝으로 갖고 있어 알 볼 수 없다.

최근 찾은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까우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마을로서 주변에서 바라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도 실제로 접근해 보면 마을 주변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르게 엄숙함과 신묘 마을을 그대로 감싸고 있는 산정상의 모습이 색다른 감동을 준다.

작은산 가솔쪽으로 잔가늑이 파고 들어가며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 임초리에서 농로를 따라 2km를 안으로 들어가면 산 능선의 완만한 경사도를 이루고 있는 '행현리(杏峴里)'라는 곳에 20여 채의 가옥들이 자리잡고 있다. 행현리를 감싸고 있는 산은 죽령산으로 해발 851m의 작은 산이나 이 산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전해되던 풍습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서울을 가까이 두고 있

으면서 산을 빈두레가 행하고 있는 특이한 마을이라 생각된다.

이 마을에 대하여 경기도 평가군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조사자료와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참고로 하여 정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현리 북쪽에는 '햇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 허방들이 화약을 만들었던 곳이라 하여 '화약굴'로 불리워졌다가 변용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재조가 계유정란으로 어민 단골을 몰아내고 사육산을 처형시키는 등 죄를 지어 하늘이 이에 노해 얼굴에 무스럼이 생기는 피부병을 얻게 하였는데 행현리의 '비룡산'에 와서 얼굴을 씻으니 무스럼이 깨끗이 없어졌다 한다. 이전에는 통이 차를 운 왕래 날아 오르려는 형상을 띠었다고 하여 비룡산이라 부르던 산이 재조가 다녀간 후로는 '죽령산'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재조가 이곳에서 사냥을 하는데 꿈 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이 산은 여산(女山)이기 때문에 산돼지를 사냥할 수 없으니 왕께서 몸소



행차화선기에 산재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산재지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가 함이라고 일러주었다. 꿈에서 깨어난 세조가 산신령이 가르쳐 준대로 행하여 결국 산재지 다섯 마리를 오도산으로 옮기고 화살을 쏘아 잡았다고 한다. 그 후 세조가 이 곳에서 산신령께 제를 올렸다고 하여 '축령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또한 비룡산의 또 다른 명칭으로 '오룡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는 봉우리가 다섯 개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밖에도 옛날 사기를 구웠다는 '사기막', 돌이 많이 있다고 '돌모루', 또한 장례가 많이 산다는 '장천담', 전주 이씨, 벽천 이씨, 등 이씨들이 많이 산다는 '이촌담'이 있으며, 적성을 드러내고 어느 고개에 있는 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백성이 몰래 세숫살에 놓인 고기를 훔쳐 먹어서 이에 신령이 노해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었다는 데서 유래한 '백성고개'라는 곳이 있다.

이와 같은 설화가 있는가 하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산신제가 행하여지고 있기도 하다. 산신제를 지킨한 기원은 잘 알 수 없으나 매년 10월경이면 중추주일을 택하여 황소를 봉제로 잡아 산신당에 걸어 놓고 마을 사람들 중에서 생기와 복덕을 가져다 경건하게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산신제를 올릴 때 쓰는 제문에는 山神歲次某年 月日某日 神靈在下村民昭告于로 시작해서 祝靈山之神 神之爲靈이라 고하여 촌민의 祐之靈과 怪疾 그리고 畜物害病 또는 鼠虎下野 등을 靈格之神이 보살피서 村民之福을 伏惟한다는 향문의 靈祐으로 한 해동안의 時刑年豐과 더불어 怪疾이나 虎患의 厄運을 막아 달라는 기원의 산신제가 거행되는데, 원래 산신제는 산일 마을 사람들과 산신, 지령이 인연을 맺어 자연을 숭배하는 전통민속제이다.

산신제는 역사적으로 신라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신라는 三山五岳神을 제사지냈고, 고려와 이조 때에도 산과 마을 사람들이 인연을 맺어오던 것이 여전히 계속되어 국가에서는 국민민안을 빌었으며, 백성은 화재, 수해, 병재가 없도록 산신에게 기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산

신제는 전래적 민속제로 승화되어 온 것 같다.

그 증거로서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신제를 거행한 마을 수가 5백여 부락이나 되었다 하니 민족문화 말살의 탄압정책 속에서도 우리의 고유 민속제인 이 산신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첨단과학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산신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처럼 작은 산도 나름대로의 말은 전설과 설화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의 산악인들이 이곳을 찾는 흔적이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을 찾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를 좀 더 주변 산을 중심으로 보충 설명하면 축령산에는 서울 방향쪽에서 경기도 '마석'으로 제곡을 따라 정상으로 가면 '운수'를 거쳐 '외방'과 814고지의 '주금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고, '마석' 반에는 잘 알려진 천마산 스키장이 있어 많은 스키어들이 찾고 있지만, 이곳 축령산은 대부분 잣나무들이 산을 에워싸고 있고, 정상쪽으로는 원시적인 참나무들로 뒤덮여 있어 작은 산들물들의 서식지로도 안성맞춤이라 본다.

파라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산이라고 관심없이 지나쳐 보내는 것 보다 실제 살펴보면 그 산이 갖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내역들을 볼 수가 있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도 많은 교훈을 주리라 본다. 또한 작은 산이면서도 여러 천문 설화가 있지만 대부분 기록이 많지 않아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들을 그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와 자료화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훌륭한 산을 찾아 그 내역을 알아보고 세배 마을의 설계를 할 수 있었던 일이 많은 바 적후에 충실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올해 본 명산을 소개하였다. **장문**

세 월유한



공군 제2762 부대/부대 이희호

만일 생을 정치에 몰입하. 생활해 온 삶 뒤엎던 직장을 절망이라는 명분으로 떠나 보내야만 하는 것은 후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분을 모두는 물론이 못지 않게 애기도 있고 원성적으로 밀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전하지만 연한이 되면 풀러나야 만 한다는 이유가 비답에 맞게 하는 것이다.

내 나름대로 생활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은 직장에서 모양이나 행사가 있을지 마다 기념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보는 것이다. 지금의 내 주위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이 덧없이 흘러있음을 알게 된다. 가끔 한가한 시간이 있거나 자정이 지나도록 잠을 자지 못할 때, 또는 새벽녘에 같이 깨어지면 그동안 내 곁을 떠나 버린 사람들을 생각하곤 한다.

주말이나 휴무일에 결혼식이나 상례식장을 빠질 없이 찾는 이유도 대인 관계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곳에 가보면 오랫동안 나와 함께 군무를 하면서 신장이나 절망이란 사람도 내 곁을 떠난 얼굴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사소한 감정대립이나 상반된 이해관계로 한동안 서로가 겪었던 갈등을 다듬어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들 그렇게 어렵게 배들을 돌아가면서 힘들게 생활을 해야만 하였던가 싶다.

때전에는 제중적인 조직 속에서 그들과 상하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은 흐릿히 인생 역문만이 계급장으로 남아 있고... 이제 그들을 떠나 사석에서 부담없이 만나 할아버지라고 불러 보면 더 없는 친근함을 느낀다.

그들의 조련한 웃음을 보면 유한한 세월 속에 내 길만을 걸으면서 중용의 도를 지킴에 생활하지 못하고 허탈한 일을 가지고서 속물계 살아 온 것이 정말로 후회스럽다.

흔히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무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월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졌 유한한 세월을 생각한다면 기적이 더 소원하기 전에 청년이 오기전에 한 순간만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될 터인데... **END**

공군문단

- 들려오는 그 소리
- 삶의 향기
- 감정을 생각하며

들려오는 그 소리

공군 제39기 부대 준위/강상훈

그처럼
아름 문단의 역광으로
깨우침의 그 소리
이처럼 흔하하던 말인가.

표현조차 거부한
이념의 상처가
말과의 무덤 속에서
검오의 토굴로 차오른다.

이 들려오는
그날의 가뭄
넘치던 미기의 용트림은
승리요 원망의 소리였는데

표류하던 세월의 양쪽에
몰락하는
몰락하는 또 하나의 불꽃이 있어
막연 감출기름 (배우자)

조국의 노래를 들러 줄
원시의 미물 잊지 않고
보일던 말무에 있잖나
들려 올 성성한 장군의 나팔 위에—

삶의 향기

공군 제 2702 부대/9급 조영혜



아침부터 하루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날이 많다. 그 날은 며칠간 집에 늦게 들어간 것 때문에 어머니께 집안 일에 무심하다는 적어도 나에게서는 지루한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예전 녹음한 노래 테이프는 카세트에서 갈라 늘어나 버렸고, 동생도 경상시의 달리 어찌 그의 늦잠을 꾸리는지. 사람이란 작은 일에 신경을 더 쓰고 남이 별 생각없이 한 말에도 상처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저 "오늘 하루는 모든 일을 쾌념하고 일찍 잠지 집에 와 밤이나 자아지." 하는 마음 뿐이었다. 사무실에서도 크고 작은 실수는 계속되었고 추상하니까 자연히 일도 못 다들어졌다.

퇴근시간이 가까와 질수록 나 자신은 없고 허깨비만 남아 있는 듯한 기분이 되면서 할바를 잡지 못하는 생활에 대해 반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구를 벗어나 조용하고 깨끗한 곳으로 가아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최근 때가 되니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 곳으로 가아할지, 혼자서 갈 수나 있을런지... "그날 집에 갈까" 하는 마음도 강했지만 결국은 동네구 역과 동무 절류장을 비스로 왔다갔다 하던중 갑자기 서부 절류장으로 방향을 정해 창녕 화왕산으로 가는 비스를 탔다.

영광하게 화왕산을 뒀던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스온 일이지만 예전에 친구들과과의 즐거웠던 추억이 많은 곳이고 우리 살던

씨의 사초가 있대되었다는 3층이 있는 산이기도 해서 혼자 찾아가기에 낯설지 않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출발때는 시장기였다 비스산의 텅텅난 공기 탓에 두들들때마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창녕에 도착하여 비스를 내려서는 순간 그 중세가 깨끗이 쟁겼다. 눈에 직은 역 주변의 모습이며 예전에 지나갔던 시장 길에 공중전화까지. 그 길을 다시 혼자서 가본다는 사실이 삼기하기까지 했다. 걸어 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잔근함이 느껴졌고 이 지방은 편지 나와 많은 인연이 있는 듯한 생각까지 들었다. 산 아래부터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디를 봐도 건물, 도로, 차 뿐인 도시에 서와는 달리 제각기 다른 풍경을 한 산을 대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다.

나는 비록 산의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하고 내려오고 말았지만 그저 산을 가까이서 보았다는 대지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어느 소설가의 글처럼 산에 오른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일이며, 하늘과 산 그 사이에 내가 서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산을 정오면서 그동안 있었던 겉코러운 생각들을 정리하고 영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나의 생활을 반성하고자 했으나 뜻밖으로 내기 정리해야 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그렇게도 신경이 쓰인 것은 모두 스스로가 팔레르

만들어 낸 구속이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실
일 뿐

우리는 매일 매일 지나치게 커다란 근심을 안고
사는 것 같다. 행복이란 그리 대단한 것에서만 발
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실 나는 나의 고민만 끌어 안고
지내왔지 타인의 고민에는 너무 무관심했음을
아니 남들도 나와 유사한 마음고생을 하는지 생각
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힘든 생활일수록 하늘 한번 쳐다보고 숲 한번
크게 쉬며 느긋하게 사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
난다. 한 노인이 50층 건물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죽었다. 왜냐하면 이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한 줄
씩 떨어질 때마다 '어버 리를 어찌'하고 걱정들을
하니깐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는 맨줄이'
였다. 과장이 심화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생활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 될

것이다.

산은 내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나 혼자 끔찍대
어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가르쳐 준 셈이다. 그 웅
장한 모습이 너무도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감싸주
며 속에 있는 편승을 토해내게 해 주었다. 그리고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금 나를
잘 우장지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든든한 대장
같은 포용력을 보여주었다.

내가 버릴건 스스로에게 따줄내고 만족하지 못
한 것도 모두 산에 못가치 쟁긴 벌이라는 것을 알
았다. 산을 타고 실어서, 흙 냄새며, 풀소리가 그리
워서 무의식중에 쟁긴 벌이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의 탈출구를 발견한 셈이다. 정상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려왔지만 세
상살이에 지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면
다시 찾아오리란 마음으로 어둠에 잠기는 산을 떠
나왔다. **정문**



‘김記者’를 생각하며

공군 제2583부대/소원 이형집

나른한 봄날 오후, 누군가 캐비닛을 열고 우연가를 주섬주섬 켜기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손에 들른 것은 한 봉지 필름 다방 같았다.

“현상소에 다녀 오겠습니다. 과장님”

나란한 목소리가 입지에 얹은 안개를 걷어 낸다. 그 소리에 나는 눈이 커지고 대략 이 시간이 오후 1시 30분 경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맨 처음 이 부대에 전속되어 사무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눌 때 그는 내 옆 자라였다. 살이 많이 빠진 얼굴은 조금 거무스레하고 이마에는 진한 제곱질이 그려져 있었으며 입술은 거칠어 어딘가 전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군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상이었다. 초면에 실례가 될까 미궁같은 질문은 피하고 수한사만 나누었다.

그는 하루에 두어 번 시내 사진현상소를 다녔다. 여기는 유달리 사진찍어야 할 일이 많다. 외부에서 방문자가 빈번하고 부대 자체적으로 행사가 하루 건너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해할 일인지 이 부대 전제상으로는 사진찍기가 없다. 하지만 기록에 남겨야 할 행사는 어지간히 있고 해서 같은 기지 안에 있는 다른 부대에서 지원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그 지원자적인 그는 늘상 우리 사무실로 출근하고 우리와 하루를 보내며 우리의 일과표에 따라 생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

게 시내다 보니 과전도 아니고 전속도 아닌 배우 어쩔만한 상태로 오죽이 불문명해졌다.

흔히 우스개소리로 대령보다 높은 사람이 사진사와 이팔사라고 한다. “머리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리시오”하면 누구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사함을 대상으로 사진찍는 일이 어대 쉬운 일인가. 사진 찍기전에 ‘필승!’이고 사진찍고 나서도 또 ‘필승!’이다.

인편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굳게 입다문 회회실 문 앞에 그가 카메라를 들고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회회실 문에는 (참참○○○ 전술 토의장)이라는 팻말이 버티고 있었다. 그 날 참참 부대방문단 계획에는 전술토의가 끝난 다음 회회실 안에서 사진촬영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전술토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고충은 또 있다. 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관 앞에서 전체가 모여 있는 집합형 사진구도가 대부분이므로 사람들의 서 있는 위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명대장자가 제한되면 일단 그들의 직책을 서명순으로 정리하고 직책이 적힌 딱지를 워프프로세서로 세르게 프린트한 다음, 현관 앞에 부착 놓는 것이다. 또한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는 이를 위해 집합에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 비로소 작업이 끝난다. 이러한 전과정을 뒤

지 그 혼자서 처리하니 별 제나 돌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군에서 찍는 사진이라지만 카메라를 들기 전부터 한 장의 사진이 현상되어 테두리를 부치는 작업은 창작활동이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생활은 예술과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작업들이 마음 편한 일들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본디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는 회식자리에서 주는 술잔을 사랑한 적이 없다. 자신의 빈 술잔을 보면 매우 허전한 표정을 짓다가 옆 사람이 잔을 채워 주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진해서 노래를 부르는 한다. 그의 애창곡은 '아파트' 몸을 잘 하리후로 흔들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의 서학을 열면 한약봉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커피와 담배는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다.

"술도 끊으셔야죠. 술먹고 약먹으면 도무룩 아니요."

"그것마저 없다면 무슨 재미니까, 인생은 즐거워야 합니다. 안 그럴습니까?"

한번 언aldi었다. 한 해를 마무리짓는 시기이니 행사가 적을 수 없다. 더구나 그는 혼자이니 한가한 일당이를 어느 피자에 무질 떨어 있었는가. 사진은 단순히 '찍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해 연말에 과로하여 피까지 쏘았다고 한다. 위장병이 악화되었음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가 더욱 어려워 보였다.

35mm 카메라 필름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크기

인 3×5사진에는 사람, 배경, 복장, 계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사진의 표정이 있다. 물론 다큐멘타리 사진처럼 사진에 대한 진실한 감성요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찍어내고자 하는 대부분의 원질은 리사체인 사람이 사진찍히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분히 연출된 표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진속에는 살펴보면 불수복 풍부한 역사가록이 숨겨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현숙해온 이후 그가 휴가를 가거나 특박을 요구한 적이 없고 사무실 수위 동료들의 말을 들어도 한번도 절근한 처 조차 없다고 한 것을 미루어 보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지나가는 말로 슬며.

"아니, 휴가 안 나갑니까?"

"저도 물론 원고 싶지만, 과장님. 저 혼자이지 않습니다."

그의 답변은 내 귀에 '역사가록은 휴일이 없습니다'라고 들린다. 그의 신조 때문일까. 그가 현상소에서 가져온 사진봉투를 보면 '찾는 사람'에 '집으로'라고 적혀 있다.

현상소에서 돌아온 감기차의 손에는 한 다발의 필름 봉치대신 인화된 사진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현상소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㉔**



시사용어 — 신세대, 사회에 관하여

<편집실 제공>

1. 덩크족(Dink 族)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 허도락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방법이 우부로서 대인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임을 존중하여 집에서 보살을 찾으려 한다. 덩크족을 낳는 자들의 원만한 생활이라고 보는 견해와 과도한 물질적 때문에 생긴 불행병으로 보는 견해 둘 여러가지가 있다.

2. 예피족(Yippie 族)

Young Urban Professional의 약어로 도시의 젊은 전문 직업인을 말한다. 돈과 출세를 인생의 2대 목표로 삼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절단적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한 그룹이다.

3. 예피족(Yipie 族)

젊고(young), 개인주의적이며(individualistic), 자유분방하고(free minded), 이란 세대에 비해서 사할 수가 적다(low)는 뜻으로 미국 사회에서 1980년대 들어 예피족에 이어 새로운 등장한 20대 초반의 신세대 직업인. 이예피족은 온 벼는 것과 건강을 최대 목표로 삼는 예피족과는 달리 배지, 가족관계, 여흥있는 생활, 다양한 재취 등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자장을 부파적인 문제로 여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 승전조차 바다하고 하기 삶이 질과 행복을 추구한다. 어떤 이들의 개인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을 보고 앞으로 이들이 이끌어갈 미래사회의 모습에 대해 우려를 낳기도 한다.

4. 유미(Yummy)

상향적이고 활동적인 젊은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 Young Upwardly Mobile Mommy의 약자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한 사회 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이들은 가사노동 외에도 문 화인, 파드 타일의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자기개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녀의 출산, 육아,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아이들을 형태로 키우고자 노력한다.

5. U턴 현상

일단 대도시로 러지한 시골 출신자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형태의 노동력 이동을 말한다. 대도시 의 과밀과 문제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이 많고 지방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노동력의 도시탈출을 촉진시키는 이유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않고 도중의 지방도시에 정착하는 것을 J턴 현상이라 한다.

6. 호로 중후군

남편 생바리자와 파나 알욕으로 결혼 후부터 중년에 이르러까지 바쁜 나날을 보냈던 가정주부가 어느날 문득 남편도 자식도 모두 자신과 한 안에서 떠나버렸음을 깨닫고 자신의 일체성에 대해 의외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러한 정신적 갈등은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대 가정 생활에서의 節

법은 인간의 실생활에 대처하는 정신작용 및 행동의 표준을 제시해주는 데 그 근본은 '예출어정(禮出於情)'이라하여 마음(人情)에서 비롯된다 하였다. 또한 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같이 생각되지만 '예변추전(禮以則)'이라 하여 오히려 간소한 것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節은 우리 민족의 감정표현방법, 생활습관, 의복차별 등에 밀접하게 형성되어 현재 내려온 교양의 인사법이다. 예나 지금이나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지켜야 할 예절(禮節)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인사는 모든 예절에 으뜸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사는 지나쳐도 소홀해도 안된다 하였으니 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있음을 말한다.

節은 아래사람이 웃어른께, 대를한 사이에게, 그리고 아래사람의 집에 답례하는 절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경소(軍告), 갈사(告事), 종사(宗事), 처음뵈을 때와 끝날 때 등 경우에 따른 절이 있으며 절을 드릴 때에는 장소를 다배 정중히 드러야 할 때와 간단히 약식으로 하는 절이 있는 것과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랐다.

가정생활에서의 절은 크게 평절과 큰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평절은 생상시, 정초 세배할 때, 상제(喪祭)에게 조상(弔喪)할 때 주로 하는 것으로 웃어른에서 위중하실 때, 돌아오셨을 때, 아침 저녁 문안 드릴 때, 원제지간에 오랫동안 만났을 때 등 요즈음의 평례와 같은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행해서 왔다.

특히 정초 세배는 차례부터 지내고 하며 드리는 데도 순서가 있다. 즉, 문중에서 제일 웃어른이 계실 종가(宗家)부터 세배를 다닌다. 세배를 가기 전에 어른에서 찾아오시면 큰 절례가 된다. 세배를 받으러 오시면 한 절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른이 누워계실 때는 절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분이나 누워서 절을 받기 때문이다. 절은 한 문에겐 한 사람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이 함께 앉아 세배도 두 번 하였으며 돌아 댔겠다는 말없이 있어야 한 번에 할 수 있다. 절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어른이 덕담(德談)을 한다. 이때



이 성 숙 군가리

(공군 제5718부대 대위(이병군)의 부인)

덕담(德談)은 “올래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등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정사실화하여 말한다.

큰절은 혼례(婚禮), 어른의 회갑(回甲), 고취(古壽), 회갑례(回甲禮), 상례(喪禮)의 일편에서, 제사(祭禮) 지낼 때 주로 하는 성중한 절이다. 관(冠)·혼(婚)·상(喪)·제(祭) 등 의례(儀禮)의 절차 및 방식 차례가 과거와는 사이가 있으나 기본이 되는 절차에는 꼭 절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의례미 중심이 되어 있던 관(冠)·혼(婚)·상(喪)·제례시(祭禮時)의 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례(冠禮)에서는 주례가 관례할 자에게 혼(冠)을 하고 머리를 빗겨 올려 상투를 짜며 세번 순자가 끝나면 제사(祭禮)를 지내고 관례할 자에게 자(字)를 붙여준다. 주인이 관례할 자를 데리고 가서 사당에詣하여 참배하게 한다. 또는 부락 내의 어른들을 찾아 다니면서 절을 한다.

혼례(婚禮)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절차인 대례(大禮)의 과정에서 신랑, 신부가 절을 하게 된다. 즉 신랑이 먼저 대례상을 숙여 읊(誦)을 하면 신부도 제자리에서 신발을 마주보고 선다. 신부가 신랑에게 두 번 절하면 신랑이 답으로 일배(一拜)한다. 신랑, 신부가 제자리에 앉아 합근례(合堅禮)를 행하면 대례(大禮)가 끝나는 것이다. 또한 제백(幣帛)은 환구고례(還歸姑禮)라 하여 신부가 시댁 어른께 처음 인사 드리는 것으로 시부모가 절을 받는 제일 순위가 된다. 절을 할 때 수모(手母)는 약간 엷혀 앉고 바닥에 앉을 때는 신부를 먼저 앉힌다. 앉은 후 약간만 숙이게 하며 머리장식이 없으면 손만 내밀다 올리기도 한다. 시부모께 삼각 제배(再拜)로 제백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사배(四拜)를 하기도 하였다. 사조부모님이 계시면 대신 곳으로 신부가 가서 시부모의 절우와 마장까지의 예로 제백을 드린다. 형제간에는 남편의 형제순위에 따라 남편보다 아래인 시동생과는 맞절을 하는데 신부가 손윗사람이 되므로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먼저 앉기 시작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조카의 경우에는 신부는 절을 하지 않고 실좌에 앉아 절을 받는다. 조카는 형절로 신부에게 절을 한

다. 반일 시부모 모두 재시지 않고 어느 한 분만 대신 경우에는 사당제배(祠堂幣帛)를 드리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당에 날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당제배(祠堂幣帛)의 수모(手母)는 직업적인 수모가 아니라 그 때 머느러나 딸이 된다. 주혼자(主婚者)가 누구의 처 본관(本貫) 누구라고 하고 수모(手母)가 신부에게 절을 한번 시키고 신부 손을 거의 제백 음식을 올린 후 다시 한번 절을 하도록 한다.

상례(喪禮)는 그 절차에 있어서 여러 번 제(祭)를 지낸다. 입관(入棺) 후 상주(常主)와 복인(服人)들이 상복을 입고 제사 지내는 절복제(成服祭)를 비롯하여 발인제(發引祭), 삼두제(三頭祭), 종족제 등이 있고 집안이 되는 기일(忌日)에 소상(小祥)을, 다음 기일(忌日)에 대상(大祥)을 지내게 된다. 이들 각종 제(祭)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절을 하였다. 문상(問喪)을 가는 경우에는 말장 앞에서 제배(再拜)하며 상주(常主)는 예에 따라 길이 머리 숙여 절하고 다시 약간 숙이거나 슬픔의 지극한 표현으로 약간 숙이고 나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한다.

사례(弔禮) 중 마지막 제(祭)인 제례(祭禮)의 종류로는 차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가 있다. 기제사(忌祭禮)는 조상의 기일(忌日)에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그 절차는 참신(參神)에서 촛불(點燭)까지로 절을 할 때는 큰절로 제배(再拜)한다. 예전에 여자는 사례(弔禮)하지도 했다.

이 밖에 절에 관련된 공경의 표현으로는 공수(拱手)와 종(揖)이 있다. 공수(拱手)는 손끝을 모은 두 손을 모아 잡는 것으로 평상시에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잡으며 통사에는 이와 반대로 한다. 종(揖)은 절은 아니고 간단히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공수(拱手)한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렸다가 내려면서 상체를 약간 숙이는 것이다.

현대에는 시대상황의 변화로 생활이 복잡하고 다량배집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인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근래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빈번히 교류되고 있어 인사 방법도 여러 가지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바빠진 생활에 맞는 간편하고
하기 쉬운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 갈 것
이라고 사료된다.



①



③



②



④

폐맥절

- ①양쪽에서 수모가 신부를 도와준다
- ②수모가 먼저 앉으면서 신부를 부축한다
- ③신부는 무릎을 꿇고 앉는다
- ④일어날 때는 신부가 먼저 일어난다

페백올리기



①



②



③



④

- ① 수모의 도둑을 받아 신부만 시부모에게 축하인사를 올린다
- ② 수모가 술을 따와 신부의 잔에 붓고 놓는다
- ③ 역시 수모가 술잔을 시부모에게 올린다

- ④ 술은 식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올린다
- ⑤ 술을 마신 시부모는 하느님에게 감사의 대수를 언약주의 대답을 한다
- ⑥ 시부모에게 절을 한 후 시조부에게 절을 올린다. 이때는 절을 한번씩만 한다



⑤



⑥

군사용어와 속어의 기원

Ambulance : 구급차. 오늘날에는 후송차나 기타 환자를 실어나르는 차량을 의미하지만 원래는 임시 야전 병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다.

Asiatic : 열성된 사람. 원래 해외에서 미국 본토로 귀국하는 귀국선을 번번히 놓치는 장병에게 조롱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Batman : 장교의 개인 달변병. 영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Bat'는 옛 영어에서 짐을 의미했던 것이다. 따라서 원래 밤에 장교의 장비를 싣고 다니며 돌봐주는 병사를 말한다. 이 짐 싣는 말(Bathorse)이 군대에서 사라지자 Batman만 남아 장교의 달변병을 의미하게 되었다.

Bolo : 등회사수. 실수 덩어리. 사격장에서 소총사격을 할 때 최하의 점수를 받아 결함격 관철되는 병사를 'bolo'라 불렀는데 이 말은 군인에게 최악의 자화어였다. 원래 이 말은 스페인어로 무거운 칼을 의미하는데 소총을 잘 쏘지 못하는 병사에게는 차라리 총보다도 칼을 주는 것이 낫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BOQ : 장교 독신 숙소. Bachelor Officers' Quarters의 약어.

Bugle : 나팔 또는 시계를 끝다. 비 육사생도의 속어로 초장기 육사에서 나팔선호로 수업 시작과 종료를 알려주던 때에, 숙제를 인해 오거나 예습을 인한 병도가 수업 끝 나팔을 기다리며, 자기의 발표 차례를 짐작할 줄 어귀다가 나팔이 불면 해방이 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Carpet Knight : 합참정력이 없는 군인. 역사적으로 최초의 기사들은 누구나 전장에서 용감성 때문에 왕금박자를 얻거나, 또 수여되었다. 그러나 행정적 기사가 나타나면서 이 비전투 기사들은 살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양탄자를 깔아놓은 궁전에서 양으로 왕금박자를 수여 받았으며, 이때에 양탄자 기사란 칭호도 함께 받았다. 이 말이 오늘날에는 살전 경험없는



공군본부 본부사령관/소령 김상훈

군인을 지칭하는 뜻이 되었다.

Coffee Cooling : 짙게대며 노는. 커피가 뜨거우니까 못마시고 식힌다는 짙게를 대면서 커피 휴식시간을 더욱 연장시키던 관습에서 나온 속어이다.

Commando : 특공대. 포르투갈어인데 남아프리카의 보아인들이 포인더 약탈에 대하여 모집한 의용군에 붙여 쓰던 것이 영국인들에 의해 그대로 전해졌다.

Dog Tag : 전식표. 군번. 성명. 혈액형을 초그마한 철판에 눌러 음각한 모리표 같은 모양의 심문 확인표인데 등에 매어 목에 걸고 다니게 되어 있다.

Eyewash : 속임수. 진열이나 기마 진장을 받을 때 보기가 좋게 하기 위하여 내색을 세운 물건이나 행위 등에 붙여 쓰인 말인데 다분히 일터라, 또는 사기장이 있음을 말한다.

Footlocker : 관공함. 작은 트렁크로서 내투박에 속옷이나, 양말, 입용품 등을 넣어두는 상자형 용기인데 이것을 흔히 침대의 발치에 놓아두었던 데서 생긴 말이다.

Fruit Salad : 혼잡의 상징. 열미군의 용어로 왼쪽 가슴에 채용되는 혼잡이나 타본을 말한다. 보통 3줄 이상의 약갈으로 꾸며지며 그 모양이 과일 샐러드처럼 다채로운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General Officer : 장성급 장교. 이들은 모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Goat : 성격이 나쁜 양도. 미 육사에서 생긴 속어로 성적이 저열하여 맨 끝 교반의 끝 자리가 그 군복을 차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국 육사에서는 비아냥거리라는 뜻으로 성격이 나쁜 교관을 장군 교관이라 한다.

He's had it : 낭패다 또는 전사했다. 영국 공군에서 시작된 속어로 전열 등에서 패배하거나, 전사했다는 뜻

으로 쓰여지며 외출했다가 미처미 귀머머스를 놓쳤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통용성이 큰 표현이다.

Iron Rations : 비상 휴대용 양식.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공기가 못들어가게 밀폐한 주석양봉에 식량이 넣어질기 때문이다.

Jerk a belt : 해임. '군무를 맡겼한 군인을 보직해임시키다'는 뜻인데, 보초근무 중인 병사가 졸고 있으면 상관이 그를 깨우기 전에 코대를 빼어 압수하여 졸았다는 증거로 삼던 옛날 미군의 관습에서 나온 말이다.

KP : 식사명. 'Kitchen Police'의 약어인데 원래의 뜻은 '요리사를 묶는 병사'로 근무태도를 밝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배식을 관리와 식전, 식후의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한다.

Lieutenant : 중. 육군 중소위 또는 해군 대위. 영어로 'lieu(자리)', 'tenant(잡는)'의 합성로서 이 말은 상급자가 없을 경우 그를 대신해서 군무를 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불상 공군, 육군에서는 대위의 자리를 해주는 중위, 소위를 말한다.

Meat Wagon : 구급차. 앰블런스를 의미하는 미군의 속어.

NCO : 하사관. 미군의 경우 상병이나 병장 이상의 하사관을 말하며 한국은 단기 하사 이상을 말한다. Non-Commissoned Officer의 약어이다.

Old Man : 대장. 지휘관. 나이가 무관하게 중대급 이상 부대 지휘관에게 붙여 쓰는 미군 속어이다. '형님'이란 한국군의 속어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PX : 영내매점. Post Exchange의 약어. 주로 육군에서 이렇게 쓰지만 해군과 공군에서는 BX 즉 Base Exchange라는 말을 쓴다.

QM : 경찰장교 또는 명칭명과, *Quartermaster*의 약자인데 그 뜻은 부대원의 숙소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장교를 말한다. 15세기의 프리시아군에서 부터 시작된 말이다.

Red Leg : 포병. 미군 속어로 옛날 미군 장교는 장복 하의에 병과 마다 다른 줄을 붙여서 착용했는데 포병장교는 붉은 줄을 치고 있던 데서 나온 말이다.

Shavetail : 신입소위. 원래 군용 말(馬)로 훈련당한 노새를 의미했으나 1899년부터 새로 입관한 장교들을 '꽃내기'란 뜻으로 이렇게 불렀다. 물론 미군 속어로 쓰이지만 그 어원은 새로 군대에서 사들인 말의 꼬리를 잘 다듬어 길들여 왔던 사실에서 신입장교들과 닮은 점을 꼬집어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SI : 토요일 부대검열, *Saturday Inspection*의 약어인데 미 육사의 속어이다. 생도들은 토요일에 실시되는 부대검열이 대단히 엄격하여 가장 좋은 군복을 착용하도록 제택, 아이론 등을 해두는데 이런 군복을 육사생도들은 'SI Trousers' 즉 '검열용 바지'라고 부른다.

Sunshiner : 적도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한 군인. 적도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는데, 이들은 열대기후에 익숙해 있어서 추위를 못참았다. 이 뜻이 더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조금만 추위도 불평을 하는 병사들을 일컫는다.

Tank : 전차 또는 탱크. 영국에서 1차 대전중에 장갑차를 싣히기 위하여 비밀리에 전선에 배치하여 시험할 때 그것을 방수천으로 덮어 놓고 이름을 물탱크를 뜻하는 용기인 Tank라고 속어 불렀는데 나중에 공개하면서 더 좋은 이름이 없자 Tank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데서 생긴 말이다.

Yard Bird : 신병. 미군 속어로 훈련되지 않은 신병 또는 새끼가 가장 낮은 이동병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요령없는, 실수만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 원래 미육사 생도대에서 별점을 받고 앞내 내부만 지역을 정해진 시간동안 해발로 보행하는 생도를 'Area Bird'라고 하던 데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글을 기다립니다.

공군지 제 224호 모집원고 내용

구분	내용
컬러	의식적 차등에서 보완이나 권장할 사항
편곡인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내용
시사, 안보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연관된 것 중심
군사지식	항공기 등 공군 관련 군사 지식 및 정보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건전한 취미 소개
특집	*합리적 부대운영이란? (군 조직내에서) ◦ "군조직 내 합리성의 의미와 필요성" ◦ "비합리적 관행의 사례" ◦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등
기획	*조직 운영의 방법 비교 ◦ "민주성 VS 능률성" ◦ "자율형 지휘관 VS 관리형 지휘관"등
만화	군인으로서는 지켜야 할 점들 계몽적으로
병영미아기	사병들 대상, 군 생활에서 느낀점을 표현
대월의샘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관련있는 내용
공군문단	시, 단편소설, 수필 등 수준있는 문예작품
토익기사	생활 정보, 일화, 문학 활동 소개 등
화보(컬러)	부대 통장 등 일리고 싶은 사항
기타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 보낼곳 : 충남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공군지 편집실

• 전 화 : 공군본부 3532-4 (02) 506-3532-4

(042) 552-3532-4

공 군 1993. 223호

■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 발행일 : 1993. 7. 10

■ 인쇄처 : 종합인쇄 금성산업

(042)254-7434, 256-7434

마음을 새롭게
공군을 강하게



공군본부

